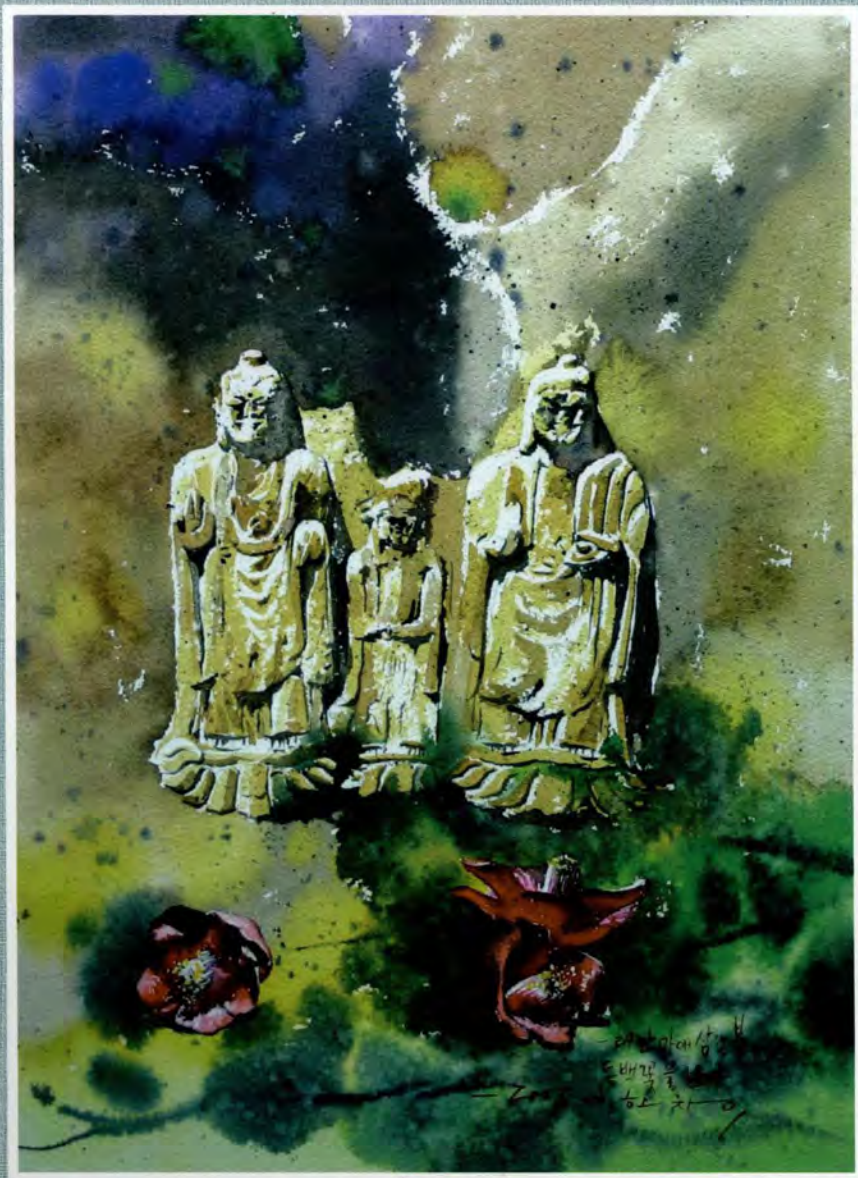


제37호
2007 봄 · 여름

雪峰文化



이천문화원

이천문화 발전 홍익이 함께 합니다

20여년간 축적된
Know-how와 Data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정확하게
첨단 최신설비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감동과 정성을 담아 제작합니다.

- 출판기획 지지, 문자, 사자, 향토사, 역사서,
사보, 연감, 연보, 교지, 규정집,
회고록, 자서전
- 광고기획 선거홍보물, 의정보고서, 공연팸플렛,
포스터 카다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제품 매뉴얼, 화보
- 인쇄제작 카렌다, 다이어리, 금융기관 서식
각종서식(세무, 행정, 의료)



좋은생각 좋은느낌

홍익문화 · 홍익기획

02) 2274-8110(대)
031) 637-8114(대)



정해년 새해맞이 행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이모저모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기원 촛불집회





도자기축제 공연행사
아모저모





아생화와 분재전시회 ▶



일본 고오카시
시민교류단 이천방문





문화원 문화가족
주말문화탐방



◀ 향문회 회원 역사문화탐방





‘달려라, 똥똥빵!’
즐거운 주말버스학교



▲ 미꾸라지 잡기



차례

雪峰文化

2007 봄 · 여름 통권 제37호



|| 박 호 창 ||

태안 마애삼존불에서 동백꽃을 보다.
수채화, 33x45cm

화 보

- 정해년 새해맞이 행사 ...01
-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이모저모 ...02
- 도자기축제 공연행사 이모저모 ...04
- 일본 고오카시 시민교류단 이천방문 ...05
- 문화원 문화가족 주말문화탐방 ...06
- ‘달려라, 뛰뛰빵빵!’ 즐거운 주말버스학교 ...07

특 집

- 문화시론 이천향교 오충석탑 반환운동에 대하여 ...09
- 역사문화대학 지상강좌 ③ 古代의 利川 地域 ...20
- 이섭대천(利涉大川)의 옛날이야기 ...30
- 백사면 편
- 연구보고서 이천문화원 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 ...52

게시판

- 세계도자비엔날레 ...70
- 문화행사 이모저모 ...78
- 시정소식 ...94
- 전람회소식 ...102
- 신간안내 ...107
- 문화원소식 ...109

|| 발행인: 이상구
|| 편집인: 이민수
|| 발행: 이천문화원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312
(창전동 105-3번지) 시민회관 3층
|| 전화: 031) 635-2316
|| 팩스: 031) 637-7486
|| 홈페이지: www.cc2000.or.kr
|| 이메일: cc467ic@hanmail.net

|| 제작: 홍익기획 서울 중구 저동2가 7-2
|| 전화: 02) 2274-8110
|| 이메일: hongeeg@kornet.net
|| 발행일: 2007. 6. 30
(2007 봄 · 여름 통권 제37호)

이천향교 오층석탑 반환운동에 대하여

이 인 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 머리말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헤아릴수도 없을 만큼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어디에 얼마만큼이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재를 알 수 있는 것들보다도 숨어있는 문화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내에 있는 한국문화재가 3만4369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학자들은 대략 30만 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0만 점이나 되는 우리 문화재들을 일본이 모조리 강탈해 간 것은 물론 아니다. 조선통신사 방문같은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 정식으로 건네졌거나 국가나 개인이 선물로 준 경우도 있겠고, 정당한 댓가를 주고 가져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식민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상당량의 문화재들이 강압이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탈취당한 것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5년 북관대첩비 반환과 2006년 조선왕조실록 반환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유출된 일본내 한국문화재 반환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방이후 일본의 양식 있는 개인소장가들이 기증형식으로 소장품들을 한국에 반환한 사례는 적지않다. 그러나 정부나 민간단체가 직접 반환교섭에 나서서 이를 되돌려 받은 사례는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1427점의 문화재들을 반환했고, 그것도 정식반환이 아닌 양국간 문화협력을 위한 인도라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서였다. 당시의 공화당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식민지 통치시절, 일제에 의한 문화재 수탈의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이천시 향교 옆에 있었던 이천향교 오층석탑이다. 이 탑은 1915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물산공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멋대로 경복궁으로 옮겨갔고, 삼년 뒤인 1918년 총독부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또

다시 멀리 동경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지금은 슈코칸(集古館)이란 사설박물관 뜰 한구석에 처박혀서 외롭게 망향의 설움을 달래고 있다. 향교오층석탑이 동경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 반환운동의 필요성이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월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마련한 의미있는 행사 하나가 열렸다.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이 공동주최한 <한일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이 그것이었는데, 발표내용 중에는 지난 해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에 관한 사례발표가 들어있어 관심을 끌었다. 또 일본인 하야시 교수가 자국내 약탈문화재에 대한 일본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과 반환에 따른 문제점 등을 소개하여 일본측의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문화재가 약탈문화재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약탈문화재의 원소재지, 약탈경위, 현 소장자의 소장상황 등을 정확하게 밝혀내야만 설득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천향교 오층석탑은 그 수탈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약탈문화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제아무리 증거가 뚜렷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옹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글은 이천향교 오층석탑의 반환운동을 앞두고 미리 알아야 할 것이나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짚어보기 위한 글이다. 반환운동의 성패는 결국 어떻게 상대를 잘 설득하느냐에 달려있고 상대를 설득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적절한 협상전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둑맞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이니 만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만일 상대가 반환요청을 거절한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천향교 오층석탑은 비록 부당하게 빼앗겼을망정 원래 소유가 이천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들이 반환요청을 계속하는한 상대는 문화재 약탈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터이고, 그래서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되돌아 오리라고 믿는다.

❖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유출

외세에 의한 우리나라 문화재 유출은 조선의 개항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량으로 유출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체결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들의 세력이 밀려들어오면서부터였다. 나라는 송두리째 외국인에 의해 유린당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서 우리의 많은 문화재들도 외국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한말 이 땅에 와 있던 서구의 외교관, 선교사, 기술자 등은 많은 수에 이르는 한국의 문화재들을 의도적으로 수집하였다.¹⁾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특히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다.

1) 조부근 <한일협정의 한계와 과제>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공동주최, 2007. 4.27) 자료집, 9쪽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약탈은 일본의 한반도 무력침략의 정당성과 그 지배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고 민족의 사고와 정신을 공동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의 문화재 약탈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과 보관된 것만 보더라도 개별적이고 임시적인 수집이라기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적 약탈행위임이 분명하다.²⁾

조부근(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사무국장)씨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이 공동주최한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에서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출된 중요한 문화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³⁾

2) 조부근, 위약책 9쪽에서 재인용

3) 조부근, 위약책, 9쪽, 10쪽

〈1〉 일본의 고적조사 출토품

- ① 1909년 10월 제2차 고적조사
 - 대동강 남단 고분 2기 발굴, 일본 반출
 - 1910년 가을 고분 2기 발굴
- ② 1911년 10월 제3차 고적조사(사리원 인근)
 - 사리원 인근 대방태수 장무이(張撫夷) 무덤과 토성
- ③ 1913년 9월 제4차 고적조사
 - 진남포 부근, 봉산리 유적 고분(한(漢)대의 와당, 복식, 동기 등)
- ④ 1916년 10월 세키노(官野)발굴팀 고적조사
 - 대동강 남쪽 낭랑고분 10기 발굴
- ⑤ 1911년 3월 세키노(官野) 발굴팀 가야시대 유적 발굴
 - 진주 옥봉 출토유물(도묘제대 공대기중)
- ⑥ 1915년 총독부 위촉 신라고분 조사 발굴
 - 경남 황남리 고분에서 철검, 철장, 토기 출토
 - 같은 해 보문리 부부총 발굴, 순금, 팔찌, 귀고리, 반지 출토
- ⑦ 1918년 경주 명활산 고분 발굴
 - 순금, 귀고리, 금은팔찌, 반지, 기타 옥류의 장신구 출토
- ⑧ 1925년 도묘제대의 낙랑 고분 발굴 출토품
- ⑨ 1921년 경주남문 밖 고분 발굴 문화재
- ⑩ 1924년 금령총 발굴 문화재
- ⑪ 조선고적 연구회의 발굴 문화재

〈2〉 일본인에 의한 대규모 도굴품

- ① 초대총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수집품(고려자기류 수천점)

4) 조부근(한일협정의 한계와 과제) 위의 책, 10쪽

- ② 오구라(小倉) 컬렉션
- ③ 가루베(輕部慈恩) 컬렉션(백제유적)
- ④ 1910년 전산지역 중심 낙동강 유적 도굴품
- ⑤ 이치다 컬렉션
- ⑥ 야마요시(山古盛未)도자기 컬렉션 수백점(주한 일본 공사관 근무자) - 도쿄 재실 박물관 보관(세키노) 『한국건축 조사보고』, 1904

그 밖에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수의 서지류들을 들 수 있다. 교토대학부속도서관의 가와이문고(河合文庫), 마에마(前間恭昨)가 정족산사고에서 반출해간 동야문고, 도쿠도미(徳富蘇峰-경성일보 주필)의 성기당문고와, 이마니시(今西龍-경성제대 교수)의 오사카시립도서관 한국고서, 이토 히로부미가 1911년 가져간 규장각 귀중본 563책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아사미의 마쓰이문고는 2차대전 후 미국 버클리대학으로 팔려갔고, 가네자와의 탁족문고는 2차대전 중 미군공습으로 불타버렸다고 한다. 지난 해 잔여본이 환수된 오대산 사고본인 조선왕조실록도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이 불타버렸다.⁴⁾

이렇게 총독부 관리나 학자, 민간인 할 것없이 닥치는 대로 수집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들은, 이 글의 서두에서도 밝혔듯 30만 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조사하여 밝힌 3만4천여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화재들이 어디에 얼마큼이나 있는지 소재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 오구라(大倉) 와 오구라(小倉)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에 대해 언급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란 인물이다. 일제강점기 때 남산(南鮮)전기회사 사장으로 있던 오구라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조선미술품들을 긁어모은 악명 높은 수집가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수집품을 오구라 컬렉션이라 부르며, 그가 사망한 뒤 도쿄국립박물관으로 기증 되었다. 이 오구라 컬렉션은 1965년 한일회담 때도 한국측이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목록중 하나였지만 당시는 오구라 개인의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제외되고 말았다.

그런데 오구라보다도 더 한층 탐욕스럽게 조선의 문화재들을 강탈해간 인물이 이천향교 오충석탑을 반출한 장본인인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였다. 오쿠라는 덩치가 큰 석탑뿐만 아니라 경복궁 자선당까지 통째로 뜯어서 가져갔다. 이렇게 탈취해간 문화재들로 일본 최초의 사설박물관까지 차린 인물이 바로 그인데 이상하게도 한일 불법문화재를 이야기할 때 오쿠라 기하치로란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예가 많다. 두 사람의 성이 비슷하게 발음되는

탓에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언론 보도나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조차 혼동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오쿠라와 오구라는 엄연히 다른 인물이지만, 두 사람 모두 식민지 통치세력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문화재 수탈에 남다른 수완과 열의를 보여준 장본인이란 공통점이 있다. 일본어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성을 정확하게 발음하자면 오오쿠라(大倉)와 오구라(小倉)가 되어 약간의 차이가 난다.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한일합방 이전인 1904년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처음에는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었다. 1911년에 대구전기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팔도 전역으로 전기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조선의 전기왕'이란 소리를 들었다. 그는 해방직후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남북도 일대의 문화재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다. 지방경찰서장을 비롯한 권력층의 비호아래 유물의 밀반출이 얼마든지 가능하였고, 전기회사 지방출장소와 자신이 소유한 탄광회사의 광부들을 도굴에 앞장세우기도 했다고 한다. 전쟁패망과 함께 중요문화재들을 밀항선에 가득 채워 일본으로 빼돌린 오구라는 1964년에 사망했고, 1981년 오구라컬렉션보존회가 1천점이 넘는 소유유물을 도굴국립박물관으로 기증하였다.

오쿠라 기하치로는 동경에서 총포상을 경영하다가 1876년 부산항 개항과 함께 일찌감치 조선으로 건너왔으며, 조선에서의 첫 사업을 부산에서 잡화상으로 시작했다. 오쿠라는 은행업, 무역업, 토목건설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면서, 특히 이토 통감이나 테라우치 총독 같은 막강한 권력층을 등에 업고 조선의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일본 오대재벌의 하나로 부상한 인물이다.

오쿠라는 돈벌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 이용한 문화재 수탈에도 수완을 보였다. 식민지 지배권력의 비호아래 토목공사를 빌미로 조선의 궁궐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의 문화재 수탈행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일제는 조선 황실을 상징하는 경복궁부터 헐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철거작업을 오쿠라 토목회사가 맡



▲ 동경 슈요칸 정원에 있는 이천향교 오충석탑
(사진제공 - 유광렬 해강도지미술관장)

아서 했다. 1914년까지 경복궁 전체 7,225칸의 건물중 약 4,000칸이 철거되어 절반 이상이 없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궁중유물들이 그의 수중으로 넘어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경복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키라는 수많은 전각들 중에서도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했던 자선당을 통째로 뜯어다가 동경 아카사카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실어 날랐다. 대가람이라 불리울 정도로 크고 호화스러웠던 저택 안에 자선당을 복원하고 1916년 9월 조선관이란 이름으로 준공식을 가졌는데, 테라우치 총독이 직접 참석하여 친분을 과시할 정도였다. 오키라는 수 십년 동안 약탈해간 문화재들을 자신의 저택 일부를 개조하여 진열하고 1917년부터 오키라슈코칸(大倉集古館)이란 이름으로 일반에게 공개했다. 개관 당시 슈코칸의 소장유물은 미술품 3,692점, 서적 1만 5,600권으로 모두 2만여 점에 가까운 엄청난 양이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유물들 대부분이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불타버리고 겨우 3,000여 점만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하며, 자선당 건물 역시 이때 불타 없어졌다.

오키라가 자선당 건물을 통째로 옮겨 짓고는 이를 더욱 돋보이도록 한다는 구실로 조선의 잘 생긴 석탑에 눈독을 들였다. 처음에 그는 평양 정류장 옆에 있는 팔각칠층석탑을 욕심내서 하세가와 총독 앞으로 이 탑을 양도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서슬퍼런 총독부 고위관리들도 이목이 두려웠던 탓에 오키라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미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져서 남의 이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천향교 오층석탑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친 비운의 탑이 1918년 10월 마침내 현해탄을 건너게 되지만, 향교석탑의 상세한 이전경위에 대해서는 『설봉문화』에 발표한 필자의 글⁵⁾을 참고하기 바란다.

슈코칸이 관동대지진으로 불타버리기 전 그 안에 진열 또는 보관중이었던 우리 문화재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슈코칸은 1927년에 다시 재건되어 현재까지도 박물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지진을 피해 살아남은 나머지 유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 재일 한국문화재 반환사례

1951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제1차 한일회담 때부터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불법 유출된 문화재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청구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는 <한일간 재산, 청구권 협정요강>을 제출했는데, 8개 항목으로 된 이 요강의 첫 번째가 ‘한국에서 반출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그 외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 지은을 반환할 것’이었다.⁶⁾ 그러나 제1차 한일회담은 재한 일본인 재산처리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결렬되고, 양국간 최종협상이 타결되기 까지 7차례의 본회담과 14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5) 이인수, <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이천지역> 『설봉문화』 제30호, 2003, 46~57쪽

6) 조부근 <한일협정의 한계와 과제>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모임』 자료집, 13쪽



▲ 슈코칸에 있는 한국 문화재들 (사진제공 - 유광렬 해강도자미술관장)

문화재 반환협상에 있어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있는 문화재들은 대부분이 약탈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반해 일본측은 약탈이 아니고 정당하게 가져온 것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 독도문제나 종군 위안부 문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 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1965년 제7차 한일회담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타결되면서 이 해 6월22일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도자기·고고자료·석조미술품·장신구류 176건 434점, 서적 163부 852건, 체신자료 20건을 비롯한 1427점의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되돌아 왔다. 그런데 당초 우리 측이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들은 서적 212종, 미술품 및 골동품 837점 등 모두 4,479점이어서 실제로 돌려받은 것은 삼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고, 반환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당시 공화당 정부가 회담타결로 얻어지는 경제원조에만 급급해서, 문화재 반환문제를 포함한 다른 의제들을 성급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이후 한일간 문제제기에 큰 걸림돌이 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일본 쇼비대학교의 하야시 교수는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포럼〉에서 한일회담 결과로 얻어진 당시 문화재 인도협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⁷⁾ 먼저 한일협정

7) 하야시 요코, 〈일본내 한국 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위의 책, 48~49쪽

체결에 따라 문화재 반환문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 상호간 전후처리문제가 외교상으로는 모두 정리된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며, 이로써 우리 정부는 정식 외교루트를 통해 재차 반환요구를 할 수 없도록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결과가 되고 말았다. 반환절차에서도 '인도' 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환' 이지만 일본 측은 '증여' 로 해석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마찰의 소지를 남겼다.

둘째 개인소유의 문화재들이 처음부터 반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의 3원칙으로 ①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돌려준다, 단 반환이 아니라 기부한다. ②사유재산은 인도할 수 없다. ③문화재를 인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법률적 의무에 의한 것은 아니다를 내세웠다. 따라서 당시 반환문화재 속에는 사유 및 국립대학 소유의 문화재는 모두 제외되었으며, 일본의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 휴전선 이북에서 가져온 것들도 제외되었다. 협정 당시 일본은 일본국민이 사적으로 소유한 한국문화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한국에 기증하도록 계속 권장하기로 했으나,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한일협정으로 양 국간 청구 및 보상은 해결된 셈이 되고 말아 정부당국간 협상에 따른 문화재 반환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예외인 경우가 딱 두 차례 있었는데, 1991년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왕비의 복식유물 227점이 기증형식으로 반환되어 고국으로 돌아왔고, 또 하나는 최근의 일로 2005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던 복관대첩비가 민간의 환수노력과 정부의 교섭에 의해 되돌아온 일이었다.

정부와는 달리 민간차원에서의 문화재 반환 움직임은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며, 대부분 일본의 양식 있는 개인 소장가들이 우리나라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 소장품을 기증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최근에 와서 문화재 반환활동이 민간운동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지난 해 마스크를 통해 주목을 끈 조선왕조실록 환수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1914년 당시 오대산 사고에 보관중이던 조선왕조실록이 테라우치 총독에 의해 도쿄대학으로 무단 반출되었다. 반출량이 자그마치 150점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이 소중한 기록유산들이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중 다행스럽게도 불길을 면했던 실록 일부가 아직도 도쿄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게된 불교계가 실록 환수운동에 나섰다. 불교계가 이 운동의 전면에 나선 이유는 조선 선조때 오대산 사고가 설치된 이래, 월정사 주지가 '실록수호총섭' 으로 대대로 사고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 왔던 때문이었다.⁸⁾

2006년 3월 3일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이하 환수위)가 발족되어 이날 출범식을 갖고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일본총리 앞으로 된 반환요청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환수위는 3월15일과 4월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표단이 도쿄대를 직접 방문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재일동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본정부와 도쿄대를 상대로한 민사

8) 해문스님, <조선왕조실록 환수과정을 통해서 본 민간차원의 불법문화재 반환협상의 과제 및 대응 방안> 위의 책, 79~90쪽

소송까지 미리 대비했다.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한 <조선왕조실록 되찾기 국회의원모임>도 결성되었다. 처음 도쿄대는 재산처리규정이 없어서 규정이 만들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이었다. 그러나 5월31일 3차 회담에서 예상치 못했던 결말을 맞게 되었다. 도쿄대측이 조선왕조실록 잔여본 47책을 서울대로 기증키로 했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잘못하면 국가간 소송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법문화재 보관사실에 대해, 큰 부담을 안게 된 도쿄대측이 고심 끝에 내어놓은 교묘한 해결방안이었다.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세종옛돌박물관은 지난 2001년 일본 미야기현에 사는 한 개인수집가와 교섭을 통해 문인석과 무인석을 비롯한 석조유물 70점을 환수받아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역시 일본의 개인 소장가와 의 마음을 연 대화와 교섭과정을 통해 추사의 유묵과 관련자료들을 기증받은 과천문화원의 경우도 눈길을 끈다. 2006년 과천시로 기증된 수천 점이나 되는 기증유물 가운데는 추사관련자료 뿐만 아니라, 중국 청대의 귀중한 문헌과 일본 근대사 관련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천시가 이천향교 오충석탑의 반환운동을 준비함에 있어, 각각 경우는 다르지만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의 활동이나 세종옛돌박물관, 과천문화원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재 반환운동에 따른 문제점

제일 불법문화재를 보는 한일 두 나라의 시각은 정부나 국민이 모두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일본에 반입된 문화재는 모두 불법이 아닌 정당한 경위로 일본에 소장된 것'이라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억지스럽기 짝이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쪽은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하는데 상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잡아떼는 격이다.

유네스코는 1970년에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제정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가입한 이 국제협약에, 일본은 30년도 더 지난 2003년 12월에 가서야 가입하였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겉으로는 아닌 체해도 어딘가 뒤통지 못한 속내를 드러낸 셈인데, 30년이나 협약 가입을 미루었던 이유 중에는 제일 한국문화재 문제도 관련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런데 국제협약 가입 이후로도 일본 정부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한국에 대한 문화재 반환문제는 징병, 징용 같은 강제노동이나 위안부, 영토문제 등과 마찬가지로 한일협정 체결과 함께 외교적으로 해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려깊지 못했던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기분 좋은 핑계거리를 선물로 얻게

9) 하야시 요코, <일본 내 한국문화재 반환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위의 책, 59쪽

된 반면, 우리 정부는 정식 외교루트를 통한 반환요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한편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문화재 문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 소장가와 학자 등 소수를 제외하면, 일본 국내에 엄청난 양의 한국문화재가 존재하고, 그것들 중 상당수가 약탈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번 〈한일 불법문화재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하야시 교수조차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불과 2,3년 전 한국인 교수에게서 ‘일본이 조선의 미술품들을 약탈해 갔다’는 말을 듣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놀라움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다.

일본에는 30만 점이 넘는 한국문화재가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소장자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한국문화재 뿐만 아닌 문화재의 90%가 개인 수중에 있고, 개인 소장자들은 대부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 소유의 문화재가 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야시 교수는 미술품 공개로 인해 불이익이 더 많은 일본의 세제를 비롯한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손꼽았다. 또 일본인 특유의 관습을 이유의 하나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일본에는 ‘눈때 손때’를 싫어하는 관습이 있어서 옛날부터 귀중한 물건이 많은 사람의 눈길에 닿거나 손때를 타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귀중한 것일수록 감추어 두고 공개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¹⁰⁾

하야시 교수는 양국 국민의 의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이 낮고, 또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결여 때문에 다른 한일 역사문제와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¹¹⁾고 분석했다. 하야시 교수의 말처럼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정서는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라면 무조건 일본이 부당하게 반출, 또는 약탈해 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문화재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근년에 와서 일본에서 한국인에 의한 한국문화재 도난(절도)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그 대부분이 한국으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마다 어차피 불법으로 약탈해간 것을 되찾아 왔으니 나쁘게 없다는 정서가 지배했고, 불법을 용인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일본에 알려지면서,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소장자와 연구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¹²⁾ 일단 도난당하고 나면 찾을 길이 없으니 일본의 소장자들이 소장품의 공개를 더욱 기피하게 되고, 갈수록 뽕뽕 숨어버려 한국문화재에 대한 소재파악조차 어렵게 되고 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 하야시요코, 위의 책 54~56쪽

11) 하야시 요코, 위의 책 43쪽

12) 정우택, 위의 책 126쪽

❖ 맺는말

이천향교 오충석탑은 지금 도쿄(東京都 港区) 오키라호텔 곁에 있는 오키라슈코칸 정원 한 구석에 놓여 있으며, 근처에는 평양에서 가져간 팔각오충석탑도 함께 있다. 오키라호텔은 제국호텔, 뉴오타니호텔과 더불어 소위 어삼가(御三家)라고 해서 일본 최고의 일류호텔로 손꼽는 곳이다. 이천향교 오충석탑을 비롯한 슈코칸의 유물들에 관한 소유는 재단법인 오키라문화재단(大倉文化財團)이 갖고 있다.

향교석탑을 되찾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짚어보았듯, 부도덕한 일본 정부나 무기력하기만한 우리 정부 쪽은 기대할 것이 그다지 없어 보인다. 불법문화재 정책포럼에서도 정부 쪽은 가능하면 나서지 않는 것이 좋고 민간 차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양 국 국민들 사이에는 지금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의식의 차이가 장애물로 가로놓여 있다. 서로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벌어진 간격을 좁히고, 진정한 상호이해를 통한 신뢰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향교석탑의 반환운동에는 무엇보다도 어떤 자세로 임하는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당당하게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다. 상대가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고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쪽이 가만히 있으면 향교석탑은 슈코칸의 소유물이지만, 강탈당한 것이니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도쿄 한구석에 있다고 해도 우리 것이 된다. 우리 세대가 반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고, 또 다음 세대가 계승한다는 신념으로 반환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천향교 오충석탑을 되찾아 오는 일은 민족의 정기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몰라도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그리고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강탈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당하게 반환요청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역이나 불법문화재 환수문제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역사문화대학 지상강좌 ③

古代의 利川 地域

서영일

(단국대학교 교수)



▲ 삼국시대 후반 역사의 현장인 설봉산성 (서벽)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천은 남천, 황무 등으로 불렸다. 「利川」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하였던 것은 고려 초였다.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그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당시 이천의 범위는 오늘날 이천시와는 달랐다. 오늘날 이천시의 모습이 형성된 것은 1914년경이다. 조선시대 이천의 영역에 陰竹縣 소속이었던 장

호원, 설성, 울면 등이 편입되어 이루어졌다. 사실 이천과 음죽은 삼국시대 이래 각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 때 두 지역이 합쳐지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대 이천시 일대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이천시의 영역이 대상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고대의 이천과 음죽 일대도 포함하여 서술하려 한다. 시간적으로는 삼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I. 三韓時代

삼한시대는 일반적으로 기원 전 2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를 말하는데 고고학에서는 삼국시대에 선행하는 시대라는 의미를 가진 原三國時代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이천은 馬韓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한에 소속된 54國은 대체로 임진강 이남에서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소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대체로 마한 소국 중 怒藍國, 咨離牟盧國 등이 현재의 이천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고학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삼한 소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적은 철기시대 유적이다. 그렇지만 이천지역 조사 결과 직접적으로 철기시대의 유적으로 판명된 것이 드물다. 철기시대의 유적이 없는 것인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주변 지역에서도 철기시대 유적과 유물의 출토 양상이나 농경에 적합한 이천의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로서는 철기시대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청동기나 그 이후 역사 유적의 분포를 통하여 대략이나마 이 시대의 역사를 추론해 볼 수는 있다.

현재까지 이천 지역에서 청동기 유적이 발견된 지역은 신둔면 수하리(지석묘), 신둔면 도암1리(지석묘), 신둔면 도암2리(지석묘), 신둔면 남정리(지석묘), 신둔면(소정리), 백사면 현방리(지석묘), 백사면 우곡리(마제석기), 부발읍 신원리(지석묘), 장호원읍 오남리(무문토기 산포지), 대월면 군량리(무문토기 취락지), 설성면 행죽리(마제석기), 울면 오성리, 효양산성(무문토기), 망이산성(무문토기) 등지였다. 대체로 하천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앞으로 조사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분포상의 특징

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사 유적이 강이나 하천과 관련되어 있고, 이천시 일대 역사 유적도 하천 유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록 유적은 발견되지 않으나 삼한시대에도 하천유역 주변이 생활의 중심지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삼국지』동이전에 의하면 마한의 소국은 數千戶에서 數萬戶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상이하다. 최근까지 연구에 의하면 각 소국은 다수의 취락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國邑, 邑落, 小別邑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국읍과 소별읍 등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사회구성이나 조직원리 면에서는 일반 읍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읍락은 단순한 자연촌락과는 구별되며 5백호 이상 1천호 미만의 다수의 취락이 결합된 집단으로 상정되고 있다. 각종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서 배타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읍락공동체는 국읍을 중심으로 단일한 지배자를 세우고 대외적으로 고유한 국명을 가진 통합된 정치체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천 지역의 마한 소국들도 이와 비슷한 규모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읍을 중심으로 다수의 읍락공동체가 결합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위치가 어디였고 어느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론하기 어렵다. 다만 이천시와 인근지역의 지형 조건과 앞의 청동기유적의 분포상태를 고려하여 대강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대 하천을 기준으로 하면 북하천과 청미천 유역을 중심으로 각각 소국이 위치가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천 지역의 청동기 유적의 분포 상태를 고려하면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다. 이천 지역 청동기 유적은 대체로 3개의 지역군으로 구분되고 있다. 즉 신둔면과 백사면 일대(신둔천 유역), 부발읍과 대월면 일대(북하천 유역), 장호원·설성·율면 일대(청미천 유역) 등이다. 신둔천 유역은 북하천 유역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크게는 두 개의 지역군으로 나누어지는 셈이다. 삼국시대에 남천현이 북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음죽현이 청미천 유역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것으로도 방증된다. 따라서 이천에 소국이 하나가 있었던지 둘이 있었던지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북하천과 청미천 유역을 중심으로 각각 한 개 이상 소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천 지역 소국의 중심지 國邑은 어디일까?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곳이 孝養山城이다. 효양산성에서는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부터 역사시대에 걸치는 유물이 모두 출토되었다. 아직 발굴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출토된 무문토기도 소량이어서 유적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청동기시대 취락이 존재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을 조망하기에 유리한 위치이고 나중에 삼국시대에 군사 및 정치의 중심지였던 점으로 고려하면 소국시절부터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지』동이전에는 진·변한에 성곽이 존재했다는 것이 기록되었고 이는 고고학적인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¹⁸⁾ 대체로 평야지대에 솟아있는 구릉성 산지에 형성된 취락 주변을 환호나 목책을 두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방어시설은 패총 유적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점차 발전되어 삼한시대에는 토성에 목책을 시설하는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삼국지』동이전에 마한에는 성곽이 없다고 기록된 것이다.¹⁹⁾ 하지만 같은 기록에 「관가에서 성을 쌓았다」란 표현이 있어서 믿을 것이 못된다. 최근 풍납토성이 3세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경기도 일대의 성곽조사에서 3세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과 고지성 취락지가 발견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점차 논리적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진한이나 변한 같은 사회 보다 규모가 큰 마한 사회에 성곽 같은 방어시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성곽과 같은 방어시설은 축조에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고, 『삼국지』동이전에는 성곽 축조의 주도자를 「官家」라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아 국읍이나 일부 중심적인 읍락에 국한되어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천 지역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가지는 적격지로 효양산성이 주목된다. 청동기 문화 단계 이후 고지성 취락이 형성되어 삼한시대에 토성이 축조되고 백제시대까지 이천지역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효양산성이 이천 지역 소국의 중심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II. 백제 · 고구려 시대

『三國史記』百濟本紀에 의하면 백제는 溫祖王代 경기도 일대를 석권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초기기록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백제는 늦어도 古爾王이나 近肖古王代에는 경기도 지역을 확보했다고 보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천지역 백제의 진출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3세기 후반 내지 4세기 초반을 넘지 않을 것 같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이 시기를 중심으로 이천 지역 곳곳에서 백제 토기 산포지

18)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양산패총, 성산패총, 김해패총, 운천패총은 대개가 낮은 아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평탄한 경작지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산 양산패총에서는 목책을 설치한 흔적이 남아있고, 웅천패총, 성산패총, 김해패총에서도 성책의 시설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19) 『삼국지』위지 30 동이전 30 한조 「산과 바다에 울어져 살았으며 성곽이 없다」.



2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1999. 및 『설성산성 2·3차 발굴조사보고서』, 2004.

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최근 조사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은 백제에 의하여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²⁰⁾ 또한 효양산성에서도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모두 3세기 후반 이후의 백제토기가 출토되고 있어서 백제의 이천 진출과 관계가 깊은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백제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은 많다. 설봉산성과 설성산성 출토 백제토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세기부터 5세기 후반까지 이천 지역은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이천 지역에 진출하여 설봉산성, 설성산성, 효양산성 등 성곽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읍락을 통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산성을 이른바 거점산성이라고 부른다. 지방의 정치와 군사 중심지였던 산성을 말한다. 소수의 군대를 파견하여 무력으로 지방민을 지배하기 위한 조치였다. 거점성을 중심으로 행정과 조세 수취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천 지역은 광주산맥의 고갯길을 통하여 백제의 수도인 한성과 연결되고 동시에 내륙교통의 요지인 충주나 청주와도 연결되는 요충지였다. 이천 지역은 백제가 충청북도 일대로 진출하고 이를 장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요충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교통로를 따라서 종대로 산성을 배치하고 인근 지역을 통합하는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4세기말 고구려는 적극적으로 백제 지역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광개토왕대에는 이천 동쪽 원주 일대에 고구려가 진출하였다. 백제는 설봉산성, 설성산성 등 이천 지역의 산성을 중심으로 고구려 방어전략을 수립하였다. 설성산성에서는 이당시에 사용하였던 다량의 저장용 토기 및 군사용 주거시설이 출토되어 당시의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이제 이천은 고구려군을 막는 전방의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이후 장수왕대에 이르면 고구려군은 충주 지역에 진출하여 백제의 동북쪽을 포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구려군이 이천 지역에 진출하게 된 것은 한성이 함락된 475년 이후이다.

『삼국사기』지리지에 의하면 고구려시대 이천은 「南川」혹은 「南買」로 불려졌다. 「買」는 「물(水)」을 뜻하는 것이므로 「남천」이나 「남매」나 모두 같은 의미라 하겠다. 즉 남천이나 남매는 모두 하천의 이름에서부터 유래한 지명이다. 앞에서 살펴본 듯이 당시 사람들이 하천 주변에 형성된 농경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따라서 하천의 이름이 나중에는 그 주변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현재 이천시에 있는 하천 중에서 고구려 때 남천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북하천일 것이다. 고려 태조가 남진하면서 북하천을 도강하기 어려웠고 그 때문에 이천이란 지명이 생겨났다는²¹⁾ 고사를 보더라도 북하천이 이천 지역의 상징적인 하

21) 『高麗史』 권 56 志 10 地理 1 利川郡條.

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천이란 지명은 북하천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남천이란 지명은 고구려의 지명일까? 이것이 고구려의 지명이라면 백제시대의 지명은 없었을까?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충청도 일대 심지어 경상북도 지역에도 고구려 지명부터 시작되고 있다. 백제의 중심지였던 경기도 일대에 백제 지명은 전하지 않는다. 이는 백제 시대에 지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추정할 단서가 없다. 그런데 백제는 이미 3세기에서 5세기 후반까지 이천 지역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이천 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을 고구려 보다 먼저 사용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남천」이 고구려의 지명으로 기록되었으나 백제의 지명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백제나 고구려는 비슷한 종족과 문화적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천」이나 「남매」란 고구려계 지명을 백제가 먼저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문헌에서 보아 고구려가 이천지역에 진출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고구려가 충주에 國原城을 설치하여 남진기지로 삼았던 것은 中原高句麗碑를 통해서도 확인 되었다.²²⁾ 그 배후에 있는 이천이 고구려의 수중에 있었던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고고학 자료는 한강 이남에서 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천 지역에서는 발굴 조사 결과 고구려와 관련하여 볼 수 있는 유물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지방지배가 차이가 있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고구려의 경우 이천 지역에 지방관이나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토착세력에게 공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의 전략적 요충지는 현재의 서울지역과 충주 지역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천 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약화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와 같은 지배거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 이상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고고학 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단국대학교 사학회, 『史學志』 13집-중원고구려비 특집호, 1979.

Ⅲ. 신라시대

신라가 이천지역에 진출하였던 것은 6세기 중반이다. 553년경 한강 하류에 6군을 공취할 때 이천 지역도 신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이천 지역은 신라의 한강 유역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그 예가 바로 南川停의 설치이다. 『삼국사기』職官志 下 六停조에 의하면 南川停은 진흥왕 29(568)년 新州停을 궤하고 설치하였으며 眞平王 26(604)년에 다시 南川停을 궤하고 漢山停을 설치하였다. 568년은 신라가 황초령과 마운령까지 진출하여 국토를 최대로 확장한 시기이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산주를 폐치하고 南川州를 설치하면서 후퇴하였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州(停)가 변동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신라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이지만 고구려와의 접경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 고구려의 對新羅 政策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당시 고구려는 한강 유역 상실의 원인이었던 정쟁이 점차 수습되어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아울러 대외 환경도 안정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한강 이북은 고구려나 신라 어느 쪽도 완점하지 못하는 군사 접경지역이 되었다. 고구려의 정국이 안정되면서 점차 南邊에 대한 방어책이 강화되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정세 변화와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를 살펴보면 이 당시 신라에게는 고구려보다 백제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대외변수로 작용하였다. 백제는 554년 管山城(충북 옥천) 전투에서 신라에 패하였지만, 여전히 신라에 위협적인 세력이었다. 眞智王 2년 백제가 신라 西邊州郡을 침입하여 一善(경북 선산) 북쪽에서 격파하고 內里西城을 축조하였고 동왕 4년에는 백제가 熊峴城(보은 근처)을 축조하여 신라의 내리서성, 마지현, 관산성 등으로 통하는 통로를 막았다. 6세기 후반에 백제는 관산성 전투부터 금강 상류 옥천·보은 일대를 집중 공략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라가 백제방어를 염두에 두고 북한산주를 폐하여 남천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신라가 현실적으로 한강 이북 지역을 지배하기 어려운 사정도 주목된다. 568년 북한산주에서 남천주로 州治所가 이동되는 것과 동시에 동해안 방면에서도 比列忽州에서 達忽州(강원도 고성)로 州治所가 이동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신라의 북경이 재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복과 통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에서는 통치에 대한 자신감보다 왕도정치를 표방하면서 화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토착인들을 친신라 세력으로 포섭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보

여주는 것이다.

신주(북한산주)에서도 비열홀주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산주에서 남천주로 후퇴하였던 것은 한강 이북지역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지역의 산성 발굴조사 결과, 이천 설봉산성이나 설성산성에서는 대체로 6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유물부터 출토되고 있다. 신라가 이 산성들을 수축한 시기도 역시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양주 양주산성(大母山城), 포천 半月山城, 파주 七重城 등 한강 이북의 산성에서는 대체로 7세기 전반경의 유물부터 출토되고 있다. 성벽에 있어서도 신라 산성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 기단보축(외벽기단부보축)도 이들에서만 보이고 있다. 모두 유사한 양식으로 7세기로 편년되고 있다. 신라가 경기도 남부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 6세기 후반이었지만, 한강 이북 지역은 7세기 전반에 가서야 군사 지배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南川州 혹은 남천정은 568년부터 604년까지 존속했었다. 남천정은 백제의 추풍령 방면 진출을 억제하고 경기도 남부와 충청북도 일대에 대한 군사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설치되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6세기 중반에 신라의 정복지는 급속도로 확대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이 지역을 지배체제 속으로 편입시키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먼저 군사 지배가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점차 외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강 유역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배후도시가 국원소경이다. 국원소경과 이천은 서로 인접하여 水陸으로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천 지역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목표였던 서해로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었다. 신라는 남천정을 통하여 그 외곽에 해당되는 현재의 서울 일대를 점차 군사 지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시켜 나갔던 것이다.

IV. 통일신라시대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전국을 九州五小京으로 나누었다. 州 아래에는 각 郡縣이 소속되어 있었다. 명실상부한 州郡制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州는 小京과 郡縣을 총괄하는 광역주였으나 동시에 州治를 뜻하기도 하였다. 郡도 縣을 통솔하는 광역군이었으나 君治를 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州, 小京, 郡, 縣은 각각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 설성산성

이천은 경덕왕 16년 지명 개정에 의하여 黃武縣으로 바뀌기 전까지 南川縣이었다. 황무현은 漢州에 소속된 領縣이었다. 여기의 漢州는 광역주로서의 한주가 아니라 州治와 직할지 및 영현으로 구성된 협의의 의미이다. 한주는 고구려의 한산군으로 고려시대의 광주로 변천되었다. 그 영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고려나 조선시대 광주목의 영역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한주의 직할 영역은 동시대의 다른 군이나 현의 영역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의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 광주군 일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황무현과 구성현을 영현으로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이천과 용인 일대도 한주 관할에 들어갔다.

황무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현으로 생각되나 한주의 영현이었기 때문에 주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일반적인 현은 군의 관리하에 있었고 군은 다시 주의 관리하에 있었다. 황무현의 경우 주의 영현이었기 때문에 주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었던 것이 된다. 통일신라시대에 지방관은 州에는 都督이, 郡에는 太守가, 縣에는 縣令이 파견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현은 도독-태수-현령의 체제속에 있지만 황무현의 경우는 한주의 직할 현에 해당됨으로 도독-현령의 체제가 형성되었다.

주의 직할 현의 경우 일반 현과 어떠한 정치·군사적 차이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황무현은 다른 현과는 상당히 다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황무현에는 여전히 남천정이 설치되어 있었다. 『三國史記』 권 40 志 9

職官 下 十停條에는 통일신라시대의 十停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남천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중대 이후의 남천정은 중고기와 같은 중앙군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한주 소속의 지방군단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중고기의 남천정과 그 위상의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주 도독의 무력적 기반으로 중요시되었다. 통일 이전의 주치소는 정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폐치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통일 후 九州五小京制가 확립되면서 주의 군사적 기능은 축소되고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州治와 停의 주둔지도 분리되었다. 표면적으로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군사와 행정이 분리된 것이다. 즉 행정 중심지로서 주치와 군사주둔지로서의 정의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주의 장관인 도독은 여전히 주의 행정권과 병마권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즉 지방관이면서 동시에 군단장이었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중고기 주의 장관인 군주의 성격은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중고기의 군관구적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주와 정의 여전히 밀접한 관련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남천정은 여전히 한주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독의 행정지배력을 관철시키는 무력적 기반이었다.

그런데 한산주에는 남천정 외에 骨乃斤停(여주)도 있었다. 여주와 이천은 평야와 낮은 구릉지대로 연결되어 있고 거리도 가깝다. 이 같이 좁은 지역에 두개의 정을 나란히 배치한 것은 한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추상적으로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산주에는 남한강 수로와 계림령로, 죽령로, 추풍령로 등 신라의 간선 도로가 서로 얹혀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남천정은 추풍령로와 계림령로(통일신라의 監池通) 등과 관련하여 설치된 것이다. 중고기 이후 간선로에 대한 중심방어책이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골내근정은 중대에 처음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는 남한강수로와 관련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강 수로는 죽령로와 계림령로의 사이에 위치하며 나란히 진행하고 있다. 국원소경과 한산주를 연결하는 동맥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 중 여주 지역은 육로로 계림령로와 죽령로를 연결하고 복원소경과 국원소경으로 연결되는 한강 수로의 결절지에 해당된다. 661년 고구려군의 술천성 공격은 바로 북한산성 공격에 앞서서 남한강 수로를 차단하여 북한산성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골내근정은 서울과 충주 사이에 남한강변을 따라서 축조되었던 산성을 축으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남천정은 중고기 이후 이천 지역을 지나는 신라 간선로 변에 위치한 산성에 설치되어 이를 중심으로 남북 교통로를 방어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이섭대천(利涉大川)의 옛날이야기

— 백사면 편 —

이충섭 시인



▲육괴정

육괴정(六槐亭)

백사면의 전설 (9)

“조광조가 죽었소.”

“무엇이라고? 조광조를 죽여? 아, 이제 이 나라도 망했구나.”

콩트로 엮은 이현의 전설

선비들이 모여서 수군거렸다.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으니, 다 버리고 고향으로 가야겠군.”

“그렇군. 고향에 가서 후학들이나 기르고 좋은 세월을 다시 만나야겠군.”

중종의 신임을 얻은 도학 정치 개혁과 조광조가 죽은 뒤, 그 세력 아래 작은 벼슬을 하고 있었거나 그냥 선비로 있던 신진 사림과 유생들은 모여 통곡을 하고, 뿔뿔이 헤어졌다.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한양 안국동에서 살다가 이천 땅 이호(梨湖) 윗터에 자리를 잡고 은거하였다.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 중종 반정을 일으킨 반정공신 핵심 세력들이 그 반대 세력으로 도학 정치로 개혁하고자 하는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세력을 물리쳤다. 이로 인하여 조광조를 비롯하여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죽음을 당했고, 연루된 학자들은 귀양을 보내거나 파직하였다.

이때에 남당(南堂) 엄용순(嚴用順) 처사도 역시 낙향하여, 남천(南川) 원적산(圓寂山) 아래 고향 도니피 마을에 은거하였다.

남당은 손수 팔을 걷고 집을 지었다.

“선비님이 손수 무엇을 하시려구요?”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여기다가 초당을 짓는 거라네.”

남당은 원적산 아래 남쪽 도니피 마을에 초당을 한 채 세웠다. 이 초당은 기둥 네 개와 석가래 몇 개를 걸쳐고, 짚으로 지붕을 만들어 평상에 그들이 지게 한 정자였다. 그는 이 초당에 나와 거문고를 켜고 시를 읊으며 세상일을 잊고 지냈다. ‘이 앞에 연못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하고 일꾼들을 불러 연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었다.

이때 남당은 이웃마을에 모재 선생이 낙향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 학덕과 인품을 알고 모시려 하였다.

“저는 도피에 사는 엄용순이라 하옵니다. 선생님, 우리 초당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 초당을 짓고 사시는 엄 처사시군요.”

“그러하옵니다. 오시어서 저에게 높이신 학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별말씀 다 하시오. 아, 가고 말고요.”

모재와 남당이 서로 어울려 때론 학문을 전수하고 때론 시 화답으로 놀며, 한때

세상일을 잊고, 좋은 때를 기다렸다.

“그지개 마을에 규정 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만나지요.”

남당은 그지개의 규정(葵亭) 강은(姜蘊)을 합석시켰다. 남당은 이 두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이들은 또 어울려 세상을 잊고 즐겁게 살았다. 세 사람이 초당에 다시 모인 어느 날이었다.

“이 근방에 모실 만한 처사가 또 은거해 있다 하옵니다.”

“그래요? 엄 처사가 잘 아시나요?”

“예, 그리고 강처사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니까?”

“송말에 퇴휴(退休) 임내신(任鼎臣) 처사, 둔지 하남촌에 계산(溪山) 오경(吳慶) 처사, 섬말에 두문(斗文) 성담령(成聃齡) 처사, 세 분 처사가 계시다고 근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나도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 처사들도 풍류를 아시겠지요?”

“풍류야 어울리면 되고 학식은 높으시다 하옵니다.”

“아, 그러면 모시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제가 이 집 주인이니 가서 모시지요.”

남당이 퇴휴, 계산, 두문 세 처사를 합석시켰다. 그리고 여섯 처사가 모여 학문을 논하고, 시회를 하고, 거문고를 키며 노래도 하며 다정하게 친교를 맺었다. 남당이 파 놓은 연못에서는 연꽃이 피고, 물 속에는 물고기도 놀았다.

“이렇게 여섯 벼이 함께 하니 이제 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몸은 떨어지더라도 그 뜻은 떨어지지 않겠지요.”

“아, 그러면 처사들께서 다음에 오실 때 느티나무 한 그루씩만 들고 오시죠?”

“그렇군. 나무를 상징으로 심어 우리의 우정을 두고 두고 오래도록 보전하도록 합시다.”

그 후로 여섯 처사가 느티나무 각각 한 그루씩 마을 앞 초당 연못가에 심었다. 여섯 그루 느티나무를 심어 놓고 남당은 생각했다.

‘이 정자의 이름을 지어야겠군. 여섯 벼이 우의 좋게 지내고 있으니, 옮겨니 느티나무를 각각 한 그루씩 심었겠다. 음, 육괴정(六槐亭)이라 해야겠군.’

콩트로 엮은 이현의 전설

육괴정 앞 연못가에는 느티나무 여섯 그루가 무럭무럭 자랐다. 김안국은 이곳과 그의 마을에서 20여 년 후학을 키우다가 다시 천거되어 벼슬이 예조판서, 병조판서에까지 이르렀다.

육괴(六槐)의 괴(槐)는 회 나무 괴 자이고, 다른 뜻으로는 삼공(三公)의 자리를 뜻한다.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말한다. 이 육괴정은 처음엔 초당으로 지어 졌다가, 세월이 가면서 보수하고 개축하고 개조하여, 지금은 팔작(八作) 지붕에 한식 기와를 얹은 본당과 이를 둘러싼 담장과 외삼문(外三門)으로 되어 있어 정자(亭子)가 아닌 사당(祠堂) 형태로 되어 있다.

〈도립리의 전설〉

김안국의 여우 요술

백사면의 전설 (10)

김씨네는 모재와 사재 형제가 있었다. 모재는 형이고, 사재는 동생이었다. 이 두 형제가 어려서 어느 동네에 놀러 갔었다.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산신제를 지낸다고 근처 앞산에서 떠들썩하였다. 형제는 산신제를 지내는 곳으로 갔다.

“제사 음식을 정갈하게 하세.”

“직접 산신령이 오셔서 잡숫는 것이니 정갈해야 노하시지 않을 걸세.”

어린 두 형제는 뒤에 숨어서 제사 지내는 것을 보았다.

‘산신령이 직접 와서 먹는다고? 산신령이나 귀신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며 형제는 계속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산신령이 아니라 여우가 오더니 음식을 먹는 것이 두 형제의 눈에 보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에헴 에헴 크악.”

형이 큰 기침을 하니까 음식을 먹던 여우가 도망을 갔다. 두 형제는 여우를 잡으러 쫓아갔더니 여우는 도망을 가다가 무슨 책을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형은 먼저 뛰어가서 여우가 버리고 간 그 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읽어보았다. 책 속엔 요술 부리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아이구야, 재미있다.”

“무슨 책인데?”

“여우가 요술 부리는 책이다.”

“하하하, 여우가 요술 부리는 책?”

모재가 요술책을 다 읽고, 동생 사재에게 주었다.

“너도 읽어 봐라. 어서 읽고 나와 함께 밖에 나가서 요술을 부리며 놀자.”

모재가 밖으로 나가 책에서 읽은 요술 부리는 장난을 하며 놀았다. 장난을 하며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아직도 동생 사재가 그 책을 끔끔대며 읽고 있었다.

“사재야, 그까짓 걸 아직도 읽고 있느냐?”

“형은 재주가 있으니 금방 알 수 있지만 나는 잘 모르겠는걸...”

사재가 대꾸를 하고 있는데 모재가 그 책을 탁 빼앗아 던져 버렸다.

사재가 그 바람에 책을 더 읽지 못했다. 그리곤 그 길로 형제는 근동 장승이 있는 마을로 함께 놀러 나갔다. 시커먼 장승이 동네에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다. 5일마다 장이 서는 동네였다. 마침 그날이 장날이었다. 천막을 치고 전을 벌려 놓고 물건을 팔며 소리치는 사람과 물건을 사러 와서 장거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섞여 구경 거리가 될 만한 일이 많았다.

“호미가 얼마냐고 묻지 않아요?”

“아 글썄, 6전이라니까”

“저 쪽에서는 5전인데 왜 여기선 6전이야?!”

“뭐요? 비싸면 싼 데 가서 사라니까!”

“이 사람이 손님한테 왜 시비야.”

싸움이 벌어져 이 소리가 사방 장거리에 퍼졌다. 모재, 사재 형제에게도 들렸다.

“우리 싸우는데 가 보자.”

“그래. 가서 싸움 구경하자.”

형제가 와 보니 흥정을 하다가 벌어진 싸움이였다. 처음엔 말싸움을 하더니 조금 있더니 먹살을 서로 잡고 몸싸움을 했다. 일행인 사람이 가운데 서서 힘을 쓰며 말

콩트로 엮은 이현의 전설

려 보지만 싸우는 두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싸웠다. 아무리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 값도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파는 놈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이냐?”

“네가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더 많아? 대 봐라. 이놈아.”

“이놈이 이젠 욕까지 하네!”

“네놈이 먼저 이놈아 했잖어?”

“이놈! 배워먹지도 못한 장돌뱅이야!”

사재가 싸우는 모습을 재미나게 보고 있었다. 모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어디로 사라졌다. 사재가 형을 찾았다.

‘형이 어딜 갔을까’ 두리번거리고 찾는데 장거리 입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조금 있더니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비켜서며 그 사이로 시커먼 물체가 걸어오는 것이었다. 이것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 동구에 서있던 장승이 걸어오고 있었다.

“어, 장승이 걸어온다!”

사람들이 비켜주니까 장승은 성큼 성큼 싸우는 데로 걸어왔다. 그리고 싸우는 두 사람을 이리 저리 밀쳐 떼어놓았다.

“아이구머니나!”

싸우던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말았다. 싸움이 끝났다. 싸움을 말린 장승이 다시 장거리를 걸어서 동구로 사라졌다.

사재는 다시 형을 찾았다. 그때서야 형 모재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형이 요술 부린 거지? 그 여우 요술책을 읽고…”

“그렇다. 너는 그래 그 책을 읽고도 뭘 보았냐?”

“형이 뺏어 버렸잖어?”

“책을 얼른 얼른 읽어야지, 그렇게 느리게 읽고 어떻게 하나?”

형은 책을 읽고 바로 그것을 씹먹을 정도로 빨리 습득했다. 이 형인 모재가 동생 사재(思齋)보다 몇 배나 재주가 많다고 근동에 소문이 났다. 이토록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부풀어서 전해지는 모재(慕齋)가 바로 후세에 유명한 학자인 김안국(金安國)이다.

〈송말리의 전설〉

용트림하는 반용송(蟠龍松)

백사면의 전설(11)

옛날 신라 말엽이었다.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소나무 다섯 그루를 배낭에 넣어 메고 길을 떠났다.

“큰스님, 그 애송 나무들을 어찌 하시렵니까?”

수행하는 작은 스님이 물었다.

“지금부터 백두대간을 따라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명당 자리에 이 소나무를 심을 터이니 어찌서 명당인가 생각하여 보거라.”

“예, 큰스님.”

그 유명한 ‘도선비기(道詵秘記)’를 남긴 도선 스님이 제자인 작은 스님에게 실제 풍수 지리를 익히는 실습을 시키기 위하여, 백두산에서부터 반도의 척추를 밟고 내려오며 명당 자리를 찾아 가르쳐 주었다. 이 두 스님은 백두산에서 영흥(永興)으로 내려왔다. 영흥에 도착하자 도선은 배낭에서 애 소나무를 하나 뽑아 어느 산 양지 바른 곳에 심었다.

“큰스님, 여기는 아무래도 길지(吉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죽고 나서 몇 백년이 지나면 이 영흥에서, 먼 훗날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니라.”

“그러하옵니까?”

“두고두고 공부하거라.”

두 스님은 또 남으로 내려왔다. 강원도에 이르러 강릉 어느 곳에 소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리고 서쪽으로 커다란 산을 넘어, 한강이 맑게 출렁출렁 흐르는 한양 땅으로 왔다. 도선국사는 또 배낭에서 애 소나무를 한 그루를 꺼내어 한강변과 북한산 사이에 심었다.

“큰스님, 여기는 소승이 보아도 길지입니다.”

“그렇다. 여기는 대궐도 들어설만한 곳이니 많은 인물이 태어날 것이니라.”

두 스님은 그 길로 기름진 땅, 농사 짓기에 알맞은 기후를 따라 광주를 넘어 이천 땅으로 왔다. 이천 땅은 기후도 좋고 전답이 기름져 논마다 누런 자채벼가 가득가득

콩트로 엮은 이현의 전설

익어 가고 있었다. 두 스님은 호암산, 원적산이 둘러선 아래 지금의 송말리인 옛 백토(栢土) 말곡(末谷) 마을 근처에 도착했다.

마을을 지나려는데, 아이가 한 명 놀고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고?”

“그러하옵니다 스님.”

“허허, 영특하게 생겼구나.”

작은 스님이 아이와 일문일답을 하는 동안에 큰스님이 애송 나무를 배낭에서 꺼냈다. 도선국사가 애송 나무를 심으려는 이 근방 마을엔 신씨네가 정착하여 큰 가문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큰스님, 이곳은 그렇게 빼어난 길지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기후도 좋고 땅도 좋아 중간 길지는 될 것이니라.”

아이는 스님이 소나무를 심는 모습을 눈여겨 보았다. 소나무를 다 심고 두 스님은 남쪽으로 내려갔다. 아이는 자라는 소나무를 보살폈다. 소나무는 아이와 함께 자랐다. 아이도 소나무와 함께 자랐다.

소나무는 자라면서 점점 용의 모습이 되어 갔다.

“이상하다. 영락없는 용이로구나.”

아이는 어른이 되고, 동네 아이들도 어른이 되어 아들을 낳고, 잘 길렀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용의 모습으로 동네를 지키고 서 있는 이 소나무를 보면서 또 그 후손을 기르고 가르쳤다.

소나무가 커다랗게 자라면서 점점 신비함을 들어 낼 때였다. 어느 땐가 어떤 사람이 소나무의 껍질이 효험이 있음을 짐작하고 소나무의 두툼한 껍질을 벗겨 갔다. 그런데 이 반응송의 껍질을 벗겨 간 사람이 피부에 창이 났다고 소문이 났다. 그리고 큰 난리가 날 때마다 이 소나무 기둥에 줄이 그어졌다.

근처 마을 신씨네가 제물을 차려 해마다 반응송에 정성껏 치성을 드렸다. 소나무는 장성하고 늙어 가면서 위로 크지 않고 용의 몸처럼 나직히 땅에 서리듯이 서 있다. 그래서 이 ‘반용송(蟠龍松)’을 일만년 이상 장수할 용이라 하여 ‘만용송(萬龍松)’이라고도 불렀다.

이현 땅에 소나무를 심은 후 두 스님은 다시 남하하여 충청도 땅으로 가서 계룡산에 도착하였다. 계룡산 삼불봉(三佛峯) 동남편에 이르러 도선 스님은 마지막 애송 나무 묘목을 배낭에서 꺼내 심었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신도안이었다.

이렇게 도선국사가 소나무를 심은 곳은 전국의 명당, 길지였다. 영흥에선 이성계가 태어났고, 강릉에선 많은 인물이 태어났고, 한양은 조선의 도읍지가 되었으며 세종, 영조와 같은 훌륭한 왕이 태어났다. 계룡산은 조선때 궁터까지 들어섰던 명당이었고, '정감록(鄭鑑錄)'이라는 책 내용의 발상지가 되었다.

도선국사가 소나무를 다섯 군데 심은 길지 중 이천, 지금의 백사면 송말리에 심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다. 소나무가 용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반용송(蟠龍松)이라 이름을 붙이고, 동네에서 신성하게 여겼다.

반용송이 지키는 이 마을 신씨네에선 옛날부터 문무 급제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다섯 그루의 소나무를 도선국사가 명당 길지에 심었다는 내용을 '옥룡자비결(玉龍子秘訣)'이란 옛 책 속에 기록해 두었다고 전한다.

〈송말리의 전설〉

날개 달린 아기

백사면의 전설 (12)

범 모양의 바위가 서 있는 산이라 호암산(虎岩山)이라 한다. 이 산 어디엔가 옛날 호암산 아래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태어난 아기를 보니 보통 아기와는 다르게 기골이 장대하였다. 울음소리도 방안이 우렁 우렁 울리도록 우렁찼다. 부리부리한 눈에 사지가 큼직 큼직하고 단단하였다.

“이렇게 큰 아이를 어떻게 낳았지?”

구경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호암산 정기를 받아서 태어난 아기군.”

“호암산엔 용의 정기, 용마의 정기, 호랑이의 정기, 장군의 정기가 있다던데.”

부러워하는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다. 아기는 백

콩트로 엮은 이현의 전설

일이 지나면서부터 높은 호암산을 쉽게 올라 다니며 놀았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장정 나무꾼들도 오르지 못하는, 아슬하게 놓인 높은 바위 위로도 쉽게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하며 노는 것이었다. 호암산 그 높은 바위를 지금 사람들은 용마바위라 부른다.

집안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도 모두 보통 아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 이제 백일이 갓 지난 아기가 밖으로 나가 놀아?”

“아, 동네에 장수가 태어났네.”

“그럼, 보통 아기가 아냐.”

신기하게 생각하는 동네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기 어머니는 놀러 나간 아기를 찾는 데 걱정이 많았다.

“아기가 또 어딜 갔나? 아이구, 속상해라.”

아기를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높은 산에까지 가서 노는 아기를 찾을 순 없었다. 아기 어머니가 처음에는 다른 집 갓난아기처럼 생각하며 방안에 뉘어 놓고 바깥일을 나갔다가 들어와 보면 가끔 가끔 아기가 없는 것이었다. 아기를 찾으러 나간 동안 아기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온 아기를 본 어머니가 야단을 쳤다.

“아가야, 너는 이제 백일을 겨우 넘긴 아기다. 멀리 나가지 말고 방 안에서 놀아라.”

“으음, 엄마 젖 주어.”

“그래, 젖 먹고 방 안에서 놀아라! 아가야.”

젖을 먹는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떠나 또 놀기 시작했다. 그런데 방바닥에서 놀던 아기가 날아서 햇대에도 매달리고, 선반에도 올라왔고, 농 위에도 올라갔다. 이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이구, 저 애가 날아다니네. 날개가 달렸나?”

아기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다. 날아다니는 아기를 보면서 차츰차츰 겁이 났다. 또 이렇게 높은 데를 올라가 놀다간 떨어져 다칠까 근심 걱정을 했다.

‘아기가 날아다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야 하겠구나.’

그런데 다음 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났다.

“동네에 날아다니는 아기가 있다.”

“어영 그래? 날개를 단 아이는 커서 역적이 된다는데....”

“그래, 나라에서 그 집안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거야.”

분명히 자기네 아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아기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들은 후 더욱 더 걱정이 들었다.

‘아기를 살려야 할 터인데... 아니 집안이 망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생각한 아기 어머니는 아기의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그것이 있으면 잘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하루는 또 아기가 높은 호암산에 올라가서 놀다가 돌아왔다. 아기도 피곤한지 곤하게 잠이 들었다. 아기 어머니는 잘 드는 가위와 단도 칼을 준비하고 잠든 아기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정말 날개가 달렸네. 큰일 났구나. 양쪽에 다 있네.”

아기 어머니는 얼른 가위와 칼을 들어 안타깝지만 아기의 날개를 잘라 버렸다.

“으앙 으아앙! 나 죽는다. 엄마야!”

어머니가 날개를 잘라 버린 아기는 차차로 기운이 빠지더니 결국은 죽고 말았다. 아기가 죽는 것을 보자 아기 어머니는 슬픔이 복받쳐 통곡하였다.

“아이구 아이구, 내가 아기를 죽였구나. 장수가 될 아기를 죽였구나.”

아기 어머니가 통곡하는데 이때 호암산에서도 큰 소리가 났다. 아기가 올라가 놀던 그 용마바위에서 천지가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용마바위에서 소리가 나며 용마가 나왔다. 용마바위에서 뛰쳐나온 용마가 슬피 울며 산을 헤매었다. 용마는 아기의 친구였다. 아기는 그 동안 호암산에 올라가 이 용마와 놀았던 것이었다.

용마는 죽은 친구 아기를 생각하며 울다가 아기가 살던 마을로 내려왔다. 용마의 울음이 그치더니 풍덩 소리를 내며 용마가 사라졌다. 마을 옆에는 늪이 있었다. 용마는 그날 밤새도록 외치며 울다가 이 늪에 빠져 죽었던 것이었다.

날개 달린 아기가 올라가 놀던 호암산 바위를 용마바위라 하고, 용마바위에서 용마가 나와 빠져 죽은 늪은 용늪이라 부르게 되었다.

〈우곡리의 전설〉

호랑이로 변신한 송 신령

백사면의 전설 (13)

옛날에 송씨라는 젊은 선비가 현방리 땅에 살았었다. 그는 책 읽기에 몰두하여 밥을 먹는 것조차 잊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부인과 합방하는 일도 없이 밤새도록 독서를 하였다. 세수도 하지 않고 흰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 더러운 몰골로 지냈다.

그래도 부인은 이런 남편을 존경하였다. 그러나 하늘을 보아야 별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니 부인은 속이 상했다.

“여보, 도대체 그놈의 책이 무어길래 그것만 끼고 살아요?”

“참, 여자가 별 소리를 다하고 있네.”

“글쎄, 당신은 책을 끼고 사는 재미라도 있지, 나는 남들처럼 아기라도 있어야 아기를 기르는 재미에 살지 않겠어요?”

“허허허, 조금만 더 참으시오.”

송씨는 부인이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몇 마디 대꾸를 하곤 계속 책을 읽었다.

하루는 부인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여 몰래 지켜보기로 하였다. 밤잠을 자지 않고 정말 책을 읽는지, 다른 무엇을 하는지 몰래 감시하고 있는데 계속 책만 읽는 것이었다. 부인은 졸음을 참아가며 계속 살펴보았다. 그런데 남편이 자정쯤 사랑방 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

부인은 멀찍이 뒤를 따랐다. 남편은 뒷산인 원적산(圓寂山)으로 올라갔다. 오솔길을 걸어가더니 컴컴한 술밭 속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무서움을 잊고 어느 굵은 소나무 기둥 뒤에서 숨어 살폈다. 남편이 왜 이런 캄캄한 밤에 술밭 속으로 왔는지 궁금한 노릇이었다.

부인은 어둠 속을 헤치고 뚫어져라 남편의 거동을 더 살폈다. 남편은 두리번거리다가 어느 바위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남편이 다시 나오기를 부인은 기다렸다. 그러나 오랫동안 남편은 나오질 않았다. 혹시 대변을 보느라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참고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바위틈에서 나오질 않아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바위틈은 틈이 아니라 그 안은 커다란 바위굴이었다. 갑자기 부인이 움찔 놀라서 또 커다란 눈을 하고 살폈다.

“어머나, 호랑이가 나오네!”

바위굴에서는 남편이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부인은 무서워 쏜 살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이 집에 와서 보니 남편은 어느새 앞질러 먼저 사랑방에 들어와 앉아 독서를 하는 것이었다.

그후 계속해서 며칠을 감시했으나 여전히 남편은 자정이 되면 술숯 속 바위굴로 들어가고, 그 굴에선 남편이 아닌 호랑이가 나오는 것이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가 읽는 책이 어떤 책인가 몰래 보았으나 무식한 부인의 눈에는, 검은 것은 글자이고 흰 것은 종이일 뿐이었다.

‘이놈의 책이 무엇이길래, 이놈의 책만을 끼고 밖으로 나가니, 내 이놈의 책을 불살라 버리겠다.’

부인은 생각하고, 그날 밤중에 남편이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랑방에 들어가 남편이 읽는 책을 들고 나왔다. 집 뒤걸음으로 책을 가지고 들어가 부싯돌을 쳐 불을 만들어 붙였다. 한지로 만들어진 책은 순식간에 홀홀 타버렸다.

‘오늘밤엔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 잘 수 있겠지. 그러면 나도 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인은 책을 다 태우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전처럼 안방에서 등잔불을 켜 놓고 바느질을 했다.

한편 송씨는 굴속에 들어가 책에서 읽고 공부한 대로 실기 연습을 하였다. 그것은 변술(變術)하는 도술(道術) 연습이었다. 한참을 땀땀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자, 사람의 몸이 호랑이 몸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남편은 호랑이로 변한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도술을 부리는 자신이 대견하고 기뻐했다.

“이제, 호랑이로 변하는 변술은 문제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야지.”

남편은 호랑이로 변하는 도술은 익혔지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도술은 아직 익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사랑방으로 들

콩트로 엮은 이현의 전설

어와 도술이 적힌 책을 찾았다. 그런데 책이 없었다. 부인이 태워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책을 찾아도 그 도술이 담긴 책이 없었다.

부인은 남편이 집에 온 인기척을 알고 안방 문을 슬며시 열고 나와 뚫어진 창호지 구멍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위 굴 입구에서 보았던 호랑이가 책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야, 큰일 났구나. 책을 읽어야 다시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고 호랑이 몸으로 다닐수도 없으니 산으로 들어가 언제고 스스로 깨달아 사람이 되어 돌아와야겠구나.”

호랑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부인은 놀라고, 후회하고, 걱정이 생겨 안방으로 얼른 들어왔다.

‘이거 큰일 났구나! 남편이 그 책을 읽고 호랑이가 되었구나. 다시 책을 읽어야 사람이 되는 모양이니, 내가 참을성이 없어 큰 잘못을 했구나.’

부인은 눈물을 주루룩 흘리며 탄식을 했다.

남편 송씨는 아무리 찾아도 부인이 태워 버린 책은 다시 나타날 수가 없었다. 호랑이가 된 송씨는 영영 올 수도 없었다. 울다간 호랑이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질 것을 생각한 송씨는 울지도 못하고 그 밤으로 아내에게 인사도 못하고 집을 떠났다. 부인은 남편이 다시 사람으로 둔갑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과부로 늙어 죽었다.

이렇게 호랑이로 변신한 송씨는 원적산(圓寂山)으로 들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호랑이 신령이 되었다. 이 신령을 ‘송 신령’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방리의 전설〉

가짜 도사 만석중

백사면의 전설 (14)

만석중이는 작은 절을 지어 놓고 그 안에서 도술을 부려 재산을 모으면서 스님이

로 행세하였다. 그의 절은 작아도 부자 절이었다. 그래서 그 중을 만석중이라고 일컬었다. 신기하게 도술을 부리는 중이 있는 절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신도들이 많이 이 절에 다녔다.

법당에 들어온 신도들은 공중에 뜬 스님을 신기하게 올려다보며 기도했다.

“스님, 그저 그저 우리 아들이 무사 태평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신도들이 합장하며 절을 올리고, 시주로 많은 돈이나, 곡식을 부처님 앞에 내놓는 모습을 만석중이 공중에서 내려다보면서 염불을 하고 목탁소리를 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똑또그루 똑또그루.”

신도들은 부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방안 공중에 떠서 불경과 목탁을 치는 만석중이를 우러러 보며 신기하게 생각하고 시주를 하고 절을 하며 불공을 올리는 것이었다.

“어, 뒷산 암자엔 스님이 공중에 떠서 염불을 하신다네.”

“아이구,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떠서 앉아 있어?”

“아니, 정말이야 가서 봐.”

아랫마을 사는 사람들 중에선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구경 삼아 절에 가서 법당을 들여다보았다. 신기하게도 스님이 법당 공중에 떠서 염불을 하고 있었다.

“참으로 그 스님 신기하시네.”

“하늘에 계시는 부처님이 따로 없네.”

그 사람들도 신도가 되어 뒷산 절에 시주를 하게 되곤 했다. 그런데 만석중이는 실제 도술을 부려서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장에 아주 성능이 센 자석을 붙여 놓고, 그 아래에 철판을 갖다가 천으로 싸서 방석을 만들어 놓고 불공 드리러 신도들이 올 때면 만석중이 도술가 처럼 차리고 방석에 앉아서 손으로 천장에 붙은 자석을 조정하여 적당히 떠 있도록 했다.

이런 소문이 당시에 유명한 기생 황진이(黃眞伊) 귀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덕망이 높은 서화담(徐花潭)에게도 들렸다. 만석중이가 공중에 뜨는 것은 잡술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을 이들은 짐작하고 있었다. 조선 중종 당시에 이들은 박연폭포(朴淵瀑布)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고 일컫는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기생 황진이는 너무나 서화담을 사모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살겠나이다.”

콩트로 엮은 이현의 전설

“그래,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한 집에서 밥과 빨래를 해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아니 된다. 나는 아직 학문이 부족한 탓에 지금은 여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러시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그럴 것 없다. 내가 언제 깨달을는지 모르니 너는 네 갈 길은 가야한다.”

“스승님, 너무하십니다. 소녀는 죽어도 스승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황진이가 당돌하게 성화를 부리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던 서화담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공중에 뜬 만석중이라는 그 중을 혼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를 혼내 줄 까요? 스승님.”

“공중에 뜬 만석중이를 바닥으로 네가 떨어뜨린다면 그때 생각해 보자.”

서화담이 장난스럽게 숙제를 냈다.

“그리하겠나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황진이는 어렵지 않다는 듯 약속을 다짐했다. 서화담은 헛기침과 함께 장난스럽게 웃었다.

황진이는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만석중이가 있는 절을 찾아갔다. 황진이가 절에 나타나자 주위의 꽃들도 그녀 앞에서는 빛을 잃는 듯 주위를 황홀하게 했다.

만석중이 살펴보니 보지 못했던 어여쁜 여신도 한 사람이 경내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힘, 어힘!”

그는 어여쁜 여신도가 법당에 가까이 올수록 황홀하여 정신이 흔들렸다. 그래서 헛기침으로 자세를 바로하려 애를 썼다.

황진이가 마당을 걸어서 법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떠 있던 만석중이 까딱 정신을 놓으면 떨어질 것 같은 것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황진이는 부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석중 스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피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스님의 신기한 도술을 소문으로 듣고 스님을 사모하게 되어 왔나이다.”

이 소리를 듣자 만석중이는 정신이 황홀해지며 잘 잡고 있던 자석을 조정하는 줄을 그만 놓치고 말았다. 만석중의 몸이 방석과 함께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졌다. 도

승인 채 품을 잡고 있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황진이가 더구나 자기를 사모한다는 바람에 눈속임 수단을 잊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로 또 아랫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다.

“만석중이가 황진이에게 홀렸다는데.”

“아니지. 만석중이는 도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눈속임을 한 것이야.”

신도들은 만석중이가 훌륭한 스님인 줄 믿고 그 절의 신도로 기도를 드리러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만 황진이의 미모에 반한 만석중이의 속임수가 드러나는 바람에 신도들의 발길이 그 절에서 뚝 끊어졌다.

〈송말리 전설〉

중국 문장가들을 쫓아낸 어린 최치원

백사면의 전설 (15)

어머니가 금 돼지에게 끌려갔다가 잉태하여 낳았다는 최치원은 어려서부터 범상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려서도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생각하였다. 어린 최치원이 하루는 느닷없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런 최치원에게 아버지가 애원했다.

“애야, 어린 네가 집을 나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저는 금 돼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 살겠습니다.”

“아니다. 그건 내가 잘 못 알고 한 소리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달래도 어린 최치원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린 최치원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바닷가에 오두막집을 한 채 지어 주고 선생도 구하여 함께 살며 학문을 닦게 하였다. 그리고도 속상하여 최치원이 사는 집을 찾아가 살피곤 했다.

하루는 최치원의 아버지가 그곳을 살피러 긴 쇠 단장을 짊고 갔다. 도착하여 집

콩트로 엮은 이현의 전설

안을 보니 선생만 있고 어린 최치원이 없었다.

“치원이는 어딜 갔습니까?”

“예, 쉬는 시간이 되어서 바닷가 백사장으로 갔을 겁니다.”

그는 치원이를 보려고 바닷가로 갔다. 멀리 모래사장에서 어린 최치원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손가락에선 피가 나고 있었다. 최치원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치원아, 이 쇠 단장으로 쓰거라.”

아버지는 하도 안쓰러워 자기가 쥔 온 쇠 단장을 주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오면서 대견해 했다.

‘음, 어린것이 대견하구나. 큰 인물이 되겠으니 잘 보살펴 주어야지.’

최치원은 바닷가 오두막집에서 선생과 공부하며 지냈다. 그는 어언 일곱 살이 되었다. 선생은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최치원이 백사장으로 나간 뒤 찾으러 갔다.

“어허, 문장을 쓰고 있구나.”

모래 위에 무엇을 쓰고 있는 소년 최치원을 발견하고 더 가까이 갔다.

“어허, 무엇으로 쓰고 있는고?”

“아버지가 주고 간 쇠 단장이옵니다.”

“그 긴 쇠 단장이 다 닳았구나.”

선생은 최치원이 손에 들고 있는 손가락 만한 쇠막대기를 보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최치원이 열심히 공부하던 중 어느 날이었다. 중국에서 문장가 세 사람이 신라 문장가와 문장을 겨뤄 보기 위하여 신라로 건너왔다. 그들은 최치원이 사는 바닷가로 상륙했다. 이들이 신라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백사장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어린 최치원이었다.

“그대는 누구인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최치원이 대견하여 한 사람이 물었다.

“최치원이라 하옵니다.”

“그래 공부는 얼마나 하였는고?”

“아직은 어려서 이제 시작이옵니다.”

그런데 중국 문장가들이 어린 최치원이 보통이 아님을 느끼고 시험해 보려 했다.

“음, 얼마나 공부를 잘 하는가 우리 내기를 한 번 해 보지 않겠는고?”

“아직은 초보이지만 내기에 응하겠나이다. 문장을 띄워 주십시오. 대구(對句)를 올리겠나이다.”

어린 최치원과 이들은 준비를 한 다음 먼저 중국 문장가가 문장을 지어냈다.

“배의 돛대는 달을 꿰었구나.”

중국 문장가가 시구를 내 놓았다.

“물 속의 배는 하늘을 누른다.”

일곱 살 어린 최치원이 망설이지 않고 받았다.

중국 문장가가 생각하니 어린 최치원이 지어낸 문장이 더 오묘하고 아름다웠다.

다음엔 다른 문장가가 한문으로 문장을 내 놓았다.

“수조부함몰(水鳥浮陷沒, 물새는 떴다가 잠긴다.)”

그러자 어린 최치원이 역시 한시로 대구했다.

“산운단복련(山雲斷復連, 산 구름은 끊어졌다가 다시 잇는다.)”

중국 문장가들은 어린 소년의 실력이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

“지금 몇 살인가?”

“일곱 살이옵니다.”

대견해 하고 놀라워하며 이들은 또 질문을 했다.

“신라엔 그대와 같은 문장가가 몇이나 되는고?”

“예, 저는 서열에도 들지 못하는 학동이옵니다.”

대답하고 최치원은 신라의 문장가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주어 댔다. 이를 듣는 중국 문장가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신라에는 문장가들이 많다 하여 겨뤄 보러 왔는데 역시 소문대로군.”

“겨루나 마나 우리가 안 되겠네.”

“그렇군. 돌아가세.”

중국 문장가들은 문장 겨루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은 어른이 되어 중국에서도 이름을 떨친 신라의 대학자가 되었다.

〈이천 민속 자료 보고서 전설〉

어린 최치원이 장가가기

백사면의 전설 (16)

신라 때 '나업'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나업에게 훌륭한 딸이 있다는 소문을 열 살 난 최치원이 들었다.

최치원은 이 처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나업이라는 재상의 집안에 비하면 최치원의 아버지는 지방 고을 군수에 지나지 않았다. 중매로 매파를 보낸다 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최치원은 단독으로 결혼하기 위한 꾀를 실행에 옮겼다.

어린 최치원이 어느 날 나업 재상의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 쳤다.

“거울을 닦으시오! 거울을 닦으시오!”

그때 나업 재상 집 안에서는 딸이 흐린 거울을 보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거울을 닦으라는 소리를 듣고 딸은 종을 시켜 거울을 닦아 오라고 내보냈다. 종에게서 거울을 넘겨받은 최치원이 그만 실수로 거울을 땅에 떨어뜨려 더 망가트리기도 말았다.

“거울 닦는 사람이 거울을 떨어뜨려 더 못 쓰게 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거울이 더 망가졌네!”

재상의 딸이 울상을 지었다. 집안으로 따라 들어온 최치원이 아주 미안해하며 말했다.

“어찌 합니까? 이 거울 값 대신 이 맥의 종이 되겠습니다.”

최치원이 사죄하였다.

그러나 딸은 부드럽고 너그럽게 말했다.

“아니다. 그까짓 거울 하나 버렸다고 남의 집 종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최치원이 종이 되겠노라고 고집을 부렸다. 사랑채에서 나온 나업이란 재상이 이를 보았다.

“허어, 어린놈이 대단하구나. 그래 우리 집에서 화초나 가꾸며 일을 하거라.”

이렇게 해서 최치원이 꿈에도 그리던 소녀의 집에서 꽃밭을 가꾸며 살게 되었다. 그렇게 두어 해가 지났다. 그리고 재주가 뛰어난 그는 기가 막히게 화초를 잘 가꿨다. 나 정승이 최치원의 재주를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최치원이 가꾸는 꽃밭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종들이 칭찬하는 말을 듣고

나업의 딸이 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구경하러 나왔다. 꽃을 본 소녀는 감탄하여 시를 지어 중얼거렸다.

“꽃은 웃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꽃밭에 아무도 없는 줄로 안 소녀가 구경하며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어디서 시로 화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보지 못하겠구나.”

화답하는 소리가 꽃밭을 가꾸는 소년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소녀는 부끄러워 안채로 얼른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간 나업의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 글재주도 대단한 소년이라고 여겨졌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중국에서 신라의 약점을 잡기 위해 단단하게 봉한 옥합(玉盒)을 들린 사신을 보내며 숙제를 냈다. ‘이 옥합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신라와 친교를 하겠소.’

신라의 왕이 이 옥합을 받아 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모아 어전 회의를 했다.

“이 옥합 속에 무엇이 들었을 것 같소?”

“왕이 물었으나 신하들 중 아무도 얼른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 참, 이를 풀지 못하면 나라의 위신이 서질 않는데..., 나 재상이 집에 가지고 가서 숙제를 풀어 오시오.”

이렇게 큰일이 나업 재상에게 떨어졌다. 나 재상이 옥합을 받아 들고 와서 숙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재상이 머리를 식히러 꽃밭에 와서도 고민을 계속 했다.

“재상님,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고 계시옵니까?”

나업 재상은 혹시나 이 재주가 있는 아이가 해답을 알지 않을까 하고 숙제를 말해주었다.

“그래 그 옥합엔 무엇이 들었겠느냐?”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까지 있는 소년 최치원이 넋지시 대답했다.

“알 수 있다고? 안다고? 그럼 어서 말하여라.”

“제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엔 말하지 않겠나이다.”

“그래 소원을 들어 줄 터이니 어서 말하여라.”

“따님과 결혼을 시켜 주시옵소서.”

콩트로 엮은 이천의 전설

이 당돌한 최치원의 청혼을 듣고 나 업 재상은 단번에 노기 충천하였다.

“무엇이라고, 고연 놈 보았나. 여봐라! 이 놈을 끌어다가 당장 가두어라!”

나업의 명을 받고 종들이 최치원을 끌어다가 광에 가두었다. 그런데 숙제를 풀지 못한 나재상은 근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렇게 근심하지 마시고, 치원이에게 숙제를 풀어 달라고 하세요.”

부인이 보다 못해 청했다.

“아, 그 놈이 사위가 되겠다고 하지 않소?”

“보아 하니 고을 원님의 자식이라고 하고, 제주도 비상하고 또 우리 딸을 좋아하여 장가를 들기 위해 집에 들어 왔다 하니 당돌하기는 하나 사위 삼아도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나업은 부인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옳은듯해서 최치원을 사위로 삼기로 했다.

“그래 옥합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그 안엔 병아리가 들었습니다. 가지고 올 땐 알이 들었는데, 가지고 오는 도중에 날짜가 많이 지나 부화가 되어 병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업이 이 말을 궁궐에 들어가 왕에게 보고했다. 신라왕은 최치원과 함께 중국 사신에게 다시 옥함을 중국 천자에게 확인시키러 보냈다.

“그래 그 안엔 무엇이 들었는고?”

천자가 물었다.

“그 안엔 병아리가 들었나이다.”

“무엇이라고? 틀렸다. 그 안엔 알이 들었다. 너는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처형할 것이니라.”

“아니옵니다. 알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었습니다. 열어 보시옵소서.”

황제가 옥함을 열어 확인해 보니 정말 알이 아니라 병아리가 ‘삐약 삐약’ 하고 나왔다. 옥함 안에 알을 넣어 보낸 것을 알고 또 병아리로 부화한 것까지 계산하여 숙제를 풀 신라 소년 최치원은 큰 상을 받았고 최치원의 나라 신라와 중국은 더욱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신라 때 소년 최치원의 비상한 재주로 나라의 위신을 지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천 민속 자료 보고서 전설〉

연구보고서

이천문화원 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

박 연 하

(이천평생학습연구소 소장, 교육학 박사)

1. 서론

1980년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많은 제안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 많은 행정단체들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지역문화에서 찾고자 하면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제4조에서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지역 문화원의 문화서비스 대상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책과 지방문화원의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이 지역문화 육성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지방의 지역사회는 비록 과거보다 많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는 있지만 확실한 지리적 구분을 통해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동일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공 서비스의 지원이 되어야 하고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프로그램 역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학습기회의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시설로서 일본의 '공민관', 독일이나 덴마크의 '국민대학', 태국의 '사회교육센터' 등이 지역별로 설치 운영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전담시설은 없고, 관련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지방문화원이 있다.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어있지 않고, 단순히 고장의 전통문화를 조사, 발굴, 선양하는 등의 일을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의 전문적 지도력과 사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시설설비의 확충 등이 요구되고 국가와 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공간이자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천문화원 문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천문화원이 평생교육기능과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지방문화원과 교육기능

사회교육에 관한 법률인 '사회교육법'에서 사회교육시설로 도서관과 박물관이 동법 제 3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지방문화원은 사회교육 시설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동법 업무처리지침 제 5조(1985)에 지방문화원이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함께 사회교육 실습 인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회교육 전문가나 학자들은 명시에 관계없이 지방문화원을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과 같이 사회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준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능면에서 사회교육의 성격을 지닌 기구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지방문화원이 하고 있는 일을 규정한 지방문화원진흥법(1994, 제1조)에서는 지방문화원에서 실시해야할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8조). 이에 향토주민의 문화생활에 있어 필요하면 무엇이고 찾아서 알리는 일(홍보), 깨우치는 일(개발, 사회교육), 보살피는 일(협동, 관련사업)이 지방문화원이 할 일로 되고, 특히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언어, 풍습, 신념, 사상, 관습 등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이루어지는 물질적 장치나 그 기술을 비롯한 일련의 요소들을 주민들의 의식 수준과 관련지어 내면화하고 가치관화 될 수 있도록 알리고, 깨우치고, 보살피는 일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이 알리고, 깨우치고, 보살피고 하는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계층별 대상에 따라 요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내용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 활동 중의 하나가 사회·문화교육인 것이다.

사회교육이라는 말은 나라마다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이나 영국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 독일의 민중교육(Volksbildung), 프랑스의 공중교육(Education publique)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교육과 그 의미와 내용이 비슷하다. 사회교육은 성인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과 직업인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도덕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적인 성취를 도와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보다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옥승현, 2005).

지방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은 남녀, 노소, 학생, 비학생을 불문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 면에서는 사회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방문화원은 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 주고,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소개해주는 한편 여러 종류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조직 운영 하는 공공시설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사회·문화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이천문화원 교육프로그램 실태와 요구분석

(1) 연구의 개관

이천문화원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의 실태와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도 이천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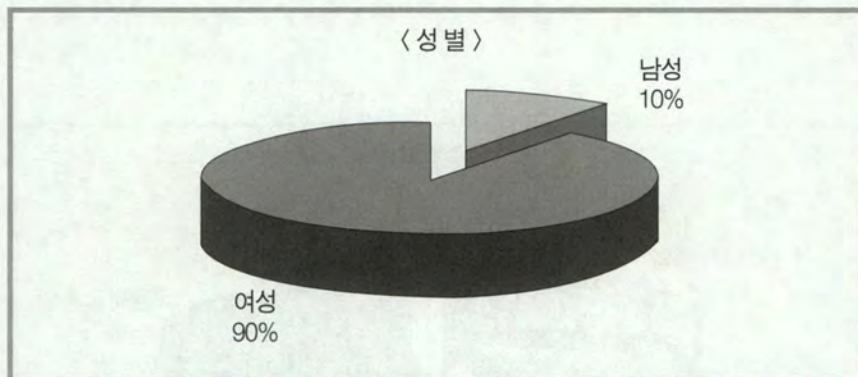
설문조사의 도구인 설문지는 이천문화원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항목과 그 만족도, 문화학교에 대한 인지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10월에 문화원에서 이루어졌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통계패키지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고, 분석방법은 기술적 통계기법과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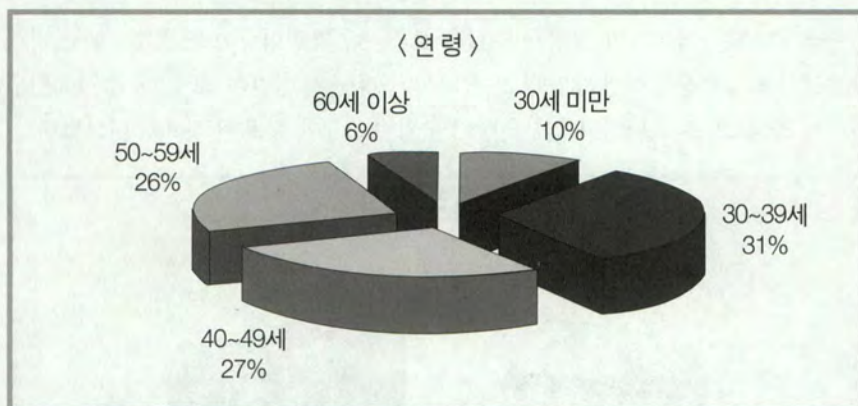
① 교육 참여자의 일반적 성격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육 참여자의 성별구성을 보면 전체 124명 중 여성이 111명으로 89.5%, 남성이 13명 10.5%로 여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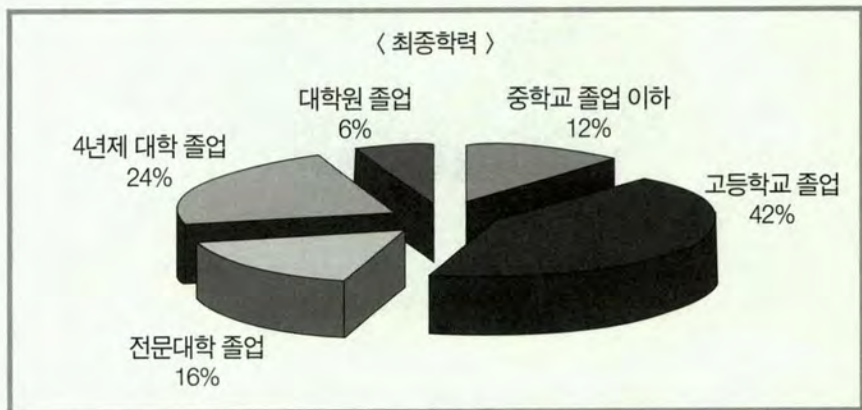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

연구대상 교육 참여자의 연령구성을 보면 30~39세가 39명 31.7%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33명 26.8%, 50~59세 32명 26.0%로 30대에서 50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30세 미만은 12명 9.8%, 60세 이상은 7명 5.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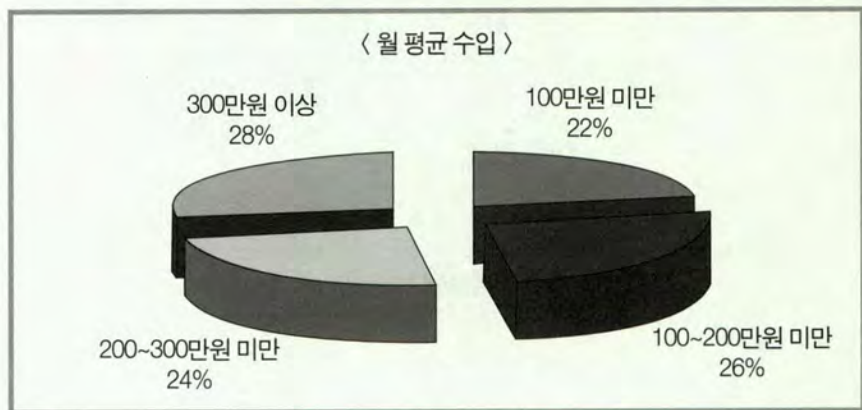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대상의 연령구성

연구대상 교육 참여자들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51명 42.9%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졸업자가 28명 23.5%, 전문대학졸업자가 19명 16.0%의 순을 보였다. 이외에 중학교 졸업이하가 14명 11.8%, 대학원 졸업이 7명 5.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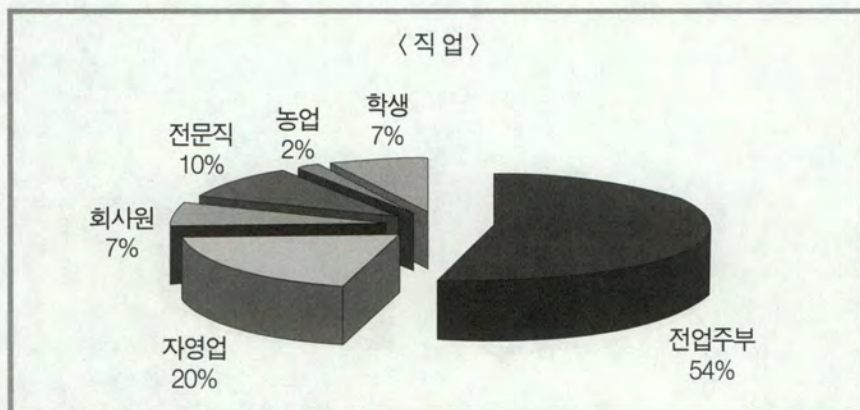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대상의 학력분포

연구대상 교육참여자의 월평균 수입을 보면, 300만원 이상이 25명 27.8%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이 23명 25.6%, 200~300만원 미만이 22명 24.4%, 100만원 미만이 20명 22.2%로 나타나 연구대상의 수입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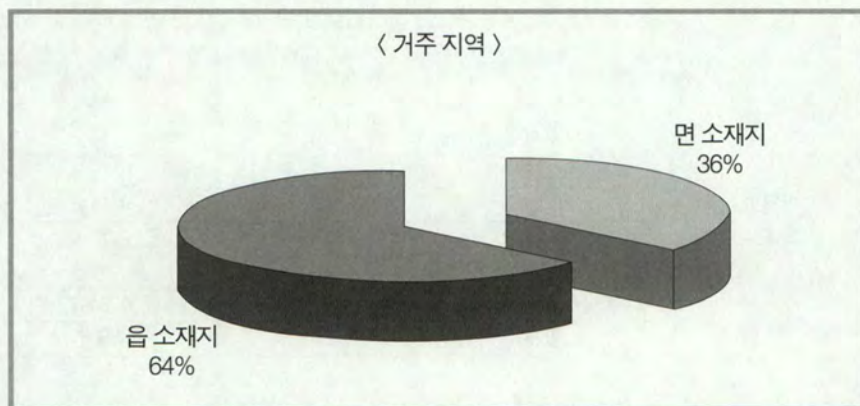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대상의 소득수준

연구대상 교육 참여자의 직업을 보면, 전업주부가 66명 54.1%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이 24명 19.7%, 전문직이 12명 9.8%, 회사원과 학생이 각각 9명 7.4%, 농업이 2명 1.6%의 순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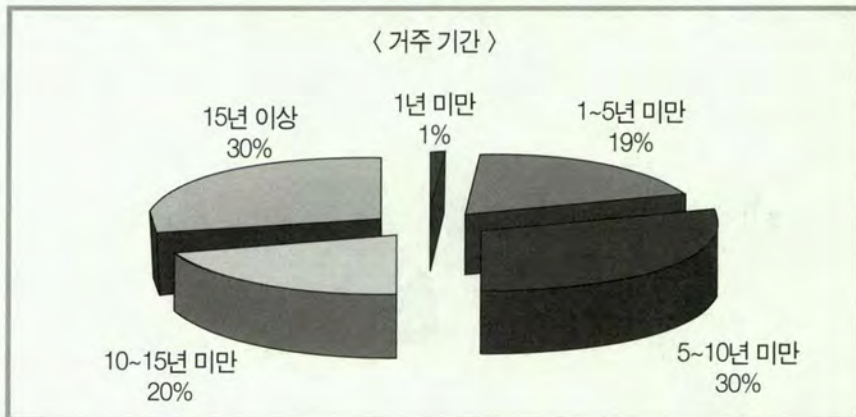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대상의 직업분포

연구대상 교육 참여자의 거주지역을 보면, 읍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65명 63.7%로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37명 36.3%보다 많게 나타났다.



[그림 6] 연구대상의 거주지 분포

연구대상의 지역 내 거주기간을 보면, 5~10년 미만이 38명 30.6%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이 37명 29.8%, 10~15년 미만이 25명 20.2%, 1~5년 미만이 23명 18.5%의 순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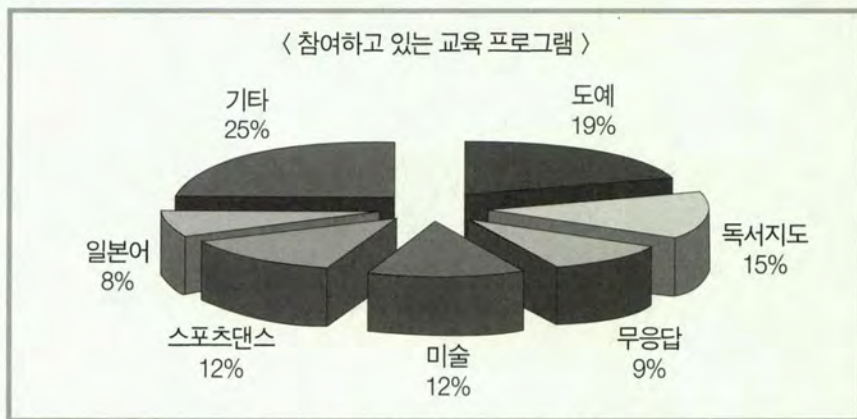
[그림 7] 연구대상의 거주지역 분포

② 교육 참여프로그램의 특성

연구대상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도예가 25명 19.4%로 가장 많았고, 독서지도가 19명 14.7%, 스포츠댄스 16명 12.4%, 미술 15명 11.6%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 〉 연구대상의 참여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참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도예	25	19.4
	독서지도	19	14.7
	무응답	12	9.3
	미술	15	11.6
	스포츠댄스	16	12.4
	일본어	10	7.8
	기타	32	24.8
	합계	1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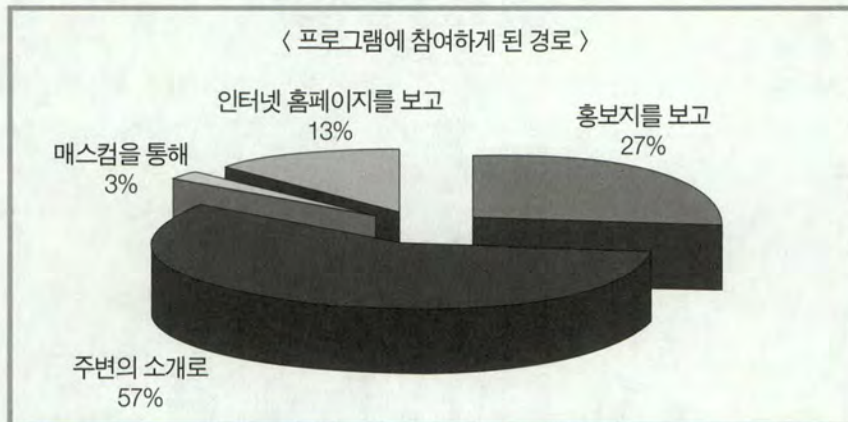


[그림 8] 연구대상의 참여프로그램 분포

연구대상 참여자들의 참여경로를 보면, 주변의 소개로 참여한 연구대상이 70명 58.3%로 가장 많았고, 홍보지를 보고 참여한 주민이 32명 26.7%, 인터넷홈페이지를 보고 참여한 주민이 15명 12.5%의 순을 보였다.

〈표 2〉 연구대상의 참여경로

		빈도	퍼센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	홍보지를 보고	32	26.7
	주변의 소개로	70	58.3
	매스컴을 통해	3	2.5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15	12.5
	합계	1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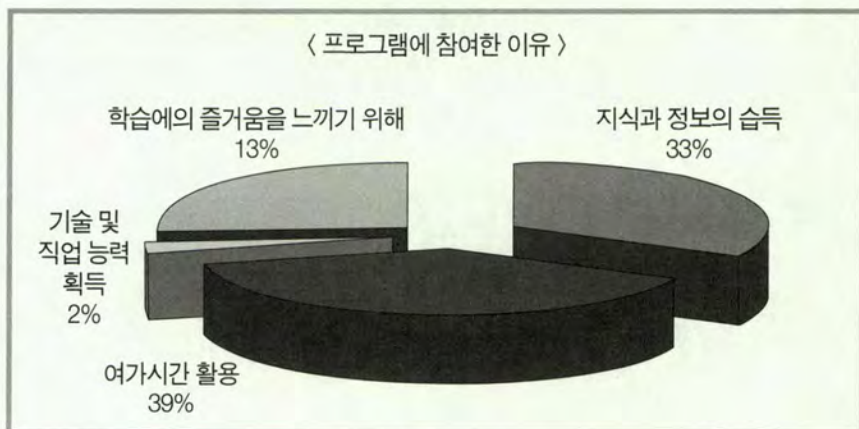


[그림 9] 교육프로그램 참여경로

연구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참여이유를 보면 여가시간 활용이 50명 38.8%로 가장 많았고, 지식과 정보습득이 42명 32.6%, 학습의 즐거움을 위해가 34명 26.3%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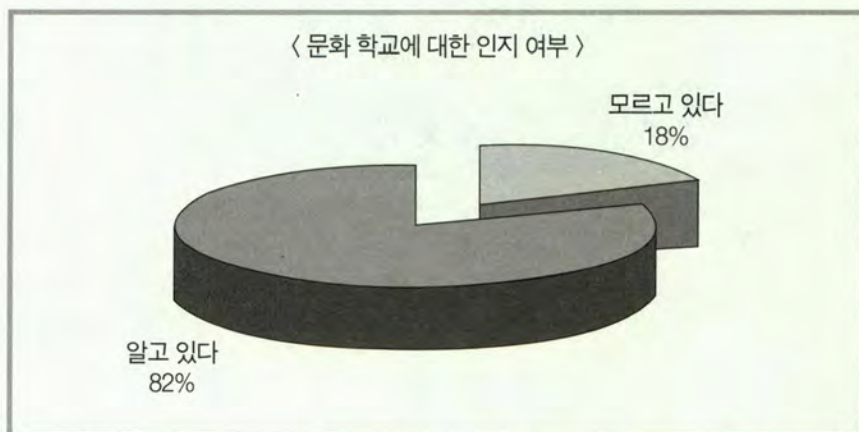
〈표 3〉 연구대상의 참여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	지식과 정보의 습득	42	32.6
	여가시간 활용	50	38.8
	기술 및 직업 능력 획득	3	2.3
	학습에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34	26.3
	합계	129	100.0



[그림 10] 교육프로그램 참여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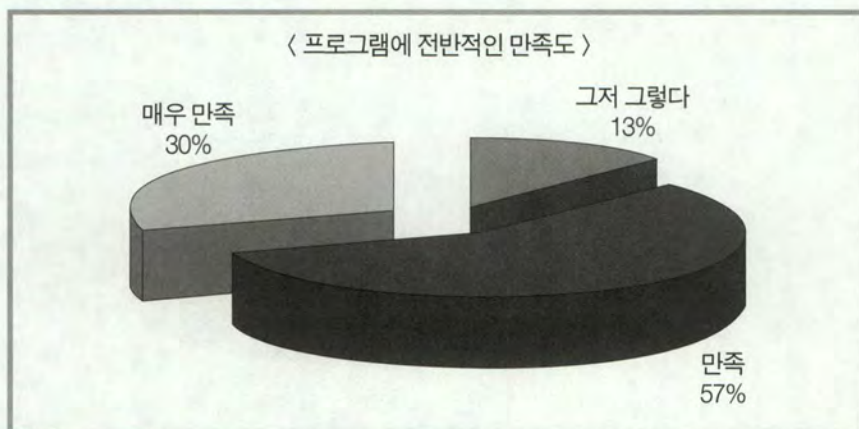
연구대상 교육 참여자들의 문화학교 인지도를 보면 인지하고 있는 참여자가 104명 81.9%, 모르고 있는 23명 18.1%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문화학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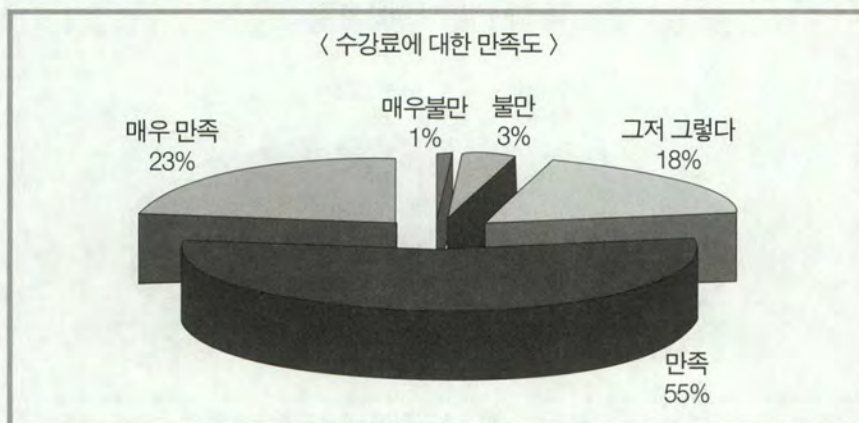
③ 교육 만족도

연구대상 교육 참여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만족이 69명 57.5%, 매우만족이 36명 30.0%로 87.5%의 참여자들이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참여자는 15명 12.5%로 나타났고, 불만족한 참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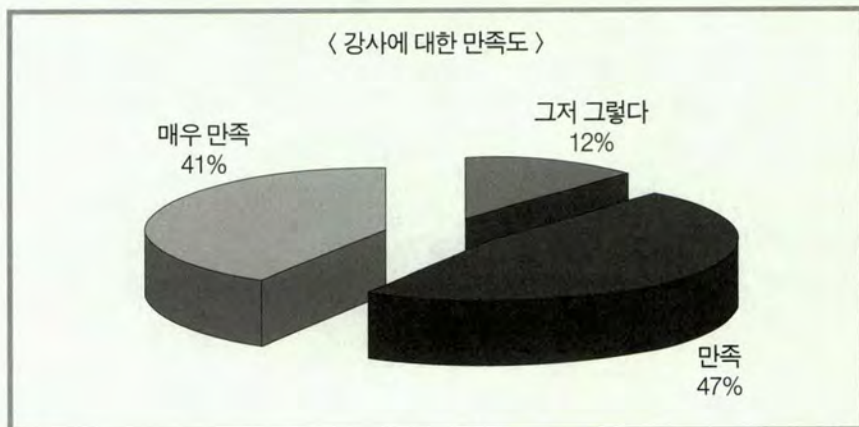
[그림 12]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연구대상 참여자들의 수강료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이 66명 54.5%, 매우 만족이 28명 23.1%로 만족이 77.6%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보통으로 평가한 참여자는 22명 18.2%에 머물렀고, 불만족한 참여자는 5명 4.1%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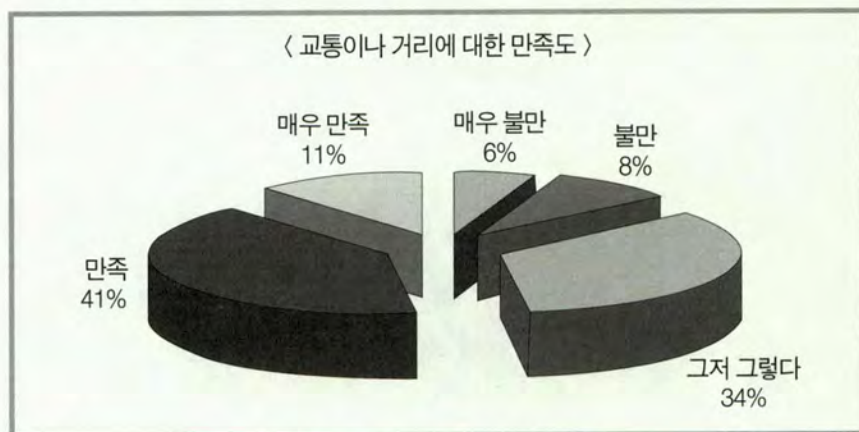
[그림 13] 수강료에 대한 만족도

연구대상 교육 참여자들의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이 57명 47.1%, 매우 만족이 50명 41.3%로 만족하는 참여자들이 88.4%에 이르렀고, 그저 그렇다는 참여자는 14명 11.6%에 머물렀고, 불만족한 참여자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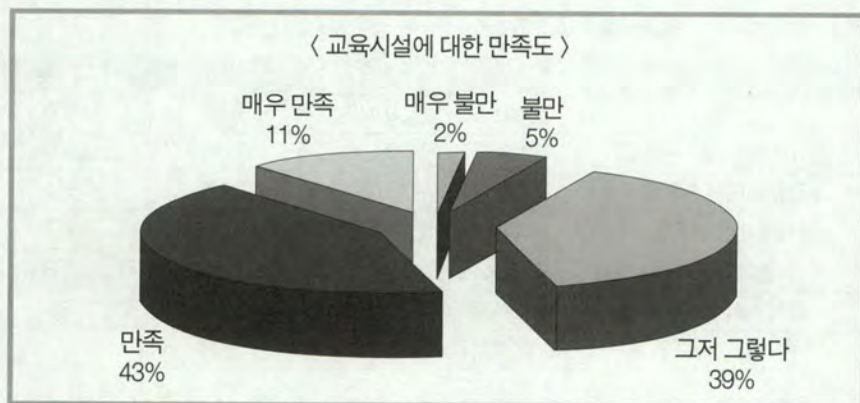
[그림 14] 강사에 대한 만족도

연구대상 참여자들의 교통이나 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이 50명 40.7%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42명 34.1%, 매우만족이 14명 11.4%, 불만이 10명 8.1%, 매우 불만이 7명 5.7%로 나타났다.



[그림 15] 교통이나 거리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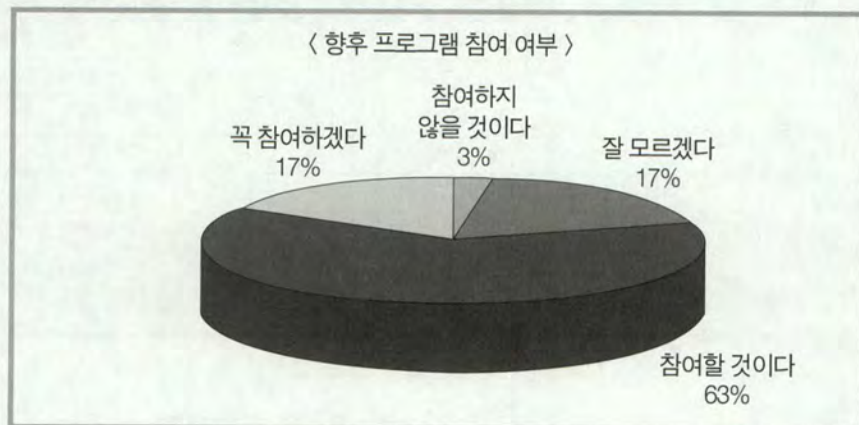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이 52명, 매우 만족 14명으로 만족하는 참여자들이 불만인 참여자 8명 6.5%에 비해 월등히 많이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는 참여자가 48명 39.3%로 나타났다.



[그림 16] 교육시설 만족도

④ 참여의도와 그 영향요인

연구대상 교육 참여자들의 참여의도를 보면, 참여할 것이다가 77명 64.2%, 꼭 참여한다는 참여자가 20명 16.7%로 향후의 참여의도를 보인 주민이 80.9%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 3명 2.5%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교육 참여자들은 20명 1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향후 프로그램 참여의도

연구대상 참여자들의 향후 프로그램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문화학교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하여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4〉 프로그램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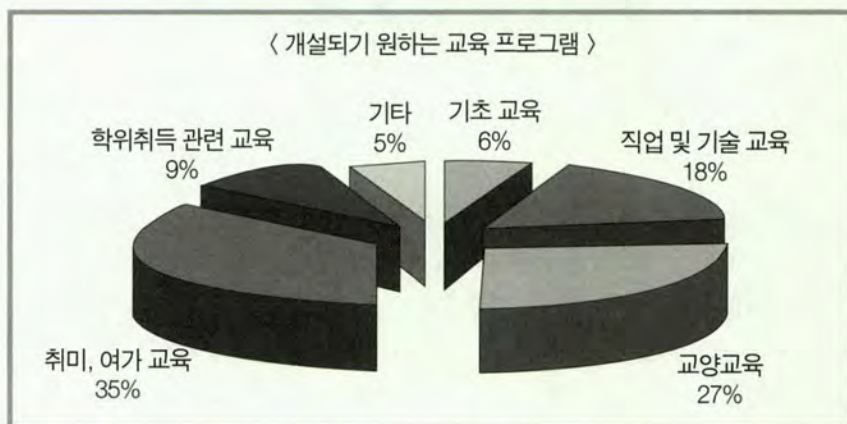
	B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1,746	0,446	3,920	0,000
프로그램 전반적인 만족도	0,434	0,116	3,754	0,000
수강료에 대한 만족도	-0,002	0,084	-0,020	0,984
강사에 대한 만족도	0,083	0,112	0,747	0,457
교통이나 거리	-0,023	0,061	-0,383	0,703
교육 시설 만족도	0,036	0,070	0,519	0,605

R²=0,203, F=6,842, p=0,000

연구대상 참여자들이 개설되길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취미 및 여가교육이 48명 37.2%이 가장 많았고, 교양교육이 37명 28.7%, 직업 및 기술교육 24명 18.5%, 학위취득관련교육이 13명 10.1%의 순을 보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은 취미 및 여가교육과 교양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직업 및 기술교육과 학위관련교육은 이와 구분하여 일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개설희망 교육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개설되기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기초 교육	8	6,2
	직업 및 기술교육	24	18,6
	교양교육	37	28,7
	취미, 여가교육	48	37,2
	학위취득 관련 교육	13	10,1
	기타	7	5,4
	합계	1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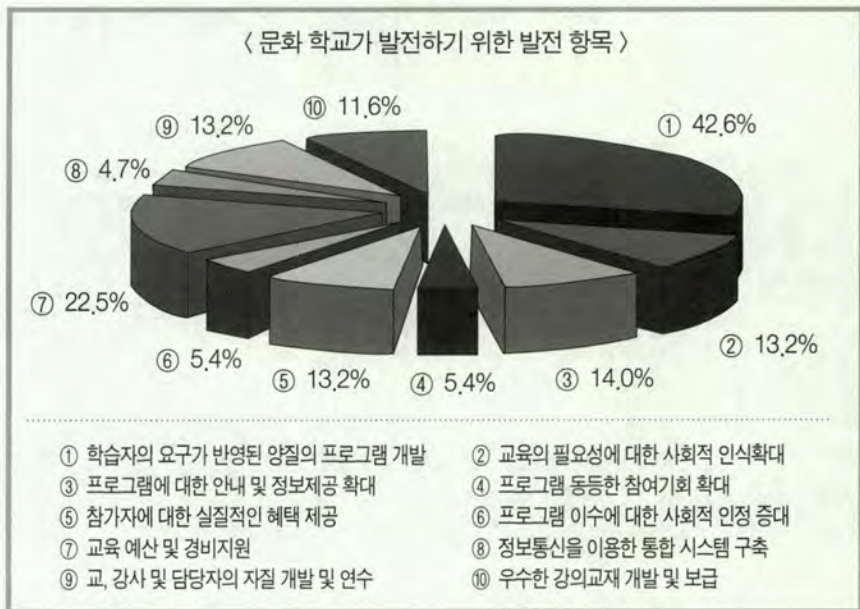
[그림 18] 개설되기 원하는 교육프로그램



문화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는 참여자가 55명 42.65%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확대가 18명 14.0%,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 참가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교·강사 및 담당자의 자질 개발 및 연수가 각각 17명 13.2%의 순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문화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화학교에 대한 지역민들의 필요성 인식 속에 그 지원이 이루어져 교·강사와 운영자의 인적 능력개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문화학교 발전방향인식

		빈도	퍼센트
문화학교가 발전하기 위한 발전 항목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55	42.6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	17	13.2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확대	18	14.0
	프로그램 동등한 참여기회 확대	7	5.4
	참가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17	13.2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사회적 인정 증대	7	5.4
	교육 예산 및 경비지원	29	22.5
	정보통신을 이용한 통합 시스템 구축	6	4.7
	교, 강사 및 담당자의 자질 개발 및 연수	17	13.2
	우수한 강의교재 개발 및 보급	15	11.6
합계		118	100.0



[그림 19] 문화학교의 발전방향

4. 조사결과의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이천문화원이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공간이자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본 보고서는 이천문화원 문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천문화원이 평생교육기능과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참여프로그램은 도예가 가장 많았고, 미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이천이라는 지역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참여경로는 주변의 소개로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홍보지를 보고 참여한 주민, 인터넷홈페이지를 보고 참여한 주민의 순을 보여, 공식적 홍보보다는 구전 효과에 의한 참여가 많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교육프로그램 참여이유는 여가시간 활용이 가장 많았고, 지식과 정보습득, 학습의 즐거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의 여가활용프로그램 중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교육 참여자들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강사, 교통이나 거리,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이 불만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이천문화원 문화교육이 상당한 수준의 만족을 주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향후 참여의도를 보면, 향후의 참여의도를 보인 주민이 80.9%로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향후 참여의도에 프로그램 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문화학교가 더 활성화 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여섯째,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취미 및 여가교육, 교양교육, 직업 및 기술교육, 학위취득관련교육의 순을 보여주었다.

일곱째, 문화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는 참여자가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확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 참가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교·강사 및 담당자의 자질 개발 및 연수의 순을 보였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은 취미 및 여가교육과 교양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직업 및 기술교육과 학위관련교육은 이와 구분하여 일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구전효과를 바탕으로 공식적 홍보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지역방송국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문화학교 발전을 위한 기초적 토양으로 문화학교에 대한 지역민들의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교·강사와 운영자의 인적 능력개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임학순,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문화원의 역할정립", 「지방자치」12, 1994.
- 정봉기, "지방문화의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문화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제언",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논문집」 7권, 1995.
- 옥승현, "문화원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여수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재준,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기능의 탐색",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장종현, "지방문화원 활성화방안",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현준, "지역문화예술공간 이용자의 인식과 태도 연구",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임은혜, "지역축제로서의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관한 연구", 홍익대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천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cc2000.or.kr/>

전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ccf.or.kr/>



설봉문화게시판

세계도자비엔날레	70
문화행사 이모저모	78
시정소식	94
전람회소식	102
신간안내	107
문화원소식	109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 '보딜만츠'

전 세계 66개국 1436명 참여, 2444점 출품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는 2월 2일 제4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조형부문에 '건축적 부피(Architectural Volume)'를 출품한 덴마크 작가 보딜 만츠(Bodil MANZ 여, 63세)에게로 돌아갔다. 대상으로 선정된 보딜만츠의 작품은 기하학적 드로잉이 그려진 10개의 심플한 용기가 방사형으로 뻗어 용기의 건축적 공간 구성으로 도자의 조형성을 완성한 동시에 고온소성에서 얇게 제작된 투명한 도자 용기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금상 생활 부문에는 이윤아(한국, 35)의 '슈퍼내추럴01'이, 조형 부문에는 클레어 린드너(프랑스, 24)의 '거대한 바다짐승'이 각각 선정됐으며, 은상은 생활부문(2점)-안토넬라 치마티(이탈리아, 50)의 '크레스피나', 아요키 료타(일본, 28)의 '작은 보석' / 조형부문(2점)-미카엘 기어트센(덴마크, 40)의 '푸른 사물',

이춘복(한국, 34)의 '숲'이 선정됐다.

이번 국제공모전의 입선작은 비엔날레 기간 중 이천 세계도자센터(조형부문)와 여주생활도자관(생활부문)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대상은 6,000만원, 금상 2,000만원, 은상 1,000만원, 동상 600만원, 특별상 400만원, 심사위원상 100만원 등 총 2억 1천 3백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설봉신문 2007. 2. 15〉

“바람이 내는 소리 들어보세요” 설봉공원 세계 최대 도자악기 ‘소리나무’ 첫울림

2007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하는 '소리나무'가 6일 이천 세계도자센터 곰방대 가마 입구에서 일반인에게 첫 모습을 드러내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도자악기인 '소리나무'는 스테인리스 구조물에 구름모양으로 펼쳐져 매달린 물고기 모양의 풍경 2,007개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낸다.

높이 12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구조물의 제작은 1월부터 일산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국제 공공미술 기획자 성동훈 작가의 지휘하에 제

작돼 6일 이천으로 옮겨진 후 최종 설치 작업을 마쳤다.

제작을 감독한 성동훈 작가는 “나무에 구름이 걸린 모습을 조형화한 ‘소리나무’의 형상과 풍경에 매달린 물고기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 동시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리는 물고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회화적 느낌을 준다”고 말하고 “밤에는 주변에 설치된 조명을 받아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돼 이

천 행사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 권두현)는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맞춰 진행되는 ‘소리나무’의 제막식에 도자피리 악단과 무용수들의 축하공연을 벌일 예정이다.

〈이천신문 2007. 4. 12〉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화려한 개막

지난달 27일, 이천설봉공원 세계도자센터에서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와 함께 화려한 개막식을 가졌다.

‘미래의 아시아를 빗자(reshaping Asia)’를 주제로 오는 5월 27일까지 30일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이천 설봉공원과 도예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양우 문화관광부차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미국대사, 국내외 자매도시단체장 등 2,300여명의 내외 초청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김범도, 이정민 MBC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행사는 전통 북춤 ‘북의 향연’ 공연과 흙피리 연주 등에 이어 도자악기 풍경달기로 개막의 시작을 알렸다.

조병돈 이천시장의 개회선언과 김문수 경기

도지사,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회사와 치사 후, 비엔날레 성공기원 제례의식, 모형 가마에 불을 붙이는 개막 세레모니를 통해 공식적인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을 선언했다.

한편 개막식이 끝난 이후 식후행사에서는 경기도 홍보대사로 임명된 가수 인순이의 축하공연과 남성 팝페라 그룹 ‘라스페란자’, 카자흐스탄 민속 공연단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이천저널 2007. 5. 3〉

개막 첫 주말 76만여 명 방문 성황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28, 29일 주말 이틀간 이천·광주·여주 3개 행사장에 모두 76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도자기엑스포측은 어린이날이 낀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가 함께 열리는 이천 축제장은 28일 토요일에만 13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29일 일요일에는 20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주말동안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단연 이천의 키즈워크샵과 흙놀이공원, 토야놀이방 등 흙과 도자기 만들기를 통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한편 상징물로 자리 잡은 '소리나무'도 2007개의 도자풍경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함께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로 인기를 끌었다.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조명 빛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 사진 촬영 명소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일반 관람객과 도예 장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클레이 페스티벌, 직장인 밴드 및 비보이 페스티벌 등으로 꾸며지는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풍성한 주말을 보냈다.

설봉공원에서 개그야 했어요!

29일 설봉야외대공연장에서 열린 MBC '개그야' 공개방송엔 4000여 명의 인파가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무대는 '개그야' 방송 후 첫 야외 공개 녹화로 김미려는 '사모님'으로 '개그야'의 인기를 이끌었던 주역으로서 무대에 올라 '마리아'를 열창했다.

이날 공개방송을 찾은 관객들은 "개그야! 진짜 재밌었어요. '주연아!', '별을 쏘다'가 제

일 재밌었어요"라며 "식전 크라이넛의 공연이 끝나고 사모님이 나왔는데 노래 진짜 잘 불러요"라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는 6일에도 김학도, 허수경이 진행하는 '도자나눔! 사랑나눔!' SBS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이천저널 2007. 5. 3〉

'도자기와 들꽃의 어우러짐'



이천 우리꽃연구회(회장 이충희)는 지난달 28일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맞춰 들꽃 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들꽃전시회는 이천 도자기의 우수성과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도자기와 들꽃의 어우러짐'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까지 세계도자비엔날레 축제장 중앙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은방울꽃, 쥐순이풀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에서부터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금낭화, 앵초, 구절초, 족도리 등 약재꽃에 이르기까지 100

총 150여점의 다양한 우리꽃이 전시된다.

이밖에도 전시장 한편에서는 연구회원들이 촬영한 우리꽃 사진을 전시해 도자기의 은은한 정취와 함께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우리 꽃 전시회는 매년 세계도자비엔날레 축제와 같이 개최되며 학생들의 견학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천신문 2007. 5. 3〉

청강대, 클레이올림픽 개최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 간 펼쳐지는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의 정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클레이올림픽을 개최했다.

클레이올림픽은 도자전공 학생과 산업체 중사자들이 흙을 매개로 참여해 제작 기술과 조형능력을 겨루는 도자 전공인의 축제로, 도자 문화의 저변확대와 도자제작 기술 발전을 위해 개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고등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

행되며, 고등부는 물레 경연대회와 조형 경연대회로 나뉜다. 물레 경연대회는 예선을 거쳐, 조형 경연대회는 예선 없이 오는 5일 설봉공원 전용부스에서 본선을 치를 예정이다.

청강대 관계자는 “고등부 본상 수상자는 청강대 지원시 가산점 50점이, 대상자는 우선 입학의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예비 도자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강대는 축제 기간 중 설봉공원에 자기타일로 벽을 꾸미는 ‘도자 천년의 거리’ 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부터 제작을 시작한 ‘도자 천년의 거리’는 이천도자기축제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도자 용 안료로 초벌타일에 손바닥 모양을 찍은 후 설봉공원을 장식하는 행사로 일반인이 참여하는 도자 예술의 체험마당으로 각광받고 있다.

청강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설봉공원 약 1km의 벽면을 이 자기타일 도벽으로 꾸민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천저널 2007. 5. 3〉

이천도자기축제, 눈높이 맞춘 체험프로그램 인기 프라이빗 도자관과 클레이애니메이션 연일 성황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수도권 최고의 문화체험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개막 보름 만에 100만 관람객을 돌파한 이천도자기축제는 평일 2~3만명, 주말 연휴에는 그 10배인 20~30만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통도자기를 기반으로 한 지역특산물축제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데에는 기존의 관람과 전시 위주 축제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체험형 도자축제로 진일보했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직접 자연 소재인 흙을 만지며 도자기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고 배우는 다양한 도자체험 프로그램이 가족단위나들이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배경이다.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는 프라이빗 도자관과 영상체험관을 꼽을 수 있다.

올해 도자기축제의 최대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달 28일 개막 이후 하루 평균 5만 명 정도가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프라이빗 도자관은 이천의 유명 도자명장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 및 전통자기에 자신의 취향대로 문양과 색깔을 선택하여 도자기를 제작하고 구매할 수 있는 도자체험이다.

도자기 크기와 종류에 따라 5천원에서 4만 8천원 사이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특히 접시, 찻잔 등 생활도자기에 관심 많은 30~40대 여성 및 주부층에 큰 인기로 식기 제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선택한 도자기에 원하는 문양과 색깔을 직접 입히면 도우미가 유약을 바르고 2차 소성작업을 거쳐 택배로 보내준다.

축제 관계자는 “프라이빗 도자관은 기존의 보는 도자체험에서 벗어나 방문객을 직접 도자 제작 공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특히 유명 도자명장들의 초별구이 도자기에 자신만의 개성을 맘껏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클레이애니메이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영상체험관은 만원의 저렴한 체험비용으로 직접

진흙으로 원하는 인형을 제작해 2분에서 3분 정도의 간단한 클레이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제작된 영상은 CD에 담아 직접 가져갈 수 있다.

체험관 운영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인형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흥미를 갖고 참여한다”면서 “단순한 제작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작과정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하나로신문 2007. 5. 23)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내외 비엔날레 행사장 찾아

20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내외가 2007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이천 행사장을 찾았다.

오전, 행사장을 찾은 대사 내외는 이천 세계도자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테마 세계현대도자전’과 ‘국제공모전’을 2시간동안 관람한 뒤 전통 가마에서 도자기를 직접 꺼내는 체험을 했다.

한국의 전통 가마를 처음 본 대사 내외는 전통 가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나흘간의 불 때기로 아직까지 온기가 남아있는 전통 가마를 접한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진사(구리 성분이 함유된 유약을 발라 소성해 붉은 빛을 띄는 현상)’를 보고 “어떻게 흙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붉은 빛이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편 금속 공예 작가이기도 한 대사 부인 리

사 버시바우 여사는 이천 세계도자센터를 관람하는 내내 “정말 ‘아름답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흙으로 빚었다고 믿을 수 없는 작품 세계를 접하는 중이다. 이토록 신기하고 아름다운 도자 전시회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전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버시바우 대사도 “도자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안다(웃음)”며 관람 내내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설봉신문 2007. 5. 24)

국제교류작가 퍼포먼스 화제 만발 6개국 작가 술병 주제로 활발한 교류 펼쳐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의 행사 중 하나인 국제교류작가 퍼포먼스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3일 종료됐다.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국제교류작가 운영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이번 행사는 (재)세계도자기엑스포와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천시, 안산시 등의 후원으로 치러졌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자도시 이천에서 세계 유명작가를 초청해 전시회, 슬라이드 쇼, 워크숍(데몬스트레이션)등으로 진행한 국제도에 퍼포먼스인 이번 행사엔 중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미국 등 해외작가 12명과 국내작가 12명 등 24명의 도예가가 참여했다.

‘도자기 술병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이천시립박물관에서의 4일간 워크숍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다지며, 관람객 앞에서 저마다의 기예와 감각을 드러내는 시연의 시간도 가졌다.

초청작가들에 의해 사전제출된 도자기 술병 관련 디자인과 견본은 워크숍을 거친 뒤 대표작품들과 함께 이천도자기축제장과 서울 인사동의 공예문화진흥원 전시장에서 일반에게 선을 보이며 판매되기도 했다.

참여 작가들은 행사장과 한국도예고등학교에서 슬라이드를 활용한 공개 강연을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소개했으며, 행사 기간 중 광주, 이천, 여주의 도자기축제장을 비롯해 서울 인사동 화랑가와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미술관을 둘러보며 한국의 도자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한편 7일 시립박물관 뜰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이 배운 환영 만찬엔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의장, 권오인 공예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해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많은 도예계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특히 해외작가들은 행사기간의 절반가량을 이천참여작가의 요장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진정한 우호교류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하나로신문 2007. 5. 23)

이천도자기축제 252만명 기록적인 관람객 기록

직접매출 70억원.. 지난해 대비 1.8배 증가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가 한달 동안 25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하루평균 관람객 동원기록에서 역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에 따르면, '아시아의 미래를 빛자'라는 주제로 제4회 경기도세계도자기비엔날레와 함께 열린 이번 이천도자기축제는 한달간의 관람기간동안 국내외에서 모두 252만명(외국인 15만 포함)이 다녀간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단일행사로 24일간 치러진 제20회 축제와 비교해 관람객수는 170% 증가하고 외국인은 250% 늘어난 수치다. 또한 축제장내에서 이뤄진 직접적인 매출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1.8배가 늘었다.

역대 도자기축제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지난 2001년 첫 국제행사로 이천·여주·광주에서 치러진 세계도자기엑스포(제15회 이천도자기축제)는 당시 80일간의 축제기간

중 총 6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었다. 이중 306만명이 주행사장인 이천축제장을 찾아 하루평균 3.8만명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후 2005년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제3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는 58일간 축제기간 중 207만명이 다녀가 1일평균 4.6만명이 기록됐고, 올해는 행사기간이 30일로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일평균 8.4만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축제기간 등을 감안한 평균 관람객 동원기록에서는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행사 때보다 무려 2배 가까이 평균 관람객수가 급증했다.

김남완 이천시청 도예팀장은 "관람객 중심의 축제로 세계도자기비엔날레 행사와 동시에 개최돼 전년에 비해 볼거리가 풍성해졌고,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도자체험 프로그램에 관람객들의 호평이 있었다"고 비결을 설명했다.

또한 "프라이빗도서관, 영상체험관, 클레이 애니메이션 상영관 등 관람객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가정의 달인 5월과 맞물려 많은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축제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었던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천신문 2007. 5. 31〉

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 열기 '아직도 뜨겁네' 40개국에서 출품된 686점의 도예품 6월 24일까지 연장 전시

6월 24일까지 연장전시 중인 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가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 권두현)는 지난 5월 27일 폐막한 이후 이달 24일까지 연장한 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에서 최근까지도 많은 내국인 및 외국인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큐레이터실장 서정걸 부장은 “최근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주로 비엔날레 기간 동안 전시회를 감상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시 한번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도자기 매니아들이 많다”며 “외국인 관람객들도 많이 오는데 지난 6월 7일에는 미국 롱비치대학교 도자학과 교수 및 전공학생 30여명이 다녀갔고, 11일에는 인도네시아 도자교류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제외교 특사겸 현 부통령 경제고문 라오테 가말루딘 의원 일행이 방문했었다”고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계속되는 전시는 이번 세계도자비엔날레의 핵심기획전인 ‘아시아 테마 세계현대도자전’, ‘동서도자유물의 보고전’, ‘국제공모전’,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세라믹하우스Ⅲ’ 등 5개이다.

이천 세계도자센터에서 전시중인 아시아테마 세계현대도자전은 세계 유명 도예 작가들의 독특하고 변칙이는 개성적인 작품들이 눈길을 모은다. 특히 진시황 무덤의 병마용을 재해석해 독특한 표정의 여전사들로 표현한 노르웨

이 작가 메리안 헤이여달의 ‘테라코타 여성 프로젝트’는 모두가 한번씩 발걸음을 멈추는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작품이다.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동안에도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일부러 방문하는 관람객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전시는 미국, 대만, 뉴질랜드, 스웨덴 등 세계 각지의 도예 관계자와 도자 전공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하고, 벤치마킹 하는 등 높은 수준을 증명한 바 있다.

(이천저널 2007. 6. 14)



장작가마불지피기 · 설봉산 해맞이 행사로 정해년 새해 출발

한해를 마감하는 31일 밤과 새해 1월 1일 아침에 걸쳐 장작가마 불지피기행사와 해맞이 행사가 시민들의 참여속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

저녁 11시 30분부터 이천설봉공원에서 개최된 장작가마 불지피기행사는 이천시가 주관하고, 이천도자기조합, 이천예총, (재)세계도자기엑스포 등이 후원했으며 31일 밤 11시 20분부터 길놀이, 고사, 퍼포먼스, 불꽃놀이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풍물패 치례의 공연에 이어 청소년 무용단(단장 신해진) 단원들과 무용감독인 주미화씨의 퍼포먼스가 이어졌으며 2007년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규제개선, 경제활성화 등을 기원한 조병돈 시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 등을 가득 담은 도자기 항아리를 전통가마에 넣었다. 행사에 참석한 3백여명의 시민들은 주최측이 마련한 따뜻한 음식을 들며 담소를 나눴다.

몇시간 뒤에는 '황금돼지해' 정해(丁亥)년 해맞이 행사가 오전 7시부터 설봉산 새천년의 탑에서 진행됐다. 부발 효양산, 장호원 백족산, 백사 원적산, 마장 도드람산, 대월 해룡산, 모가 마국산, 설성 노성산, 울면 임오산 등 모두 9곳의 지역명산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맞이 행사가 진행됐다.

설봉산 새천년 탑에서 거행되는 새해맞이 행사는 이천문화원(원장 이상구)이 주관하고 농협이천시지부와 연합동문회, 산악연맹 이천

지부, 이천청년회의소, 거북놀이보존회 등에서 함께 준비했으며 시민 2천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거북놀이 보존회는 이날 식전행사로 신대소 원지달기와 풍년기원제를 올렸으며, 만세삼창, 새해인사, 소원빌기, 지신밟기, 신대소원 지태우기 등도 진행됐다.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는 돼지저금통 1000개를 배부하고, 이천청년회의소(JCI)와 이천연합동문회는 행사장 입구와 정상에서 차와 음료를 참가시민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천신문 2007. 1. 4)

옥새전문가 민홍규씨, 국새 제작자로 선정

서예와 옥새 전문가인 민홍규(51)씨가 28일 새 국새(나라 도장)제작자로 선정됐다.

이로서 그는 인문(印文·글씨)과 인뉴(印紐, 유)·봉황 손잡이)부문의 책임자 역할을 맡게됐다. 현존 인물 중 전통 기법에 토대를 두고 국새를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는 대한민국 초대 국새를 제작한 '석불' 정기호 선생 문하에서 17년 동안 동양철학, 조각·서예·전각·회화등을 배웠으며, 이천에서 조선시대 옥새 복원에만 정진해 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영구전시 중

인 고종 황제때의 대한국새 작품과 그가 복원한 16개의 조선조 옥새는 경기도립박물관에 기증돼 전시 중이다.

올해에는 서울, 부산과 일본 등을 순회하며 '600년을 이어온 세불 옥새전'을 개최했으며 이천시 문화상을 비롯해 한국평론가협회로부터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미술분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옛 문예진흥원)로부터는 올해의 예술상 대상(전통예술부문)을 수상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새는 한 해 약 1만 6000~1만 8000회 사용돼 표면이 닳을 수 있음에 따라 향후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당선작의 모형에 맞춰 18K 합금으로 2008년 1월까지 제작하고 사용은 같은해 2월부터 할 계획이다.

〈설봉신문 2007. 1. 4〉

청파요 이은구 선생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평통회장으로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기위해 애를 썼었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유치와 웅변대회 개최 등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이은구 회장(66세, 평통)이 9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97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은지 10년만에 받은 두 번째 훈장이다.

8년째 평통회장을 맡아보면서 시카고 평통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교류와 양도시간의

우호증진에도 앞장섰고 12년동안 이천문화원장을 맡아 이천도자기축제를 반석위에 올려놓는 등 지역의 향토문화발전에 주력해온 것에 대한 공로다. 도예인으로서 매번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선생의 작품을 상대방 국가원수에게 전달해온 것만 수십차례이니 이에 대한 답례성격도 강하다.

“도자기만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지역에서 여러가지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져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양대 건축공학과 재학시절 도자기를 처음 알게 돼 학업을 중단한 채 이천에서 도자기를 시작한 것이 1962년이니까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76년 청파요를 설립한 이래 실력과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도예인으로 누릴 수 있는 영예는 모두 누릴 만큼 성공했다.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청파’ 하면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울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예인으로 인정받았고 이천시 문화상 뿐만 아니라 고향인 공주에서도 문화상을 받을 만큼 유명인사가 됐다.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를 맞아 국립공주대학 객원교수로 후학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도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명지대 산업기술대학원을 다니며 도자분야에 대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천신문 2007. 1. 18〉

이천예총 이·취임식 및 예술인의 밤 열어

이천예총 신임 회장단 이·취임식이 지난 12일 은혜웨딩홀 부폐에서 개최됐다.

지난 98년 이천예총 창립 구성원이었던 이영환 이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창립당시의 제1회 산수유축제 개막부터 지금까지 힘이 되어준 예총 가족들을 비롯한 이천지역사회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난 8년간 이천예총의 발전에 협조해준 분들께 감사를 전했다. 한편 신임 심덕구 취임회장은 “예총의 단합된 힘과 노력하고 공부하는 모습, 시의 협조가 맞물려 돌아간다면 이천예총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는 말로 취임사를 갈음했다.

이천 예총은 창립(1998년) 이래 설봉산 별빛 축제, 이섭대천예술제, 주민을 찾아가는 공연(순회전시 포함), 제15회 설봉미술대회 및 휘호대회, 제8회 이천시 학생 음악 콩쿨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이천예총 이·취임식 및 예술인의 밤’ 행사에는 조병돈 이천시장 및 김태일 시의회의장, 권영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시 낭송공연을 시작으로 이임사와 취임사를 비롯한 이취임식등의 순으로 전개 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이천예총 제8차 정기총회’를 통해 심덕구 신임회장을 비롯 이규선 수석부회장, 강신영 부회장, 이윤우 부회장, 전광우 감사, 최준형 감사가 새롭게 선출됐다.

〈설봉신문 2007. 1. 18〉

예술인들 ‘이천사랑’ 빛났다

이천예총 하이닉스 투쟁기금 마련 공연·전시회 성황
투쟁기금 1억원 모금 목표... 관람석·작품판매 ‘절반의 성공’

23일 이천시민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울것으로 기대했던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도약, 이천한마음 음악회’ 공연은 이날 오후 정부의 ‘하이닉스 청주공장에 1,2차 증설’ 발표가 나온 탓인지 객석의 절반 정도만을 겨우 채웠다. 그렇지만 공연을 준비한 이천예총 소속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참석한 이천시민들의 이천사랑하는 마음 만큼은 진한 감동을 남기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이날 저녁7시부터 시작된 공연은 연예협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밴드 ‘토야프렌즈’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대 그리고 나 등을

연주했고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강사로 맹활약중인 신현례씨가 ‘마이웨이’를 선물했다.

성악가 김선수씨는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라는 가사로 유명한 상록수를 통해 희망을 전달했으며 문인협회 이춘희씨와 신덕현씨는 ‘희망의 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함께 낭송했다.

무용협회 주미화씨의 공연, 국악협회 소속 박연하씨와 풍물패 ‘치레’의 공연도 이어졌다. 모던댄스와 라틴댄스를 선보인 이천HM댄스 아카데미 공연단의 공연 때는 흥겨운 음악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22일 진행된 전시회 오픈 기념식에는 조병돈 시장과 김태일 의회의장 등 몇몇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첫날에는 대부분의 작품이 판매되지 못했다. 이틀째에는 이상구 문화원장, 박선기 생체협회장이 작품 구매에 나섰고, 조병돈 시장이 직접 나서고 시청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작품판매에 열을 올린 결과 총 4천여만원의 작품이 판매됐다.

문화공연과 작품판매로 약 1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이천예총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천신문 2007. 1. 25)

도자기조합 윤창호 이사장 재신임

이천도자기조합이 7일 도자기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제12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4년의 6대 이사장에 윤창호 현 이사장을 선출했다.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얻은 윤 이사장은 총 169명의 투표참가자 중 96표를 획득해 72표를 얻은 기호 1번 백광 안성희 후보를 제쳤다. 1표는 기권.

현 이사장인 윤창호씨는 윤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공고 요업과를 졸업했다. 이사장 취임 뒤 조합의 체질을 마케팅과 실질적인 수입확대에 맞춰 개선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역 박람회 등 주요도시 판매행사에 적극 참여, 축제의 변화 등을 모색하며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판매활동을 돕고 조합도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조합의 위상 역시 달라져 이천시나 엑스포재단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조합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도자기 판매장 운영을 지방 대도시 중 한 곳에 확대하고 대도시 한 곳에서 소규모 도자기축제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과 카탈로그 등을 활용해 단체선물용 판매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예교실 운영사업은 학원과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교실과 지역주민, 가족단위의 참여를 위한 일반도예교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천도자기전시 판매관내 기획전시실을 활용해 매월 주제가 다른 전시를 진행하고 다기, 식기 등 전문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천신문 2007. 2. 8)

‘제8회 총곡리 민속놀이 한마당’

“향토에 대한 애정을 담아 민속놀이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일 울면 총곡1리 마을에서는 새싹회(회장 김민호)가 주관하는 민속놀이 축제가 열렸다. 울면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외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는 연날리기, 팽이치기, 옷놀이, 제기차기 등과 같은 전통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자리. 이날 행사를 주관한 새싹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놀이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서 전통민속놀이 문화를 알리고 추억과

고향에 대한 정을 심어주기 위해 8회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김민호 새싹회 회장은 “아이들이 틀에 박힌 공부에만 얽매어 있기보다 자연으로 나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민속놀이 행사를 통해 따뜻한 고향의 마음과 소중한 추억을 심어주는 놀이의 장을 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호 회장은 “전에는 아이들 중심의 행사였지만 점차 아이들 수가 감소하다 보니 요즘은 외지에서 더 많이 참석해 주는 것 같다”며 “이젠 더 이상 놀지 않는 농촌인구현황을 봤을 때 외지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 할 때”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연상 읍면면장을 비롯한 읍면지역 주민뿐 아니라 한국언론중재위원회, 결연마을인 경기도청(체육진흥센터)등에서 참석했다. 행사는 특별초청된 서울소리보존회(김경순, 박나령, 김현미, 서명순)의 경기민요를 시작으로 어른과 어린이, 남과 녀로 나눠 펼쳐지는 민속놀이 대결과 놀이문화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설봉신문 2007. 2. 15〉

이천미술협회 최석필 회장 취임

지난 3일 열린 한국미술협회 이천시지부의 정기총회에서 최석필 회장이 단독후보로 출마, 만장일치로 제6대 한국 미·협 이천시지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상기 前 미·협회장이 남은 2년의 회장 임기 기간을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사퇴, 보궐선거가 개최됐으며 잔여임기를 마무리 짓게 될

회장으로 최석필 신임회장이 임명됐다.

최 회장은 이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협성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 이천 일요화가회 자문위원과 경기도와 이천시 미술협회회원으로 활동 해왔다.

최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이천 미·협, 이천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찾아가는 미술전시(관·공·서순회전)’와 ‘설봉미술대회 및 휘호대회’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4월에 완공되는 월전 미술관이 차질 없이 성황리에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최 회장은 문화예술이 발전해야 생활·경제 등 복합적인 것들이 함께 성장 한다고 생각한다며 21세기는 문화·예술과 사회·경제생활이 접목돼 공존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천 미술협회에서는 이천 경제의 최대 관건인 ‘하이닉스 살리기’에 동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돕기 위해 미·협 작가들의 개인작(50여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최석필 회장은 “마지막으로 미·협 이천시지부의 자체적인 예술·문화 성장을 통해 이천의 문화·예술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했으면 한다”고 말하며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설봉신문 2007. 2. 28〉

모가면 진가리 제5회 용싸움 줄다리기



3일 모가면 진가리(축제위원장 권혁관)에서 마을 풍년과 주민 단결을 기원하는 대보름맞이 용싸움놀이 축제가 개최됐다.

매년 대보름을 맞아 전개되는 이번 행사는 '모가면 진가리 줄과 뿌리의 축제'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5회째 개최되고 있다. 마을의 전통놀이를 부활시킨 행사로 용싸움 줄다리기, 척사대회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한편 마을주민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불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마을축제이다.

제5회 '줄과 뿌리의 축제'를 준비한 진가리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권혁관)는 오곡밥과 국수를 준비해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왕건태권도 체육관 등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저녁 무렵에는 조병돈 이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용싸움 줄다리가 펼쳐졌으며 쥐불놀이를 대신한 폭죽놀이가 전개됐다.

한편, 모가면 주민자치위원회 평생학습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시민체육대회에서 모가면을 대표해 입장상을 수상하기도 한 용싸움 줄다리기는 '줄과 뿌리의 축제'의 테마로 전개되고 있으며 모가면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설봉신문 2007. 3. 8〉

이천 YMCA 주민과 함께 정월대보름 행사

이천 YMCA(이사장 이교선)는 3일 사음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제기차기, 엿치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즐기고 YMCA 천연염색 동아리 '물들이며 정들이며'에서 천연염색 체험활동과 생태안내자 모임 '꽃빛어울림'에서 나무 목걸이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속에 진행됐다.

이와 함께 YMCA실무자를 중심으로 짜여진 사물놀이패를 구성해 길놀이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원지 작성하기 및 달집태우기 행사를 진행해 사음동 지역발전과 주민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 YMCA 한 관계자는 "사음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뒤 처음맞는 정월대보름이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위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천신문 2007. 3. 8〉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아동센터 문 활짝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돌보는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가 상호 교류와 연계를 위한 걸음마를 내디뎠다.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 창전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 발대식에는 각 지역센터장과 어린이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응호 시민장학회장, 정백우 이원회장, 이현호 시의회 부의장, 서재호 시의원이 고문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천은 현재 창전, 모전, 장성, 풍계, 보리앗, 아름다운 교실, 이천푸른학교 등 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150여명의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을 제공하고 아동보호를 할 뿐아니라 학습 및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문화체험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이 날 김귀한 아동센터협의회장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가정해체의 아픔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방치해 두면 탈선하는 경우가 많고 비전 없이 자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가 따뜻한 환경과 보살핌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설봉신문 2007. 3. 15)

청소년아카데미 느티나무교실 입학식

5일 창전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 느티나무교실 입학식’을 열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주로 방과 후에 학원을 갈 형편이 못 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과목 수업뿐 아니라 음악, 미술, 태권도, 바둑 등 특기적성교육은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과 문화체험,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12월말까지 계속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의 학생들을 두 개반으로 나눠 미소반과 푸름반이 운영되고 중학교 1,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희망반이 운영된다.

청소년아카데미는 청소년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청소년지도사(프로그램 매니저)를 배치해 고품질 운영을 하고 상담과 학습지도가 가능한 경력자 2명을 편성해 담임제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사회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후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주5일제 수업시행에 따른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전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한국방송대이천동문회와 협력협정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이천신문 2007. 3. 8)

“대중에게 다가가는 다산사상”

다산목민교육원 교육강좌

‘실사구시, 이용후생, 경세제민’

다산목민교육원(원장 유승우)은 3일 다산목민교육원 협의회의실에서 유승국박사를 초청해 '다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목민교육원 임원 및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강연은 목민심서를 저술한 다산 정약용선생의 삶과 그의 사상인 '실사구시, 이용후생, 경세제민'에 관한 주제로 이뤄졌다.

이번 강연은 다산목민교육원이 대중을 상대로 처음 선보인 강연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목민교육원 관계자는 “강연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교육뿐 아니라 자료조사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다산사상을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한 유승국박사는 한국정신문화원장을 지낸 철학자이며 교육자로 현재 동방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동양철학논고> · <한국의 유교> · <한국의 종교> 등이 있다.

다산목민교육원은 4월 7일 다산유적지에서 열리는 다산묘제에 참석할 예정이며 매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천신문 2007. 3. 15〉

이황초교 글로벌 체험관 개관

공교육의 보완을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활동 지원하는 '글로벌 체험 학습관'이 김재만 이천교육장 및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개관했다.

이황초등학교 내에 건립된 글로벌체험학습관은 총 2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총면적 378제곱미터)은 전통체험실, 이천체험실, 관리실로 2층은 글로벌매너체험실, 외국어 체험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이 글로벌체험관에서 영상을 통한 한복입기 등의 전통예절교육과 외국어 체험활동으로 기내활동, 입국심사, 공항이용체험 등을 체험할 계획이다. 또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비디오상영 등을 통한 글로벌매너체험과 사물놀이, 역할놀이 등을 통한 이천체험도 진행될 계획이다.

〈설봉신문 2007. 2. 28〉



축제 '격' 높이기 위해 전통문화와 상업의 조화 필요

제8회 백사산수유꽃축제 결산

‘진노랑 봄꽃의 향연’ 제8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가 30일부터 사흘간 백사면 도립리, 송말리, 경사리 일원에서 치러졌다.

이천도자기축제와 더불어 이천시 지역4대 축제의 하나로 많은 상춘객을 사로잡고 있는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작년행사에 비해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이 나타나 개선의 여지를 드러냈다.

‘살고싶은 고을 이천 21’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주차장과 안내서비스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관람객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관람객은 “산수유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많은데 비해 산수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홍보관과 안내시설이 없어 데리고 온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설문에서 좋았던 프로그램과 좋지 않았던 프로그램으로는 ‘장작패기’와 ‘툰질하기’에 매우 높은 만족을 나타냈고 자연 관찰장, 버들피리 등 비용이 들지않고 직접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호응도가 높았다.

이에 반해 좋지 않았던 프로그램으로는 노래자랑과 무료가혼썰주기, 수지침 시술 등이 있었다. 노래자랑은 출연자들의 노래실력이 좋지 않아 행사의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평이다.

한 시민은 “무료가혼썰주기 행사부스에 ‘무료’라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실제로는 돈을 요

구하는 듯한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뒤 혼란을 겪고 적은 돈을 내자 낙관을 안착어줘 무안해서 혼났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수지침 시술은 축제기간동안 부스가 비어있어 썰렁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설문에 응한 방문객의 상당수가 “지난축제에 비해 상품판매점과 주점이 많아져 상업적인 모습으로 변한것 같다”며 “전통적인 문화 축제로 발전해 나가려면 문화적인 면과 상업적인 면이 조화되는 행사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해 내년에 열릴 9회 축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천신문 2007. 4. 5)

이천시민포럼 유승국 박사 초청강연회

“한국문화의 정체성은 효문화다. 동양의 가정문화는 돈벌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반면 서양은 자식보다는 사회에게 환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네 산소는 그냥 흙더미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 집집마다 내려오는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85세의 노령에도 유승국 전 정신문화원 원장의 목소리에는 젊은 사람 못지 않은 힘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이천시민포럼(대표 박종환)이 23일 미란다 호텔에서 개최한 유승국 박사 초청강연회는 50여명의 회원과 일반시민들이 참석해 유박사의 넓은 식견에서 만들어지는 막힘없는 강연 솜씨와 어려운 철학을 쉽게 풀어내주는 강의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유 박사는 과거 신분사회 봉건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진통을 겪은 뒤 불세비키 혁명을 거쳐 이제 계약사회 평등사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한 뒤 평화와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동양문화가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서구사회가 도래하면서 경쟁과 승리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처럼 됐지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이 많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양보를 중시하는 민족이다. 그렇지만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민족의 장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 박사는 최근 경쟁 때문에 서울대 중심, 학벌 지상주의에 빠진 것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학의 수준을 일률적으로 만들고 모든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의 지식과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서울의 4대문에 인의예지가 들어가고 가운데 보신각중에 믿을 신(信)이 들어가 우리의 전통사상을 설명해주고 있다면서 우리 문화에서는 신(信)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인정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정체성을 되찾아 서구사회의 특징 중에서 장점을 발굴하고 우리 문화와 잘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천신문 2007. 4. 26〉

장호원을 풍계2리 제2회 복사꽃 축제 개최

21일 장호원을 풍계2리에서는 복사꽃축제 추진위원회 주최로 제2회 장호원 복사꽃축제가 개최됐다.

장호원 복사꽃축제는 올해 2회를 맞은 행사로 그리 널리 알려진 행사는 아니지만 풍계리 주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축제장을 찾은 한 방문객은 “풍계리 주민들이 국수와 떡을 무료로 나눠주고 음식을 푸짐하게 담아줘 시골의 인심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는 풍년기원제, 향음주례 등 전통행사와 복사꽃놀이, 버들피리 불기, 복사꽃 책갈피 만들기, 복사꽃 천연비누 만들기, 떡메치기 등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행사장을 찾은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화전, 탕평채, 오미자화전 등 시절 음식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져 옛맛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천신문 2007. 4. 26〉

인터넷 방송국 Yes TV 지역 최초의 동영상 뉴스 제공

이천지역 최초의 동영상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국 YesTV가 5월 7일 개국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시민주권주의를 지

향하는 YesTV는 이천지역의 각종 행사와 이슈, 현안, 생활정보 등을 동영상과 함께 뉴스로 제작, 기존의 기사만을 위주로 한 매체와는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7일 열린 개국식에서 윤동선 대표는 "대안 없는 비난과 흠집내기가 판치는 요즘 세상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대안을 가진 비판으로, 이천지역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언론으로써 굳건히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일 시의회 의장은 "요즘 언론이 언론으로써의 기본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YesTV가 이천의 참되고 바른 정론을 열어가는데 최고의 언론매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YesTV의 임종백 부장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장치를 마련해 동영상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살린 빠르고 현장감 있는 뉴스로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동영상으로 제작된 축하 메시지에는 김문수 도지사, 도자기비엔날레 홍보대사인 박철과 이세나, 이천출신 가수 고현옥, 모세 등의 인사들이 축하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천신문 2007. 5. 10〉

제11회 이천문예백일장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기비엔날레 및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를 기념하는 제11회 이천문예백일장은 이천시와 도자기추진위원회가 주최

했으며, 한국문인협회 이천시지부(회장 한기석) 주관으로 설봉공원에서 지난 28일 실시되어 입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백일장은 시, 수필 분야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학생 수상자는 대학 진학시 특기생(가산점수)으로 추천되며, 일반부는 중앙문단 등단 기회가 부여됐다.

백일장의 심사는 채수영(신흥대 문예창작과 교수), 이진청(한양대 국문과 교수), 유재엽(신구대 문예창작과 교수)이 맡았으며, 오는 11일 오후4시 이천교육청 3층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이천저널 2007. 5. 3〉

잊을 수 없는 슬픈 역사 위안부 소재연극 "나비" 공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극 〈나비〉가 5월 18일 4시와 7시 이천시민회관에서 두차례 공연을 가졌다.

60년째 수많은 증언과 역사적인 사실 앞에 그런 일 없다고 발뺌만 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미국 하원에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망언을 일삼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한 것이다.

〈나비〉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극작가 김정미씨가 94년 단막극으로 완성해

1995년 캘리포니아 주립대 주최 단막극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을 99년에 장막극으로 보완해 미국 LA에서 '하나코'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려졌던 작품이다.

재미작가에 의해 과거사의 아픔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호평을 받을 만큼 치밀하고 탄탄한 극적 구성을 인정받았으며 2005년 진행된 제26회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으로 선정돼 5월 4일부터 12일까지 대학로 학전블루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극단 '아리랑' 대표인 방은미씨가 한국 공연의 연출을 맡았으며 방씨는 "소재의 내용이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에 오히려 그간의 공연과 달리 리얼리티를 극대화했다.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없었던 분들의 한과 아픔을 승화시켜내는 것이 연출방향"이라고 밝혔다.

공연을 주최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권금자 소장은 "미국 등 국제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위안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마저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고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연극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천신문 2007. 5. 10〉

이천쌀문화축제 '2007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

이천시 쌀문화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의 지역축제들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2007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부산 BEXCO, 5.2~5.6)에 참가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참가한 '이천쌀 문화축제'는 전통초가집 구조를 갖춘 독립부스를 마련하고 임금님표 이천쌀, 전통농기구, 이천도자기를 전시하는 한편 짬뽕에 만들기 시연 및 관광객 체험행사를 선보였다.

전국의 지역축제와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축제박람회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체험관, 팔도 먹거리, 특산물 성장 체험관 등의 전시관과 팔도사투리경연대회, 전통민속 체험마당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되는 축제관련 최대 전시·체험행사다.

농업기술센터 유용식 소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박람회에 문화관광부 유망지역축제로 선정된 이천쌀문화축제를 홍보하는 것 외에도 이천쌀과 이천도자기의 우수성 등 이천특산물을 관람객들에게 알려 이천시 홍보효과를 극대화 했다"고 평가했다.

〈이천신문 2007. 5. 10〉

이천여성연합회 '실버가요제' 성황

"어르신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황혼기를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활짝 선사한 이천여성연합회(회장 김정희) 주최 실버가요제가 지난 15일 예선전을 거친 2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 이천도자기축제 기념으로 20일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결선이 치러졌다.

5월 20일 오후 3시부터 도자기축제장 대공연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에 개최된 이날 행사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음악을 통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계기로 매년 이천여성연합회가 주최해 오고 있다.

김경희 이천여성연합회장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에 활력소를 드리고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에도 건강하셔서 이 자리에서 꼭 뵈는 것을 약속해 달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료로 공연을 펼쳐준 공연예술기획 열린무대 김동진(42세)단장의 퓨전 품바타령이 선보여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천상의 몸짓'은 인간의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표현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이천시 청소년무용단과 초청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설봉신문 2007. 5. 24〉

끼와 열정 가득한 문화공간 청소년 문화존 5월 20일 개막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기획과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청소년 문화존'이 20일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화려하게 개막됐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중앙로 문화의 거리 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행될 '청소년 문화존'은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도자와 공예, 놀이체험 등이

마련돼 청소년들은 물론 문화의 거리를 찾는 시민들의 인기를 끌 예정이다.

문화존을 운영해 갈 청소년 문화기획단 '모스' (회장 정웅진·다산고2) 회원들은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가득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중고생 청소년들로 구성된 '모스'는 올해 11월까지 문화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맑은 날씨속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랩, 힙합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위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태호 태권도 체육관 어린이들의 태권무와 격파시범이 눈길을 끌었다. 또 노미선 무용학원 어린이들의 밸리댄스 시범, 힙합댄스, 한국무용 등도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올해로 3년째 개최되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연과 체험 등으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새로운 청소년들의 문화광장을 펼쳐보이고 있다.

매주 일요일 거리문화존은 '자유만족'이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앙로 시계탑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되며 도자체험(컵 꾸미기, 꽃병꾸미기, 표면장식, 도판꾸미기, 물레시연), 놀이체험(미술아 놀자, 타로카페, 보드카페 등), 공예체험(토피어리, 칼라믹스, 와이어공예, 페인팅 공예)등이다.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동아리공연축제는 '미소만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청소년동아리들의 락밴드, 댄스, 비트박스, 전통음악, 미술 등이 다양하게 공연된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멀티스포츠존은 '여가만족'을 주제로 창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

되며 길거리농구, 골프, 탭댄스, X-볼, RC카 등에 대한 체험 등이 선보인다.

〈이천신문 2007. 5. 24〉

‘2007. 이천학생예능 한마당 잔치’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김재만)은 이천시 민회관 대강당에서 초·중·고교 학생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학생예능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예능분야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뽐내는 이천 학생예능경연대회에서 음악분야는 7일과 8일 이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미술분야는 7일 이

천제일고등학교 교정에서 각기 열띤 경연을 펼쳤다.

개회식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전영수 의장, 김현철 이천시부시장, 김태일 이천시의회의장, 이교훈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등 시의원, 청소년지도유관 단체장, 각급학교장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전영수 의장은 “소질과 능력을 키워 세계 최고가 되고, 기량을 마음껏 뽐내길 바란다”며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잘하는 것을 찾고, 좋아 하는 것을 가꾸고, 하고 싶은 것을 키워나가 훌륭한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신문 2007. 6. 14〉

2007 청강대 - SICAF 전국 코스튬 플레이 페스티벌 개최

국내 유일의 문화산업 특성화 대학인 청강문화산업대학(학장 이수형)은 아시아 최대의 만화/애니메이션 축제인 SICAF(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와 손잡고 지난 27일, 서울 무역전시장 야외무대에서 ‘2007 청강-SICAF 전국 코스튬 플레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및 가족 단위의 참가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유 부문과 주제 부문, 사진 촬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자유부문은 주제에 제한 없이 만화, 애니, 게임, 창작과 비주얼 등 총 5개 분야이며, 주제 부문은 한류스타 캐릭터와 헐리우드 스타 캐릭터, 가족과 함께하는 코스

튬 플레이 분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아시아 최대의 만화/애니메이션 축제인 SICAF와 손잡고, 소수 마니아들의 전유물이라고 간주되었던 코스튬 플레이를 청소년들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정착시키고 일반인들의 유쾌한 일탈 또는 가족단위의 즐길거리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 참가와 가족 단위 참가분야를 추가하여 그 영역을 확대 하였다. 또한 일본 애니 및 만화에 국한 되어 있던 주제에서 벗어나 한류스타와 영화로 주제를 정하여 코스튬 플레이의 변화를 주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예선에 참가한 100여개 팀

중 그룹과 개인 등 40여 팀이 본선에 올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비주얼 창작품 등 자유 주제와 한류스타 캐릭터와 할리우드 스타 캐릭터, 가족과 함께하는 코스튬 플레이 등을 특별 주제로 전국 중·고·대학생은 물론 일반인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중 드라마 '주몽'과 '황진이', 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 동화 '신데렐라 뮤지컬' 등 기성세대에게도 낯익은 주제도 많아 가족들과 함께 경연장을 찾은 이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으며, '아키아연대' 팀은 가족이 참여하여 주목을 끝냈다. 이날 '세라센시' 팀(세일러문 뮤지컬)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금상은 '카미즈키' 팀(靑)이 받았다. 또한, 'ZOO' 팀(츠바사 크로니컬)과 '통제영' (조선잡주)팀이 은상을, '표랑군무' 팀 (위치헌터), '매점매니아' 팀 (트릭스터 AD), '폴리모프' 팀 (폴리모프&신데렐라)이 각각 동상을 차지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 이수형 학장은 "7회를 맞이하는 이번 <2007 청강-SICAF 전국 코스튬 플레이 페스티벌>을 통해 일부 마니아의 행사로 여겨졌던 코스튬플레이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놀이문화로 정착시켰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특전 부어를 통해 문화산업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비전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이번행사의 당선작들을 대상으로 2007년 6월에서 7월 한달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투어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천저널 2007. 5. 31〉

다산고 경로잔치 열어 효(孝) 실천 교육 앞장서

지난 5월 31일(목) 이천시 다산고등학교(교장 정애순) 학생들과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는 학교근거리에 거주하는 사슴동, 관고동의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다산고등학교 다산관 3층에서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천시장(조병돈)은 축사를 통해 "어른을 정성껏 섬기고 모시는 것은 효의 시작이며 가정과 사회의 즐거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태일 이천시의회회장, 이종명 관고동장, 정진웅 정다운 가족회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사슴동, 관고동 어르신들은 다산고등학교 무용반 학생들의 큰절과 화관무, 부채춤 합창반 학생들의 아름다운 선율의 합창, 김수영 학생의 판소리, 사물놀이반의 흥겨운 사물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갈비탕, 떡, 다과 등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다산고등학교장(정애순)은 환영사를 통해 "늘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여생을 즐겁게 사시도록 이렇게 조출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 또한 딱딱한 일상의 교과수업에서 잠시 벗어나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1995년 개교 이래 매년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봉신문 2007. 6. 7〉

일본 고오카시 홈스테이 교류 학생 12명 이천 방문

지난 5일 저녁 신둔면 소재 '옛날 쌀밥집'에 모인 12명의 이천 관내 학생들은 일본 고오카시에서 온 12명의 친구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이천시의 자매결연도시인 고오카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이천시와 '2007년도 상반기 중 학생 홈스테이(학생가정에서 숙식하는 것) 교류'를 펼친다. 이천시 관광교류팀에 따르면 청소년 우호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홈스테이 교류는 일본 고오카시 관내 5개 중학교 총 12명의 학생과 고오카시 국제교류협회 이사와 학교교육과 과장이 인솔자로 참여했다고.

방문단은 6일 홈스테이 가정과의 시간, 7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친교의 시간(레크레이션), 8일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 설봉공원에서 도자 제작 체험, 환송식의 일정으로 4박 5일 간의 방문을 마치고 9일 떠난다.

이천시와 고오카시의 홈스테이 교류는 2005년 12월 처음 시작됐으며, 2년동안 이천시 부발중학교 학생들이 일본 고오카시와 상호 홈스테이 활동으로 다양한 문화 교류를 해왔다.

시 관광교류팀 조선영 담당은 "홈스테이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 시민 교류로 안목을 넓히고 문화, 음식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서로간의 우정을 돈독히 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천저널 2007. 6. 7)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 예정대로 이천에서 열린다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는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예정대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는 지난 1일, 최근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행사를 심의 의결 기구인 '11인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지난달 17일, 예술위 위원인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예술위 사무처가 위원회 승인이나 보고도 없이 1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행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공연 행사 추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었다. 이날 11인 위원회는 개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6, 반대 2로 원안을 통과 시켰다.

예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면서 "다만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문화 소외 지역과 소외 계층을 위한 행사로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때 이 행사가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했던 주최측과 이천시측은 안도하면서 이 행사가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랐다.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에는 브라질의 국민가수 이반 린스, 쿠바의 저명그룹 로스 방방, 세네갈 출신의 월드스타 이스마엘 루 등 세계의 저명한 뮤지션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10개국 10여개 팀(100여명)이 참가 의사를 밝혀왔으며, 행사 준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천시 문화상 영예의 수상자 4인

학술부문 류승국, 예술부문 민홍규,
교육부문 조명수, 체육부문 이무정

이천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이천시 문화상(이하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29일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거행됐다.

학술부문을 수상한 류승국(83) 명예교수는 중앙철학자로서 성균관대학교와 동대학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를 이수하며 46년간 동서양의 철학사상을 심층 연구해 왔다.

특히 한국철학사상 탐구에 주력해와 지금까지 갑골학 및 한·중 고대사연구에 기여했고, 백제 무령왕릉 연대고증,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오류 및 위조 부분에 대한 해석, 태극기의 해설과 건국이념연구, 정신문화연구원장 및 학술원 활동 등 우리나라의 학술문화 진흥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예술부문 민홍규(51)씨는 정통 옥새제작기법을 계승한 옥새전각장으로 역대 대통령 옥새 제작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번 정부 주최 새 국새공모전에 당선돼 20여명의 국새제작단을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

198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미술작가전에 참가했고, 1984년 동아미술대전 입상을 비롯해 2001년 경기 으뜸이 선정, 2006년 한국예술평론가협회 미술부문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로 선정된 바 있다.

교육부문 수상자인 조명수(60) 송정초등학교 교장은 1991년 인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입문해 36년간 어린 후학을 양성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철학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다.

체육부문 이무정(66)씨는 지역 체육발전과 여자축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1991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창단된 설봉중학교 여자축구팀 창단에 앞장섰으며, 설봉중 축구부 숙소 '원화관' 건립 기여를 비롯해 바르게살기협의회, 라이온스클럽 활동 등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한 점도 수상자 선정의 배경이 됐다.

(하나로신문 2007. 1. 15)

사기막골, 세계적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도자체험 등 세계적 추세 맞춰 개발

2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이천 사기막골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보고회가 열렸다.

이 보고회는 이천시가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이하 새건협)에 용역을 준 사기막골 환경 개선사업으로 사기막골의 지리적 문화적 환경을 분석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열렸다.

새건협은 "이천의 도자산업개발특구가 북서측

에 설봉공원과 3번국도를 중심으로 형성돼있어 박람회적 성격을 가진 설봉공원, 체험형관광지의 성격을 가진 도예촌, 관람성격을 가진 도자미술관 등의 관광지를 연계해 이천시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의 기초조사, 현황조사, 사례조사, 개념설정, 마스터플랜, 단계별 사업계획을 차례로 발표하며 현재 사기막골의 문제와 개선할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기막골 입구의 상징성이 부족한 버스정류장과 진입부분, 상점간판의 정리, 노후화된 도로의 포장상태, 협소한 주차장 등을 예로들어 전반적인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례조사에서는 해외도자관광지인 대만의 잉거 도자기촌과 일본 도꼬나메야끼와 국내 관광지인 수원 나혜석거리, 부산 광복로, 서울 인사동길,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예로들어 관광주제에 맞는 디자인과 도로정비, 구조물 설치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기막골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이천주민과 기존주민이 함께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도자기마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 등을 활용해 지역의 상징물인 도자를 토대로 도자관련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이지는 의견으로 통일됐다.

시 도에게 담당자는 “세계의 관광자원이 체험 위주의 관광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천도 거기에 발맞춰 도자체험 등 체험위주의 관광으로 이천 사기막골을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천신문 2007. 1. 25)

한층 달라진 평생아카데미

20일 이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제90회 평생아카데미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낸 박재갑씨의 강연으로 ‘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재갑 전 원장은 현대인과 암, 암 극복 과제와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특히 폐암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금연을 적극 권장했다.

故이주일씨의 투병생활을 담은 동영상과 다양한 통계자료를 시각적으로 보여줘 참석자의 이해를 돕고 금연의지를 북돋았다.

박원장은 담배와 관련해 얘기하며 “도대체 정부에서 ‘독’이라고 인정한 담배는 여전히 만들어 팔도록 놔두면서 인체에 아무 해가 없는 구리가 조금 나온다고 지역경제 파탄내는 정부는 사기꾼”이라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천시평생학습센터가 주관하는 이 행사를 시민들은 “공무원만 가는 행사 아니냐, 공무원 중심의 평생아카데미다.”라고 말해 왔지만 이번 90회 평생아카데미에 참석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매우 유익한 강연이었다. 내 건강을 돌아보고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 너무 좋았다.”며 호평을 내렸다.

평생아카데미 관계자는 “그동안 미흡했던 점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진정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천 평생아카데미는 3월 20일에 있을 91회 행사에서 교보증권 김대중부장을 초청 ‘나의 꿈 10억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며 4월 17일에 있을 92회 행사에서는 부산대학교 김기

홍교수를 초청해 '위대한 협상가, 서희'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천신문 2007. 2. 22〉

계절무 지역특산품으로 소득증대에 '한몫'

이천의 토종무인 계절무가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조리가공식품으로 개발돼 특산품으로 생산되고, 소득증대에도 한몫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천시는 이천의 토종무인 계절무가 아주 맵고 조직이 단단해 현대인의 기호에 맞지 않아 잊혀져 가는 추세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 연구소에 개발을 의뢰, 계절무를 이용한 가공조리식품 제조법을 전수 받는다.

가공기술 전수는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회원 10여명이 받는다. 전수받게 되는 조리가공 식품으로는 △계절무 분말2종(동결건조, 열풍건조) △계절무 국수 △계절무 소스2종(고기양념용, 냉채용) △계절무 건조정과 △계절무말랭이 등 총 6가지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와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전 조인식이 오늘 16일(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며, 이날 조인식에서는 계절무를 이용한 가공식품 시식회도 함께 진행된다.

계절무는 그 생김새가 배추 뿌리와 같은 원추형으로 밑으로 갈수록 점차 가늘어진 뿌리가 길게 뻗어 있고 잔털이 많은 무의 일종이며 이천지방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맛은 겨자처럼 아주 맵고 무속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듬해 여름에 농가에서 밑반찬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계절무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으나 이천시 갈산동과 대월면 군량리 등 100여 농가에서 3천평 정도가 아직도 재배되고 있다.

〈이천신문 2007. 3. 15〉

'이섭대천 문헌정보실' 개관

이천교육청(교육장 김재만)은 6일 교육청 3층에서 명품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이섭대천 문헌정보실'에 대한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된 '이섭대천 문헌정보실'에는 이천시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및 교양 신장을 위해 약 4,000여권의 서적과 교육정보자료가 비치돼 있으며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교류 협정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Web DB자료를 원문(Full-Text)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또한 이천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 문헌정보실 배너창을 이용해 자료검색과 독서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돼 있다.

이천교육청은 문헌정보실 운영에 역점을 두고 종합문헌 정보자료센터로서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전문도서, 교육행정, 교육경영 및 교양도서를 확충하는 한편, 각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장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분류하고 제공하여 명품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설봉신문 2007. 3. 8〉

선진국형 도로명 새주소 4월 5일부터 시행

이천시는 기존의 주소를 오는 4월 5일부터 시가지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전환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10월 4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1년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되 2012년부터는 현행 지번주소가 폐기되고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도로명 부여사업 기초자료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까지 도로 및 건물에 번호를 부여 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 시는 도로명판 1,470개수와 건물번호판 15,980개수에 도로명주소 부착을 100% 완료하고, 현재 안내책자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새주소(도로명주소) 제도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가 불교칙하고 복잡해 목적지를 찾기 어려워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기 쉽도록 하는 사업이다.

새주소를 사용하는 방식은 현재 주소가 중리동 187번지인 시청 주소를 이천시 남천로 59(중리동 187번지)로 쓰는 형식이다.

특히 4월부터 2011년까지는 새주소를 쓴 다음 옛 주소를 반드시 ()안에 표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금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로 효력이 인정되어 토지 및 건축물 대장, 호적·주민등록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시의 새주소 확인은 전용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새주소 생활안내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천신문 2007. 3. 22〉

제21기 여성문화대학 개강

이천시는 28일 이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여성문화대학강사, 수강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기 이천시여성문화대학(3.28~7.27)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18개 과정 18명의 강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성악공연, 과정별 오리엔테이션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 1986년 주부취미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천시여성문화대학은 올해로 21돌을 맞은 시의 대표적인 여성문화강좌이자 지역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사회봉사와 지역발전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15개 인력양성과정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3개 소양과정 등 총 18개 과정이다.

아동언어장애지도, 학습도우미, 놀이치료, 동화구연, 부모상담교육 등 아동학습관련 과정이 편성됐고, 우울증 및 조울증 자기치료 과정, 재테크/세테크 알뜰경제교실, 외국인여성한글교실, 여성실버교실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천신문 2007. 3. 29〉

이천시민장학회 11기 장학증서 수여식

이천시민장학회(이사장 김응호)는 23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11기 장학생 106명과 6개 특기단체, 3명의 우수 교사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최우수 장학생 박소담(양정여고) 학생을 비롯해 우수, 진학, 일반, 복지 장학생들이 차례로 조병돈 시장과 김태일 의장, 김재만 교육장 등으로부터 장학증서를 전달받았으며 설봉중 여자축구부, 이천초교 여자축구부, 장호공고 궁도부, 부발중 가야금반, 효양중과 도지초교의 사물놀이반 등은 지난해 좋은 성적으로 입상해 특기단체 지원금을 전달 받았다.

김형래 교사 등 3명은 우수학생들을 지역내 진학시킨 공로로 유공교사 격려금을 받기도 했다.

김응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천시민 장학회의 기금은 이천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돈인만큼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다른 각오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교사우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해 이천교육을 발전시키고 좋은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시민장학생들이 지역발전을 이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했다.

한편 시민장학회는 올해부터 시 지원 장학기금 중 3억 1천만원을 지출해 고3교사 우대를 위한 해외연수와 지원금지급, 논술 특강등의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천신문 2007. 3. 29〉

‘나의 고장 이천’ 찾아가는 해설

10월까지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실시
시각자료 활용해 이천의 문화 및 현황 등 해설

이천시 문화관광과는 지역내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우리 고장에 대한 지식·정보 해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6일부터 시작돼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해설’은 지역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약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광해설 통역사 3명(김미옥, 이선화, 다께다나 나오코)이 이천의 문화 및 현황 등 전반에 대한 시각자료와 유인물을 통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해설’은 지역내 32개의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목 중 ‘내고장 탐구’라는 시간을 활용해 진행한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이천의 일반현황과, 지명유래, 인물, 문화재, 이천9경, 특산물과 축제 등을 해설해 초등학교생들의 우리고장에 대한 이해와 애郷심을 고취시키고자 ‘찾아가는 해설’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천신문 2007. 3. 29〉

이천 쌀문화축제 최우수축제 선정 우수지역축제 평가회 ‘최우수’ 4천만원 지원

이천도자기축제와 더불어 이천지역 4대축제 중 하나인 이천쌀문화축제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07년 우수지역축제 평가회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3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07년 우수지역축제 사업계획 발표 평가’에서 이천쌀문화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번 발표평가는 도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18개 축제가 참가해 홍보와 관광객 유치, 축제내용, 축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실적과 발전가능성, 기반시설, 부합성 등 총 6개 평가 항목으로 우열을 가렸다.

이중 이천쌀문화축제는 평가위원으로부터 전 영역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관광객 유치가능성(관광상품화 가능성),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 된 마케팅전략,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효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47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성과를 비롯해 국민은행과 업무제휴, 지역상권 및 농가소득 연계 등 단순 행사성 이벤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축제전략으로 이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난 1999년부터 개최된 이천쌀문화축제는 매년 10월 하순에 이천설봉공원에서 개최되며 거북놀이, 추수감사제, 임금님진상행렬, 햅쌀장터, 탈곡마당 등 다양한 행사로 수도권 제일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가래떡 만들기 행사’를 기획, 어린이는 물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참여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이천시는 2003년부터 4년 연속 문화관광부 선정 유망축제로 지정된 이천쌀문화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내국인 위주 축제에서 벗어나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가대표 농경문화 축제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제9회 이천쌀문화축제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봉공원에서 개최한다”며 “추수감사제 등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해 탈곡마당, 쌀이야기방, 쌀요리경연 등 쌀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신문 2007. 4. 5〉

‘서희, 협상을 말하다’ 저자 초청 평생아카데미 열어

매달 전문가를 초빙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평생아카데미’가 이번달에는 이천이 배출한 인물 서희선생에 대해 알아본다.

오는 17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평생아카데미는 김기홍 교수(부산대)가 ‘위대한 협상가, 서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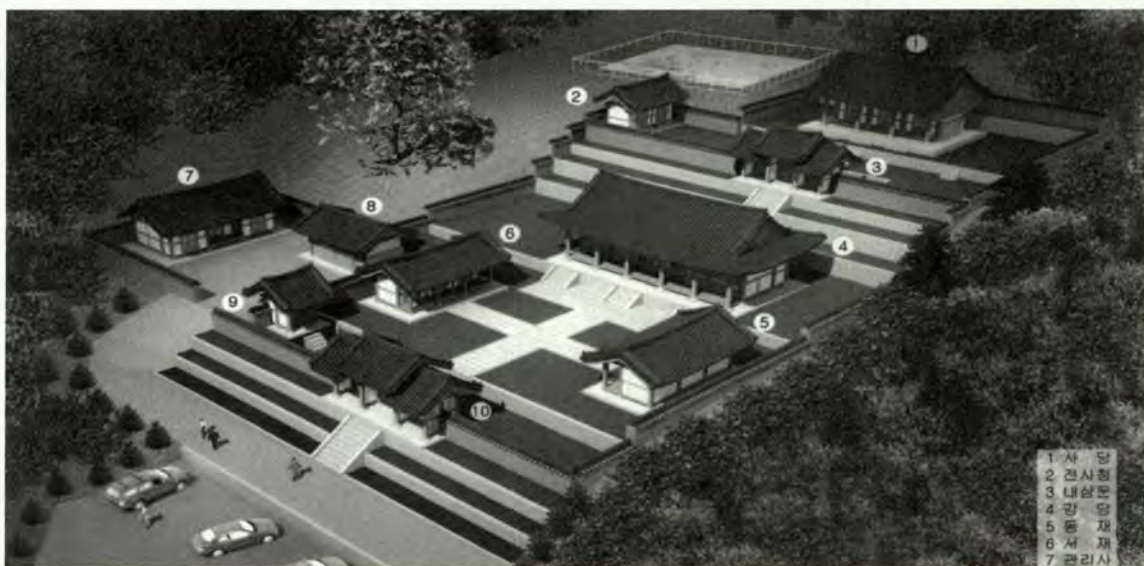
‘서희, 협상을 말하다’의 저자인 김기홍 교수는 서희선생의 일대기와 서희선생의 외교협상이 갖는 의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홍 교수는 “충·효·열의 고장 이천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서희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불멸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서희선생 선양 추모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전공연으로 연희극단 배꼽의 '판소리 서희전'이 공연되어 서희선생의 업적에 대한 판소리화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설봉신문 2007. 4. 12〉

이천 설봉서원 복원 준공식 가져 17억원 투입, 원장에 조남철 씨 선출



사단법인 이천설봉서원(이사장 허섭)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원장에 조남철 이사를 선출하고, 13일 이천설봉서원 준공식을 가졌다.

이로써 이천설봉서원의 운영 계획 수립 및 강좌 개설을 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가동 채비를 마쳤다.

새로 선출된 조남철 원장은 1937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유림지도자 과정을 수료, 공직으로 이천시 의회사무국장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상임위원과 경기도본부 회장직을 맡고 있다. 1년 4개월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된 설봉서원은 부지면적 6,612㎡(2,000평), 건물 10개동 300㎡(91평)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대성전, 동·서재, 내·외삼문 등으로 총 17억원 (시비 14억, 문중부담 3억)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이천시는 바로 ‘이천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세워 서원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경영합리화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며, 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두어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13일 준공식에는 조병돈 이천시장을 비롯해 김태일 시의회의장, 시의원, 이천향교, 유림회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원은 예로부터 선비들이 모여서 명현 또는 충절로 이름 높은 위인을 받들어 모시고 그 덕망과 절의를 본받고 배움을 익히던 곳”이라며 “앞으로 설봉서원이 이천의 충효사상과 예절을 교육하는 곳으로 훌륭한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설봉서원은 이천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와 시민에게 정신적 스승이 되는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한 조선시대 서원(書院)의 복원사업으로 지난 2005년 12월에 착공돼 1년 4개월만에 완공됐다.

이천 설봉서원은 1564년 2월 조선 명종때 현재의 이천 설봉공원 입구에 창건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봉서원 배향인물(북천 서희, 율정 이관의, 모재 김안국, 소요재 최숙정)의 후손인 4대 문중(이천서씨, 광주이씨, 의성김씨, 양천최씨)과 이천향교를 중심으로 지난 2000년 7월 설봉서원 복원건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2004년 6월 사단법인 이천설봉서원을 설립해 복원 추진이 본격화 됐다.

〈이천저널 2007. 4. 21〉

이천쌀문화축제 ‘즐기는 축제’로

올해 이천쌀문화축제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이천설봉공원에서 개최되는 것으

로 결정됐다.

25일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호드러진 풍년마당, 멋들어진 잔치마당’이라는 주제로 체험행사와 즐기는 축제위주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추진위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농업인단체, 예술문화단체, 사회단체 인사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축제운영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쌀문화축제는 농업인들의 풍년 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 축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도농교류축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추진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의 변화 및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축제홍보 방법 개발로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진입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총 12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홍보와 행사운영,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과 축제 컨설팅을 위한 자문단을 함께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을 목표로 별도 TF팀을 구성해 체험 및 즐기는 축제위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축제장 동선변경, 마당별 프로그램개발, 축제홍보 방법개선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운영방법에 대해 집중 연구키로 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07년 우수지역 축제 평가회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돼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이천도자기축제와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성공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설봉신문 2007. 5. 31〉

‘우리가 가야하는 길’ - 이규선 사진전



20여년간 취미로 사진작업을 해오던 사진가 이규선(61, 인천시 중리동)의 사진작품전 ‘Road MOnochrome’ 이 3월 6일부터 18일까지 인천시 부평동 소재 ‘초록갤러리’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충무로에 있는 ‘갤러리카페 브레송’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사진전에는 ‘길’을 주제로 한 20여점의 크고 작은 흑백사진이 선을 보이지만 오래전 아날로그 흑백사진을 추구했던 작가가 촬영에 이어서 보정과 프린트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함으로써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우리가 가야하는 다양한 ‘길’ 위의 모습들을 모노크롬으로 형상화 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없애기도 하고 주제를 실루엣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등 사진과 수묵화와 판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판타지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바라본 길은(어쩌면 그가 걸어온 길인지도 모르겠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지루하지 않고 조금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 길을 가는 사람도 혼자였다가 둘이 되고 셋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여럿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서 인생살이의 지혜를 느끼게도 한다.

‘한국의 부자인맥’의 저자이자 ‘(주)스타스페이스’의 이태규 대표는 초대글에서 “아프리카에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가려면 함께가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내가 자주 말하는 인맥 철학”이라며 “작품이 나의 철학과 서로 맞닿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러한 대목 때문이었다.”고 쓰고 있다.

〈설봉신문 2007. 2. 28〉

이천미협 김학대 작가 초대전

이천미협 부지부장을 지낸 김학대 작가가 2월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구상과 비구상의 만남 2인전’이라는 제목으로 구상부문의 장은숙 작가와 함께하게 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김 작가는 300호 이상의 대형작품 3점과 40호 이상 5점을 출품했다.

60년생으로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수료(현대미술전공) 홍익대, 청강대, 단성갤러리, 조형갤러리 등에서 모두 7회의 개인전을 가진바 있다.

〈이천신문 2007. 2. 1〉

김상기 분청사기전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인사동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 김상기 분청사기전이 열렸다.

전통옹기 제작기법으로 성형한 후 분청기법인 귀얄, 상감, 박지 문양을 응용하여 제작한 이번 전시 작품들은 현대적 감각으로 자연을 형상화하여 장식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상기 작가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우연적인 아름다움이 무한한 해석을 지닌 추상의 아름다움까지 느끼게 한다.

“단번에 느끼는 아름다움보다 돌아서서 느껴지는 깊은 아름다움을, 그렇게 흠에 표정을 만들

고 싶다”며 5번째 개인전을 여는 김상기 작가는 말하고 있다.

〈이천저널 2007. 3. 15〉

강철처럼 단련된 흐린 기억들 이종철 전



〈김 과장 전시장 가는 날〉은 어떤 날인가? 이 이상한 제목의 전시회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들은 미술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우리시대의 김 과장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식의 밑바탕에는 미술품이 희귀품이어서는 곤란하고, 누구나 소장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미술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1부 〈한국 구상 대제전〉(4월 1일-8일)과 2부 〈2007 아트서울전〉(4월 9일-14일)전으로 나뉘어 전시되는데 우리 이천의 예인 이종철 씨가 2부에 초대된 94명 중의 하나다. 부조에 가까운 그의 작품들은 “아주 하찮은 것들의 매우 사소한 이야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켜켜이 쌓인 기억들의 발현으로 보인다. 이종철 씨는 1971년 이천에서 출생해서 충남대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이자, 카오스모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천저널 2007. 4. 5〉

100년 전 우리 만화 다시 본다

서울 충정로 문화일보 갤러리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 충정로에 있는 문화일보 갤러리(02-3701-5760)에서 '100년 전 선물, 우리만화 다시 느끼기' 전시회를 개최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만화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2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작화된 원로작가들의 만화 및 카툰원고, CF 애니메이션 콘티 원고 등 140여 편을 소개하게 된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청강문화산업대학 관계자는 “단순히 과거의 복원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접하기 힘든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작품 한편 한편마다 녹록히 배어있는 작가정신과 예술적 영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년기 시절의 향수를 담은 작가별 대표 작품과 원화, 작화 도구류와 최근 카툰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작품 20여점 등도 소개돼 한국만화의 역사를 가늠하고, 추억의 만화들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관에서는 만화의 발전사, 제2관 만화의 표현, 제3관 만화의 버전으로 나뉘어 전시되며, 전시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 관람료는 무료다.

문의: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역사박물관(031-639-5790)

〈이천저널 2007. 3. 22〉

“나의 언어, 지점준법” -이영환 가람미술관 초대전-



이천의 미술가 이영환 작가가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평에 위치한 가람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가진다.

이영환 작가는 “나의 언어 ‘지점준법’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제작의 순간을 진정한 나라고 정의한다”고 작가노트를 통해 밝혔다.

작가는 이번 초대전의 작품양식에 대해 “자연과 인간관계의 자연적 존재(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것)와 문화적 존재(변화하지 않는 것 가운데 변화하는 것)”을 모티브로 한다고 말했다.

작가의 그림에서 지점준과 어우러진 점(點)은 훈민정음의 음양오행의 원리를 참고해 제작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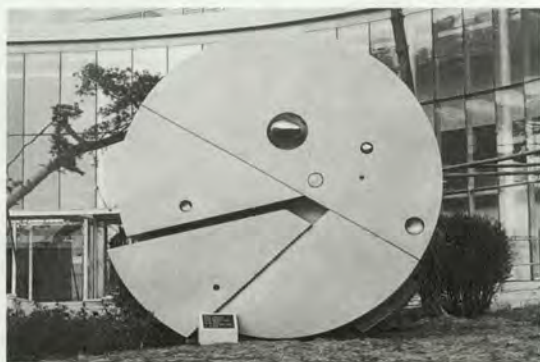
으로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모든 획의 근원이 되는 점(點)이 무한한 변화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재언 미술평론가는 작가의 작품에 대해 “변화무쌍한 점의 다양한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 작가 특유의 지접준과 상응하면서 점으로부터 선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면이 되기도 하는 미학적 성찰이다”라고 평했다.

이영환 작가는 지난해까지 한국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천시부장을 맡았고 현재 동아일보미술동우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소상회 회원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천신문 2007. 4. 26〉

나뭇잎 물고기 연못의 표면과 내부 ‘대지의 틈새’ -강신영 5회 개인전



전 이천미협 지부장을 지낸 강신영씨가 5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대지의 틈새’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양구군 ‘박수근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대지의 틈새’라는 제목에 대해 강 작가는 “대

지는 장구한 시간의 층으로 이뤄져 갈라지고 접히고 퍼지는 지각운동의 연속성 위에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이와 관계속에 놓여있고 사물과 사물이 만나는 접점에는 틈새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강 작가는 땅위를 핏줄처럼 흐르는 물의 여정 중에서 특히 연못에 주목해 맑은 물위에 비친 나무와 그 속에 물고기, 햇살을 모아 작품으로 표현했다.

강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은 일반적으로 철보다 변형이 어려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스테인레스 강의 본질과 기능을 철저히 연구해 자신의 작업에 맞게 진행해 나간다. 일반적으로 디자인만하고 제작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작가들과 구분되는 그만의 특징이다.

시인 최종상씨는 강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해 “대지의 틈새중 하나인 연못의 표면과 생명을 담고 있는 연못의 내부를 드러내는 작업을 시도해 그의 자연주의적 색채와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설봉중, 모가중 등에서 미술교사생활을 하다가 전업작가로 변신, 스테인레스, 동판 등 금속을 사용한 작품을 선보여왔던 강 작가는 64년 양구 출생으로 강원대 미술교육과와 홍익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예술의 전당에서 가진 1회 개인전 이래 이번이 5번째 개인전이다. 이천미협 지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예총 이천시지부 부회장과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이천신문 2007. 4. 26〉

경인칠방, 양점모 씨 『기-2007』

제37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에서 대상 수상

제37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에서 『기-2007』을 출품한 이천의 양점모 씨(이천시 장동1리)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과 상품화를 유도하고 민속 공예 기술을 전승하여 우수 공예품의 판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대전에는 총 454작품(목·칠 102종, 도자·초자 174종, 금속·보석 56종, 섬유·피혁 29종, 기타 93종)이 접수되어 6월 4일과 5일 이틀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비롯한 100종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인 홍익대학교 최승천 명예교수와 심사위원들은 “한국의 전통미, 독창성, 실용성, 양산가능성, 상품화 적정성, 시장성, 기술(품질)수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고 심사 기준을 밝히고, 특히, 영예의 대상인 양점모 씨의 『기-2007』은 “나무의 무늬가 매우 아름답고 형태가 풍성하고 그릇의 본 멋을 최상으로 표현하였으며,

그릇의 원형과 받침의 사각형이 합치된 조형미를 나타낸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대학원 시절 이후 한번도 공모전에 출품해 본 적이 없다”는 양 씨는 “이번 첫 출품에서 대상을 받아 더 기쁘다”며 “앞으로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점모 씨는 배재대학교와 숙명여대 디자인 대학원에서 칠예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 남편인 이상욱 씨(한내초등학교 교사)를 따라 이천에 와 지금은 이천미협 공예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입상작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전시장에 전시되며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천저널 2007. 6. 7〉



모춘자 시인 '산수유 마을로 가면' 출간

이천에서 10년째 시작(詩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모춘자(74세)시인이 백사면의 산수유 마을을 소재로 한 연작시집 '산수유 마을로 가면'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8회 산수유꽃 축제와 때를 맞춰 최근 발간된 이 시집은 모 시인이 1회 축제때부터 줄곧 산수유축제장을 찾으며 기록한 시들과 백사면의 역사와 전통, 볼거리등에 대해서 표현한 작품들 총 66편을 한데 묶었다.

"1회 축제때 처음으로 산수유꽃도 보고 백사면도 들어와 보게 되었는데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과 아름다운 꽃을 60 평생을 살면서도 처음 보는 것만 같았죠. 당시 만해도 많이 오래되고 개발이 덜된 동네였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더군요."

모 시인은 매회 축제 때마다 이곳을 찾아 시를 썼고 소재가 떨어지면 백사면의 역사와 전통을 찾아 공부를 해가면서 연작시를 이어갔다. 모 시인에게는 산수유마을의 풍경 하나하나를 담는 작업이 행복하고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한다.

모 시인의 이번 시 작업에 대해 최광호 작가는 "시인은 산수유꽃에서 신라의 세공술을 경험한 듯한 환상에 빠져 가지마다 노랗게 피어난 꽃송이들을 옛 신라의 섬세하고 찬란한 세공술이 빚어낸 보석에 견주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 이천에

대한 애정과 산수유마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 시집의 판권 전체를 산수유축제 추진위원회에 이관할 생각이다. 책판매에 따른 수익도 모두 축제 추진위에 넘기겠다는 의지다. 인세로 먹고 사는 작가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산수유꽃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산수유마을의 감동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한다.

35년 경남 충무 출생인 모 시인은 목사인 아들을 따라 10년전 이천으로 이사를 왔다.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던 모 시인은 '문학공간'으로 등단해 시집 '풀잎 연가',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를 출간했으며 현재 수필샘 동인 회장을 맡고 있다.

〈이천신문 2007. 3. 29〉

자원봉사센터 활동사례집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소장 이학수)는 최근 가족봉사단 2기 활동사례집을 비롯해 따로 진행된 4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활동내용과 참가자들의 수기 등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행복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가족봉사단 2기의 활동사례를 담은 책자에는 18가족 67명의 다양한 봉사활동 내용을 사진과 함께 담았고 학생과 부모들의 경험담을 수록했다.

치유레크레이션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실행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4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놀이치유, 음

악, 가족놀이, 이미지 치유 등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대한 소개와 평가들을 담았다.

이밖에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1대1로 멘토링하며 대화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봉사단의 활동기록도

‘함께 가는 세상 함께 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발간됐으며 크로마하프 교육과 교육수강생들의 모임인 ‘은빛봉사단’의 활동사례집도 함께 발간됐다.

〈이천신문 2007. 2. 8〉

‘평생학습세상’ 제6호 발간

이천시평생학습센터는 소식지인 ‘평생학습 세상’ 6호를 발간했다.

연 4회 발행되는 이 소식지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후기를 실어 이천시민들이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돼왔다.

이번 6호에는 조병돈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재만 이천교육장의 특별기고, 프로그램활동 집중취재, 동아리 소개, 배움의 코너 등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졌다.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식지를 알차게 꾸며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신문 2007. 2. 22〉

김상직 시집 ‘조용한 반란’

“나는 오늘도 아름다운 빛깔로 저며오는 ‘조용한 반란’ 속에 눈빛에 각인 된 사람들을 내 안에 가둬두고 바라보며 사랑하고 싶다.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해 정의로운 붓대로 사람을 그려가는 오늘이길 바랄 뿐이다.” -저자의 에필로그 ‘마침표를 찍고 나서’ 중에서.

이천출신으로 설성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직 시인이 시집 ‘조용한 반란’을 출간했다.

넓은 편지, 꿈을 쏘는 아이들, 시와 음악, 총 3부로 나뉘 90여편의 작품이 게재돼 있는 이번 시집은 자연과 고향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주로 수록됐다.

52년 이천출생인 김상직 시인은 월간 한맥 문학(시)과 아동문학(동화)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국제펜클럽 회원, 한국자유시인협회 회원, 한국 아동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제펜클럽 경기지역 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계간 참여문학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집 ‘패랭이 꽃의 침묵’, ‘낮은 음자리’ 외 2권을 펴냈으며 동화집 ‘현이의 뚝단배’도 출간했다.

〈이천신문 2007. 6. 14〉



| 제25호 문화원소식 |

제 25 호
2007



문화원소식

News



소원지태우며 새해소망발어 정해년 새해맞이에 시민 3,000여명 참가

황금돼지의 해인 정해년 새아침을 맞는 새해맞이 행사가 1월1일 새벽 설봉산 칼바위 팔각제단에서 열려 조병돈 시장, 김태일 의장, 이규택 국회의원, 우희주 경찰서장, 김재만 교육장과 이상구 문화원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지역인사들과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천시와 이천문화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속에 이른 새벽부터 가족동반으로 산을 오르는 시민들로 설봉산 등산로를 가득 메웠다. 새해맞이 행사는 풍물지기치

레 단원들의 풍물굿으로 시작되어 새해소망과 시민들의 안녕을 비는 기원제가 이어졌다. 일출 예정시간이 되자 조병돈 시장의 선창으로 시민들의 우렁찬 만세삼창이 메아리 쳤으며, 테너 한대상씨의 독창 '희망의 나라로'와 참석인사들의 새해덕담에 이어 흥겨운 지신밟기와 소원지를 매단 신대태우기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이날 동쪽 하늘이 구름으로 가려져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직접 구경할 수는 없었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활활 타



오르는 소원지의 불꽃을 향해 새해소망을 빌었다.

이날 해맞이 행사에는 이천청년회의소와 이천시연합동문회 회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새해인사와 함께 준비한 따끈한 차를 제공했고, 관고동통장협의회에서는 어묵과 막걸리를 무료로 제공했다. 농협이천시지부가 마련한 복돼지 저금통 1천개가 잠깐 사이에 동나기도 했다.

이상구 원장 재선임, 우수회원 표창도 2007년도 정기총회 및 문화가족의 밤



2007년도 이천문화원 정기총회 및 문화가족의 밤 행사가 2월8일 오후6시 은혜웨딩홀 4층 장수홀에서 열렸다. 임원 및 정회원과 공연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만료된 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여 이상구 원장과 이광의·김경희 감사의 재선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행사는 소슬패풍물단의 축하공연으로 막이 올라, 국제조각심포지엄과 설봉문화제를 비롯한 지난 해의 중요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열린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200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에 이어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지었으며, 임원선출은 규정에 따라 유광렬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맡



았다.

총회에 앞서 1월 11일 임원회의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선거공고를 통해 총회 일주일 전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등록된 후보자가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구 현 원장의 재선임을 결정하여 이날 총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최현숙 전 여성회장을 비롯한 우수회원 표창이 있었으며, 선출직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 구성을 신임원장에게

일입한 결과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제12대 임원명단 ■

〈원장〉	이상구		
〈부원장〉	조성원	박향수	최정애
〈이사〉	유광렬	이은구	박의협 노일부
	최병주	조명호	이이선 서동필
	송옥란	한영순	신배섭 김학원
	원용한	엄기환	장영희 김운섭
	유영철	임치환	오홍재 이경완
	이교선	김기호	김미희 김찬식
	장영안	남상구	
〈감사〉	이광의	김경희	

■ 우수회원 표창 ■

- 최현숙(2006년도 문화원여성회장)
- 김판기(정회원)
- 박정덕(여성회 총무)
- 김동숙(소슬패풍물단)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07년도 제1차 임원회의

2007년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제1차 임원회의가 1월11일 오후6시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을 비롯한 임원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정기총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들을 심의했으며, 선거관리를 맡게 될 임원선거관리위원으로 유광렬(위원장), 박의협, 이교선, 최정애, 한영순, 신배섭, 장은실씨 등 7인을 뽑았다.

하이닉스 관련 시민투쟁 적극참여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증설 불허 방침이 윤곽을 들어내면서 불붙기 시작한 이천시민들의 분노가, 시민규탄대회, 쫓겨대회, 촛불집회와 서명운동 등의 각종 대정부투쟁 및 시민운동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문화원 임직원들도 하이닉스 살리기 범시민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2월23일 광화문에서 열린 경기도민범쫓기대회에서는 이천시민들만이 아닌 한강수계 인접지역 경기도민 4천8백여명이 참석하여 잘못된 경제논리와 환경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이상구 원장이 직접 식발식에 참가하여 이천시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이보다 앞선 1월26일 과천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범시민쫓겨대회에는 4,000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이날 문화원에서는 박향수·최정애 부원장, 김용호 향문화회장, 장은실 여성회장을 비롯한 여성회, 향문화, 소슬패풍물단 등 3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하였다. 1월29일 수원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인연합회규탄대회에는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신임회장에 조남걸씨 선임

이천거북놀이보존회 2007년도 정기총회 겸 친목야유회가 2월23일 충남 태안군에 있는 몽산포 해변에서 열려 이인수 사무국장이 보존회 고문자격으로 참석했다.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창립 때부터 일해 온 김양원 회장이 사퇴하고, 후임회장으로 조남걸(이천농업기술센터) 회원을 선임했다. 한편 거북놀이보존회에서는 2007년도 중요사업으로 지난 해부터 추진중인 거북놀이의 문화재지정과 함께 평생학습활동을 통한 거북놀이 보급 활성화, 해외공연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07년 3월~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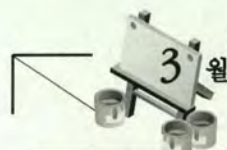
문화달력

● 문화원 소식

- 3.5~4.6 이천문화학교 수강생모집
- 제25호 문화원 소식지 발간 및 배포
- 3.24 제21차 주말문화탐방
- 4.21 제22차 주말문화탐방

● 문화시설 및 단체

- 기독교 박물관 632-1391
- 도립서당 634-3357
- 부래미 마을 634-0817
- 샘표스페이스(실험전시공간) 644-4615
- 세계도자센터 631-6504
- 이천시민회관 635-0100
- 유네스코 문화원 635-9051
- 이천문화원 635-2316
- 부발청소년 문화의집 634-7000
- 이천시립박물관 644-8742
- 이천시립도서관 644-8734
- 이천도자기협동조합 633-6381
- 이천환경운동연합 632-6246
- 이천YMCA 635-0887
- 이천예총 633-6414
- 이천시 청소년상담실 634-2777
- 이천시청 문화관광과 645-3270
- 장호원 문화의집 641-3004
- 창전청소년 문화의집 636-0300
- 청강만화역사 박물관 639-5721
- 해강 도자미술관 634-2266



행사 · 대회

이천시승격
12주년기념식

(3.2)
시민회관대강당

2007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3.3 설봉공원)
이천문화원

소당산 산신제

(3.20 저녁)
신문면 지석리

제외회
평생아카데미

(3.20 16시30분)
시민회관 대강당

이천산수유꽃축제

(3.30~4.1)
백사면산수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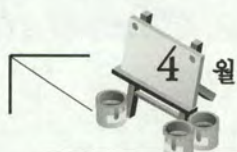
1주

2주

3주

4주

5주



전시 · 공연	프로그램	행사 · 대회	전시 · 공연	프로그램
시립도서관 영화상영 (3.3~31 매주토) 이천시립도서관	2007이천문화학교 수강생모집 (3.5~4.6) 이천문화원		이천시립도서관 영화상영 (4.7~4.28) 이천시립도서관	이천문화학교개강 (4.9부터) 이천문화원
이규선작가 사진전 (3.6~3.18) 인천초록갤러리	2007 청소년활동 참가자 모집 (3월중) 창전청소년문화의집		<백조의 물밀작업전> 기획전시 (2.28~4.15) 샘표스페이스	이천문화교실운영 (3.27~6.22) 이천시립도서관
이천무용발표회 (3.10) 시민회관 대강당	영화 “로버트태권V” (3.17 3회) 시민회관 대강당 011-336-7334	제92회 평생아카데미 (4.17 16시30분) 시민회관 대강당	역사문화대학운영 (3.28~5.16) 시립박물관	주말문화탐방 (4.21(토)) 이천문화원
뮤지컬 “홍부놀부” (3.24 3회) 시민회관 대강당 017-242-3789	3기역사문화대학 수강생모집 (~3.20까지) 이천시립박물관	제2회 이천도자기축제 (4.28~5.27) 설봉공원 · 도예촌		제8회 이천도자기 마라톤대회 (4.28 오전9시) 이천시종합운동장
뮤지컬 “금나와라 똑딱” (3.30 2회) 시민회관 대강당 043-671-1887	여성문화대학 개강식 (3.26) 시민회관 대강당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4.28~6.24) 세계도자센터		



문화단신

신년교류회 열어

이상구 원장은 1월2일 12시 감미옥에서 시민회관 입주단체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신년교류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2시에는 이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였다.

시가라키 교류의 산파역
가네다(金田)씨 별세

1992년부터 시작된 이천문화원과 일본 시가라키정 문화교류의 산파역할을 했던 재일교포 가네다 쇼키치(金田庄吉)씨가 지난 1월9일 별세했다. 향년 83세로 장례식은 10일 오후1시 시가라키정 메모리얼홀에서 거행되었고, 문화원에서는 시가라키정관광협회를 통해서 조화와 함께 조의를 전달했다.

경남이 고향인 가네다 씨는 네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자수성가하여 시가라키에서 토건회사를 경영했다. 문화원과의 교류를 앞장서 추진하고 그후로도 계속해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향문회 월례회 개최

이천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 월례회가 1월18일 오전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김웅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효식 송라문화연구원장(동국대 교수)의 특별강의도 있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

제46차 전국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가 1월31일 오전11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문화원 정기감사실시

문화원 정기감사회의가 1월31일 오후 2시부터 문화원 사무실에서 열려 이광의, 김경희 감사로부터 사업추진과 회계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감사를 받았다.

제90회 평생아카데미

이천시가 주최하는 제90회 평생아카데미가 2월20일 오후 4시30분부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이 초청되어 '암, 극복할 수 있다'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천도자기축제 실무회의

이천도자기축제 실무위원회가 2월27일 오후2시 시청에서 열려 이인수 사무국장과 김영길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기간 중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지회장 공로패 받아

전국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가 2월28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문화재단 소회의실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천문화원이 경기도지회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한 공적으로 남선우 지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지역주민들의 사랑받는 문화원으로



황금돼지의 해인 정해년 새해를 맞아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2월8일 정기총회에서 다시 4년 동안 문화원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천문화원은 지난 1963년에 설립되어 45년 동안 우리고장의 문화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문화 불모지에서 외롭게 시작했던 이천도자기축제를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켰고,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지방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국제 조형예술축제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천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을 앞장서서 실천했으며, 철봉문화제,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주말문화탐방등의 행사와 이천서지발간, 이천학술총서발간, 전통민속예술보존 등도 손꼽을 만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문화원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훌륭하신 전임 원장님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해온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정부의 지방문화정책이 바뀌면서 문화원사업도 치열한 경쟁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한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원도 과거와는 달리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 속에 파고들어 주민들과 함께 숨쉬고 사랑받는 문화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천문화원 800여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2007년 2월 일

이천문화원장 이 상 구 올림

2007년도 이천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

1. 강좌기간

- 가. 3개월 코스 : 2007년 4월 ~ 6월 (12주 24시간 이상)
 나. 6개월 코스 : 2007년 4월 ~ 10월 (24주 48시간 이상)
 다. 개강일자 : 2007년 4월 9일 (월)

2. 강의시간

- 오전 10시 ~ 12시 (주2시간) 기준
 강좌별 시간 조절 가능

3. 수강인원

- 과목당 30명 기준, 수강 신청자가 12명 미만의 강좌는 폐지함.

4. 참 가 비

- 가. 문화원 회원 및 회원가족 : 월 10,000원
 나. 일반 수강자 : 월 20,000원
 » 참가비는 수강 신청시 일시불로 납부함.

5. 재 료 비

- 각 과목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는 실비로 자부담

6. 수강신청

- 2007년 4월 6일(금)까지 문화원 사무국(☎ 635-2316)으로 신청

7. 기타(특전)

- 가. 6개월, 3개월과정 이수자 문화학교장 수료증 발급
 나. 각종 문화예술행사 우선 초대 및 문화원 발간 도서 무료 제공
 다. 기타 문의는 문화원 사무국(☎ 635-2316)으로 문의



2007년도 이천문화학교 강좌 진행계획

문화예술강좌 (7개반)

강좌명	대상	기간	요일	장소	담당강사	경 력
서양화 (기초소묘, 수채화, 유화)	일반	6개월	목, 10시	문화원 문화교실	박호창	전)미술협회지부장, 문화학교 강사
생활도예반	일반	6개월	화, 10시	도예공방 들꽃마을	최현숙	도예공방들꽃마을 운영, 문화학교 강사
장구·팽고리반	일반 직장인	6개월	수, 19시	시민회관 5강의실	이석진	이석진 퓨전국악단 대표, 문화학교 강사
자녀독서지도반	일반	6개월	금, 10시	문화원 문화교실	정복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강사, 문화학교 강사
경기민요반	일반	6개월	금, 10시	소래예술원	전미경	중요중형문화재 57호 전수자, 소래예술원장
생활차다레반	일반	6개월	수, 10시	초인목	김경의	초인목 다례교실 운영, 문화학교 강사
외국인 한국어강좌	외국인	6개월	월, 10시	문화원 문화교실	박현영	서일대일본어과 졸업, 일본어능력1급자격(JLPT)

취미생활강좌 (5개반)

강좌명	대상	기간	요일	장소	담당강사	경 력
일본어 회화반	일반 직장인	3개월	수.금, 18시	문화원 문화교실	KOSEKI-EMI	일본어 공부방 운영, 문화학교 강사
토탈플라워반	일반	3개월	화, 10시	하수꽃이학원	최정애	하수꽃이 원장, 문화원 위원장
컴퓨터반	일반	3개월	금, 10시	상아탑컴퓨터학원	김건기	상아탑컴퓨터학원장, 문화학교 강사
댄스 스포츠반	일반	6개월	수.금, 10시	댄스스포츠이천연수원	김인수	댄스스포츠 이천연수원장 댄스스포츠교육협회 지도자
발지압 건강반	일반	3개월	목, 10시	시민회관 5강의실	민정식	한국족반사학술연구원장, 문화학교강사



제26호 문화원소식

제 26 호
2007



문화원소식

News

미래의 아시아를 빛나는 한달간의 도지여행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도자기축제 개막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1회 이천도자기 축제가 4월27일 이천설봉공원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갖고 3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세계도자센터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문수 경기도지사, 자넷 맨스필드 IAC(국제도자협회)회장을 비롯한 내외귀빈들과 초청인사 2천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미래의 아시아를 빛나’라는 주제로 4월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리는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주행사장인 이천에서는 국제공모전(조형도자부문) 아시아 테마 현대도자전과 함께 국제도자포럼, 클레이올림픽, 프린지 페스티벌 등이 열리게 된다. 광주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우리도자공모전과 동서 도자유물의 보고 터키도자기전, 여주행사장의 국제공모전(생활도자부문)과 세라믹하우스도 도자비엔날레가 아니면 보기 힘든 기획전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는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는 과거의 도자기 알리기 차원이 아닌 마케팅 축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적극적인 마케팅 개념을 도입, 도자수요를 창출하고 도자문화체험을 상품화하겠다는 것으로 프라이빗 도자관, 도자와푸드스타일전, 도자도서관 등이 기획 운영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그밖에도 한중일 도자교류전, 영상체험관, 패밀리 스튜디오와 함께 다양한 도자체험과 공연행사를 준비하였다.

행사기간 중 문화원이 참여하는 행사로는 야생화와 도자기전과 함께 공연행사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행사로는 김대균 줄타기, 풍장21예술단, 전통타악연구소등 국내저명 예술단체들의 초청공연 외에도 소슬패풍물단,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장호원난장패, 설봉중태오름 사물놀이, 다산고무용반 같은 지역단체와 학교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 민속축제 성황리에 끝나



해가 갈수록 사라져가는 전래의 미풍양속과 민속놀이를 되살리려는 뜻에서 이천문화원이 마련한 2007 정해년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음력 정월 열나흘날인 3월3일 설봉공원에서 열려 1500여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는 성황을 이뤘다. 대부분이 가족동반으로 참석한 시민들은 봄날 같은 따듯한 날씨 속에 연날리기와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줄넘기 같은 민속놀이 외에도 부럼 깨물기, 고구마 구워먹기, 달궁 만들기, 소원지 달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오후 3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천거북놀이보존회(회장-조남걸)를 중심으로 문화원여성회와 창전주민자율방범대, 이천예사모동이 준비와 진행을 맡았다.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연과 열레, 제기가 주어졌고 민속놀이 종목별 입상자들에게는 즉석에서 시상품이 주어졌다.

저녁무렵이 되자 소원지를 매단 달집 앞에서는 풍물패들의 흥겨운 지신밟기와 고사판을 시작으로 풍년기원제가 벌어졌다. 조병돈 시장과 이규택 국회의원, 이상구 원장, 유광렬·이은구이사를 비롯한 참석인사들은 달집 앞에서 제를 올리며 한 해 동안 이천시의 번영과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기원제가 진행되는 동안 신둔면 해강도자미술관을 출발한 달궁 행렬이 3번 국도상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기원하는 햇불퍼레이드를 갖기도 했다.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의 참여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전통 민속행사로 정착되고 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기원 - 제10차 촛불집회 주관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기원하는 제10차 촛불문화집회가 지난 3월30일 저녁7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이천문화원 주관으로 이천시 민, 문화원 회원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돈시장, 김태일의 장, 이규택 국회의원, 임진혁, 신광철 비상대책 위 공동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화원 소슬패풍물단의 풍물놀이와 가수 장일섭, 장월섭, 신현례, 진용아의 축하공연이 함께 열린 이날 행사는 촛불점화식과 촛불 전달식에 이어 이상구 원장의 대회사, 신광철 위원장, 성복용 시의원이 연사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촛불을 들고 문화의 거리 행진을 펼친 후 조병돈 시장의 폐회사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제21차 문화가족 주말문화탐방 - 인천광역시 편 - 성황리에 다녀와



인천문화원은 지난 3월 24일 실시한 제21차 주말문화 탐방으로 이상구 원장, 최정에 부원장, 남상구 이사를 비롯한 문화가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답사를 다녀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민회관을 출발한 일행은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자유공원, 차이나타운거리, 한중문화관, 월미산공원 전망대와 연안부두종합어시장 등을 둘러보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의 상징인 서해 바다가 보이는 청량산 자락에 고인돌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시실은 선사시대부터 고려말기 인천 주요 유적과 유물이 전시된 제1실, 조선시대부터 인천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제2실과 기획전시실, 서화실, 기증실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바로 옆에는 인천 상륙작전기념관이 있어 6.25 전쟁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실과 비행기, 탱크 등이 야외 전시되어 있어 함께 동행 한 어린이들이 매우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차이나타운 거리로 이동한 일행은 가족단위로 자유로운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인천문화해설사 팀들의 안내로 조를 나누어 차이나타운과 자유공원을 관람 하였다.

차이나타운은 1894년 청국영사관이 설치되고 청국인 집단 거류지로 설정되면서 타운이 형성되었으며 이름난 청요리집과 우리나라의

자장면이 시작된 곳이다. 최근에도 명맥을 이어 청요리집이 늘어나고 자장면 맛보기 행사가 열려 맛갈스런 요리와 함께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자유공원은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만국공원이라 불렸으며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장군 기념동상을 세우면서 자유공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음은 월미산 공원으로 이동하여 벚꽃나무가 많은 산책로를 따라 월미산공원 전망대에 올라 인천 시내를 조망하였는데 날씨가 맑아 저 인근의 항만시설과 시내전경을 관망하기에 매우 좋았다.

연안부두로 이동한 일행은 종합어시장을 둘러 각종 수산물과 해산물을 구경하고 저렴한 가격의 생선과 젓갈류를 구입하기도 했다. 연안부두 종합어시장은 최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주말문화탐방은 횡수를 거듭할수록 신청이 많아져 그 인기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향교 오충석탑 반환운동 추진

인천향교 오충석탑은 인천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의 하나로서 1915년 일제가 조선불산 공진회를 돈보이게 한다는 구실로 경복궁으로 옮겨갔다. 그 후 1918년 다시 일본으로 옮겨져서 지금은 동경 오쿠라 호텔 경내에 남아 있어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수탈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천출신으로 수탈문화재 환수운동가이기도한 재일동포 김창진씨가 고향을 찾아 지난 4월18일 저녁 신둔면 썰밭집에서 향교오충석탑 반환운동을 위한 협의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상구 원장과 박종환 인천시민포럼대표, 박성재 재향군인회장, 임진혁 비대위 공동대표, 이인수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07년 5월~6월

문화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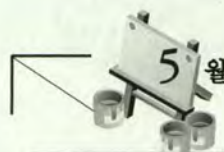
4

● 문화원 소식

- 제26호 문화원소식지 발간 및 배포
- 5.14~16 고카시 이천방문단 영접
-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 상설공연 운영
- 5.26 제23차 주말문화탐방
- 5~6월 달려라 뛰뛰빵빵, 주말버스학교

● 문화시설 및 단체

- 기독교 박물관 632-1391
- 도립서당 634-3357
- 부래미 마을 634-0817
- 샘표스페이스(실험전시공간) 644-4615
- 세계도자센터 631-6504
- 이천시민회관 635-0100
- 유네스코 문화원 635-9051
- 이천문화원 635-2316
- 부발청소년 문화의집 634-7000
- 이천시립박물관 644-8742
- 이천시립도서관 644-8734
- 이천도자기협동조합 633-6381
- 이천환경운동연합 632-6246
- 이천YMCA 635-0887
- 이천예총 633-6414
- 이천시 청소년상담실 634-2777
- 이천시청 문화관광과 645-3270
- 장호원 문화의집 641-3004
- 창전청소년 문화의집 636-0300
- 청강만화역사 박물관 639-5721
- 해강 도자미술관 634-2266



행사 · 대회

1주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
(4.28~5.27)
설봉공원 행사장

2주

어린이영어
말하기대회
(5.12 13시)
시민회관 대강당

3주

고카시국제교류협회
이천방문
(5.14~16)
이천문화원

4주

주말문화탐방
(5.26 토)
이천문화원

5주



달려라! 뚝뚝빵빵 주말버스학교 -이천교육청 이천문화원 공동운영-



이천교육청과 이천문화원은 토요일에 체험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달려라! 뚝뚝빵빵 주말버스학교'를 5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4차에 걸쳐 운영하였다.

주말버스학교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교육과 보육부담 감소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에게 주말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학습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지역내 초등학교 저학년 40명을 선발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지역교육청별로 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추진된 주말버스학교는 자연·문화·역사·환경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운영되었다.

참가학생은 이천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대월초, 도지초, 마장초, 설봉초, 신하초, 아미초, 송정초등학교 7개교 40명을 학교장이 추천했다. 또한 주말버스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효과를 위해 위탁기관 관계자와 전문강사, 지도교사, 담당장학사 등 14명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생들을 인솔하고 지원하였다.

지난 5월 12일 가진 1차 도자비엔날레 프로그램은

도자비엔날레와 도자기 축제장 견학 및 체험 활동으로 이천도자의 이해를 위한 영상체험관, 도자도서관 관람, 프라이빗 도자관, 세계도자센터 전시관 관람과 도예촌에서의 도자장인과 함께하는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했다.

5월 26일 제2차 생태·박물관 프로그램은 먼저 삼성교통박물관을 찾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자동차 체험나라, 자동차 경주의 세계 체험과 한택식물원의 생태체험 및 견학을 실시했다.

6월 9일 제3차 내고장 문화체험에서는 대월면 군량리 자채방아마을을 찾아 마을 유래와 함께 농촌문화 체험을 가졌다. 농로를 따라 경운기를 타고 들녘을 달려보고, 동네 할아버지가 들려 주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감자 캐기, 활쏘기, 손수건 염색하기, 미꾸라지 잡기, 인절미 만들기로 시간 가는줄 모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월 23일 제4차 글로벌 체험학습은 이항초등학교 학습관에서 전통문화체험, 글로벌 매너체험, 외국여행 체험, 우리고장 체험을 하고 미란다 수영장에서 즐거운 물놀이를 즐기며 주말버스학교 전체 일정을 마쳤다.

고오카시 시민교류단 이천방문



일본 고오카시(甲賀市) 국제교류협회 오구라 시게마사 이사를 단장으로 한 시민교류단 13명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천을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도자비엔날레 견학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5월 14일 오후 6시 이천문화원이 유림구관리회관에서 주최한 환영회에는 오구라 단장과 후지무라 미노루 부회장을 비롯한 교류단 일행과, 이상구 원장, 조성원, 박향수, 최정에 부원장 등 문화원 임원, 홈스테이 참가회원 40명이 참석하였다.

이상구 원장은 환영인사에서 지난해 10월 이천문화원 방문단이 고오카시를 방문했을 때 국제교류협회에서 보여준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리며, 이천에 머무는 동안 세계도자비엔날레 견학 등 많은 체험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라고, 앞으로 두 도시간의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시민교류단 전원이 우리민요 아리랑과 일본노래 한 곡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합창하기도 했다.

한편 고오카시 시민교류단 일행중 오구라 단장과 오카와라 요시코 사무국장을 비롯한 홈스테이 희망자 5명은, 조성원 부원장, 남상구 이사 등 문화원 회원 가정에서 이틀간 홈스테이를 실시했다.

시민교류단은 5월 15일 하루동안 부발중학교 방문, 해강도자미술관 견학과 청파요 방문, 세계도자센터를 비롯한 도자비엔날레 및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장 관람, 김치만들기 체험, 조병돈 시장 초청 환영만찬회 참석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상구 원장은 15일 저녁 미란다 호텔에서 오구라 단장을

만나, 청년도예가 교류와 시가라키정관광협회 문제 등 문화원과 국제교류협회 상호교류에 필요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제23차 주말문화탐방 -충남 태안군 지역-



이천문화원 문화가족 제23차 주말문화 탐방이 5월 26일 토요일 이상구 원장을 비롯한 회원가족 90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태안군 지역에서 실시됐다.

아침 일찍 시민회관을 출발한 문화가족들은 태안군에 도착하여 첫번째로 굴포문화 유적지를 찾았다. 태안문화원 명수남 원장의 안내와 해설로 둘러본 굴포유적지는 천수만에 있는 태안읍 인평리와 가로림만의 팔봉면 어송리까지 약 7km에 이르는 거리를 연결하는 운하를 말하는데, 고려 인종 12년(서기 1134)에 처음 착공하여 조선 현종 10년(서기 1669)까지 10여 차례 공사를 시도했으나 바닥이 암반인데다가 조수가 밀려들면 무너져버려 결국 완성하지 못한채 운하유적 일부만 남아있다.

일행은 태안읍으로 이동하여 보물 제432호인 태안마애삼존불상을 찾았다. 태안마애삼존불상은 태안읍 동문리 백화산 정상부근에 있는 백제시대의 마애불로 얼굴은 둥글고 통통한 편으로 백제 마애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작연대는 7세기 초로 추정되며 태안반도와 인접한 지역에 백제시대 대표적인 불상인 서산마애삼존불,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등 많은 불상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리적 중요성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행들은 이어서 안흥성지를 답사하고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찾았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방포마을 별관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송림 숲으로 수령 100년 내외의 소나무 천연림이 넓은 지역에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목재의 생산과정과 용도 등을 볼 수 있는 산림 전시관이 있으며 숲향기를 맡으며 산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숲과 세계꽃 박람회가 열렸던 수목원을 거닐며 자연밋 생태체험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 일행들은 꽃지해변에서 휴식을 취한 후 아쉬움속에 귀로에 올랐다.

제24차 주말문화탐방 -경기도 화성시 지역-



제24차 문화가족 주말문화탐방이 6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이상구 원장, 조명호, 남상구 이사, 장은실 여성회장을 비롯한 124명의 회원가족들이 참석했다.

대절버스 세 대로 시민회관을 출발한 일행은 먼저 사도세자와 부인 혜경궁 홍씨의 능인 융릉과 정조대왕의 능인 건릉을 참배했으며, 가까운 용주사를 찾아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산면 사강으로 이동하여 바지락 칼국수로 점심식사를 마친 일행은 시화호 간석지로 이동하여 천연기념물 제 414호로 지정된 공룡알 화석지를 찾았다. 공룡알 화석지는 원래 이곳이 바다였을때 작은 무인도에 불과했으나, 시화호 건설로 육지가 되면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어 유명해졌다. 지금까지 동지 20여개와 공룡알 화석 130여개가 발견되어

세계적인 공룡유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곳에서 일행은 맨발로 화석지 일대를 돌면서 현지해설사로부터 공룡이야기와 지질에 관한 이야기,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존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공룡알 화석지 방문은 특히 어린이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서 의미있는 자연학습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갯벌휴양지로 유명한 제부도를 찾은 일행은, 가족끼리 어울려 시원한 바다 바람을 쐬면서 휴식시간을 즐긴 후 귀로에 올랐다. 주말 문화탐방은 회를 거듭할 수록 회원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신청접수 당일로 인원이 마감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번 탐방에도 신청자가 밀려 차량 1대를 급하게 증차하기도 했다.

이천향문화회 제2차 역사문화탐방



이천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 김응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17명이 지난 5월 17일 제2회 역사문화탐방으로 충남 서산시 지역을 다녀왔다. 아침 8시, 이인수 사무국장의 인솔로 시민회관을 출발한 일행들은 두 시간여 만에 서산시 운산면에 도착하여,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인 조성옥씨의 안내로 국보 제 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지, 개심사, 해미읍성, 남연군묘 등 유명문화재와 유적 및 역사의 현장들을 차례로 둘러 보았다.

이날 안내를 맡은 조성옥(서산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씨는 해박한 지식과 현장감 있는 해설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구연영의사 기념사업 추진

구연영의사는 이천의병장 출신으로 기독교 전도사가 되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1907년 일본 군에 의해 이천에서 순국하였다. 구연영의사 서거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자 모임이 5월 21일 이천중앙교회에서 열려 이인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감리교 중앙연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동남부지역 감리교단과 문화원, 이원회, 이천YMCA 등 지역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구연영의사 추모사업으로는 기념비 건립과 추모강연회 개최 등이 논의되었다.

2007 전국문화원장 대화의 만남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전국문화원장 모임(대화의 만남)이 6월 12일, 13일 양일간 제주시 KAL호텔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공포에 따라 지방문화원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에 이어, 특강, 박물관 견학 등이 이루어졌다.

군부대 이천이전 규탄대회

군부대이전반대 이천시비상대책위원회가 5월 4일 토지공사에 이어 5월 22일 국방부 전쟁기념관 공터에서 시민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가졌다. 양 일간의 규탄대회에는 이상구 원장을 비롯해 한 다수의 문화원 회원들이 참석했다.

4

2007년도 제2차 임원회의

2007년도 제2차 임원회의가 5월 10일 오후 6시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상구 원장을 비롯한 16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업무보고 및 당면사업계획 심의와 함께 신임임원들에 대한 임원패 수여가 있었다.

2007년 지역문화경영과정 연수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문화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 지역문화경영 중급과정에 김영길 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전 KTX지사와 유성문화원에서 진행되었다.

문화원 경기도지회 운영위원회 참석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차 운영위원회가 5월 23일 경기문화재단 내에 있는 도지회 사무실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총회 개최를 비롯한 도지회 운영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졌다.

제94회 평생아카데미 참석

방송인 임동진씨를 초청한 제94회 평생아카데미가 '참다운 인생'이란 주제로 6월 19일 오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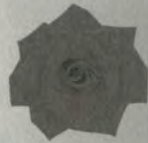
경기동부권 문화원장회의

경기동부권 문화원장 회의가 5월 11일 가평문화원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평문화원 소개와 함께 문화원 간의 정보교류 등에 이어 가평지역 문화탐방의 시간도 가졌다.

이천쌀문화축제 프로그램 개발회의

제9회 이천쌀문화축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팀 회의가 6월 18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려 이인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4일간 열릴 예정인 이천쌀문화축제의 공간구성 및 연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전시 · 공연	프로그램	행사 · 대회	전시 · 공연	프로그램
마당극 변강쇠전 (5.6 15시, 19시) 시민회관 체육관 638-9114	2007이천문화학교 강좌운영 (4월~10월) 이천문화원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기획전시회 (4.28~6.24)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시립도서관 영화상영 (6.2~6.30) 이천시립도서관	2007.이천문화학교 강좌운영 (4월~10월) 이천문화원
한·중·일 도자교류 기획전 (4.28~5.27) 이천시립박물관	주말버스학교운영 (5.12) 이천교육청/문화원			주말버스학교운영 (6.9) 이천교육청/문화원
동화구연극 <흑부리영감> (5.12 14시) 도서관 시청각실 색동어머니회	제93회 평생아카데미 (5.15 16시30분) 시민회관 대강당			
인형극 아기돼지 삼형제 (5.27 13시, 15시) 시민회관 대강당 011-351-9437	주말버스학교운영 (5.26) 이천교육청/문화원			주말버스학교운영 (6.23) 이천교육청/문화원
<드라마투루기> 기획전시 (4.28~5.25) 샘표스페이스				



봄 향기 그윽한 옛길을 걷다 - 제22차 주말문화탐방, 문경시 편



움트는 새싹과 봄꽃의 향기가 그윽한 숲길을 따라 옛길을 걷는 제22차 주말문화탐방으로 이상구원장을 비롯한 51명의 문화가족들이 4월 21일 경상북도 문경시를 다녀왔다. 제1관문 주흘관에서 시작해서 제2관문 조곡관, 제3관문 조령관을 넘는 문경새재 옛길 걷기는 8.5Km에 달하는 제법 먼 길이였지만, 진달래, 산벚 등 다투어 핀 봄꽃들과 계곡 물 소리가 어울려서 지루한 줄을 몰랐다.

문경새재는 조선건국 이후로 약500여년 동안 수도 한양과 영남지방을 잇는 중요 관문이었다. 조령산과 주흘산으로 둘러싸인 천협의 요충지로 삼국시대부터 한말 의병 항쟁기까지 크고 작은 역사의 현장이었고, 조선시대의 영남지방 선비들이 대부분 이 고개를 넘어 과거 길에 올랐다. 울창한 숲과 바위계곡으로 둘러싸여 경치가 아름답고, 교귀정, 이진터, 동화원터 등 각종 문화유산과 기념물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

오전 9시 시민회관을 출발한 일행은 새로 생긴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1시간 20분만에 문경 석탄박물관에 도착해서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석탄산업과 탄광촌에 관한 전시물 및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이어서 고성환 문경문화원 사무국장의 안내로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과 진남교반, 고모



산성을 차례로 둘러보았으며, 점심식사 후에는 유교문화관과 문경도자기전시관을 견학하기도 했다.

문경새재의 옛관로는 충주를 지나 이천지역으로 연결되어 장호원을 이항리 문드러니고개의 구룡암 유래나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과 관련된 기치미고개와 뉘고개의 전설을 남기고 있다.

2007년도 이천문화학교 개강



평생학습 사회를 열어가는 2007년도 이천문화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지난 4월9일부터 강좌별 개강식을 갖고 강좌 운영에 들어갔다.

금년 문화학교는 서양화 생활도예반, 장구·쟁과리반, 자녀독서지도반, 생활차다레반, 일본어 초급반, 일본어 중급반, 토탈플라워반, 컴퓨터반, 발지압건강반(10개반)

서양화, 생활도예반, 장구·쟁과리반, 자녀독서지도반, 생활차다레반, 일본어 초급반, 일본어 중급반, 토탈플라워반, 컴퓨터반, 발지압건강반(10개반)



문화단신

문화
단신

문화학교 관계자 회의

2007년도 이천문화학교 개강준비를 위한 관계자 회의가 3월 8일 오후 5시 문화원 문화교실에서 열려 각 과목별 담당교사와 문화원여성회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구연영 의사 관련자료 조사

김응호 이천향문화회장과 이인수 사무국장은 지난 3월 14일 구연영 의사의 연고지인 이웃광주시 실촌면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했다. 의병장 출신인 구연영 의사는 기독교 전도사 및 애국계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이천에서 순국하였다.

이천시 발전기획위원회의

이천시 발전기획위원회(위원장 조병돈 시장)가 3월 21일 오전 10시 시청회의실에서 열려 이인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도 이천시중요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분과별 토론회를 가졌다.

제8회 산수유꽃축제 개막식 참석

제8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개막식이 3월 30일 오후 2시 백사면 도립리 축제장에서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금년도 산수유꽃축제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 동안 열렸다.

설봉서원 준공식

설봉서원 준공식이 4월 13일 오후 2시부터 열려 이상구 원장이 참석했다. 복천 서희, 울정 이관의, 모재 김안국, 소요재 최숙정 등 4인의 명현을 모신 설봉서원은 총 2천평의 규모로 사당과 강당, 전사청, 동서무, 관리사 등을 갖추었으며 17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되었다.

제92회 평생아카데미 참석

'서희, 협상을 말한다'의 저자인 김기홍 부산대 교수를 초청한 제92회 평생아카데미가 4월 17일 오후 시민회관대강당에서 열려 이인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평생학습도시건설 실무협의회

평생학습도시건설 실무협의회가 4월 18일 오후 4시 평생학습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려 김영길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실무부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추진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졌다.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책 포럼

일제강점기 시절 강탈된 한일불법문화재 반환촉진정책포럼이 4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 공동주최로 열려 김응호 향문화장, 유광렬 해강도자미술관장, 이인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 공연 안내 ➡➡➡

순서	일시	단체명	공연내용	비고
1	5.9(수) 4시	소슬패 풍물단	소슬패 풍물 공연	
2	5.11(금) 2시	효양중학교 풍물반	웃다리 풍물놀이(선반)	
3	5.12(토) 5시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줄타기 보존회	줄광대 김대균의 재미있는 줄타기 여행	
4	5.13(일) 1시	장호원 풍물 난장패	삼도 사물놀이(얇은반)	
5	5.13(일) 4시	풍장21 예술단	전통국악 공연(설장구, 북의소리 등)	
6	5.16(수) 2시	댄스스포츠 이천연수원	댄스스포츠 시범 공연	
7	5.17(목) 2시	다산고등학교 무용반	한국무용(화선무, 장구춤, 검무)	
8	5.19(토) 2시	페루민속그룹 유아리	안데스 민속음악 공연	
9	5.19(토) 5시	전통타악연구소	퓨전콘서트 공감21 (한국타악과 안데스 음악)	
10	5.20(일) 5시	이천거북놀이보존회	이천거북놀이 공연	
11	5.22(화) 2시	이황초교 한마루사물팀	삼도사물놀이(얇은반)	
12	5.23(수) 3시	설봉중 태오름사물팀	삼도농악, 판굿	
13	5.25(금) 2시	댄스스포츠 이천연수원	댄스스포츠 시범 공연	
14	5.26(토) 4시	이석진 이스터노크	이석진 퓨전콘서트	

• 이천문화원의 문화가족으로 모십니다 ➡➡➡

이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법령 제4718호)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1963년 설립되어 우리 고장의 문화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 사업
- ☞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출판 사업
- ☞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및 국내외 교류사업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 ☞ 지역환경 보존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1. 회원구분 :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 ☞ 정 회원 - 입회비 30,000원, 월회비 15,000원 (연 180,000원)
 - ☞ 일반회원 - 입회비 10,000원, 월회비 5,000원 (연 60,000원)
 - ☞ 특별회원 -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 발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월회비 20,000원)
- ※ 회비납입통장 : 농협 233018-55-000521 예금주 : 이천문화원 ※ CMS 자동이체신청도 가능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총회를 통해 문화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규약의 준수, 총회 이사회 결의 사항 준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갖습니다.

3. 회원가입 혜택 : 연2회 발행하는 설봉문화지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 우송, 본회에서 기획하는 각종 공연 전시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이천문화학교 수강 신청시 할인혜택, 회원중심 문화강좌 및 문화유산답사 참여, 예능 취미 교양 활동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천문화원의
문화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법령 제4718호)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1963년 설립되어 우리 고장의 문화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 사업
- ☞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출판 사업
- ☞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및 국내외 교류사업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 ☞ 지역환경 보존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1. 회원구분 :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 ☞ 정 회 원 - 입회비 30,000원, 월회비 15,000원 (연 180,000원)
- ☞ 일반회원 - 입회비 10,000원, 월회비 5,000원 (연 60,000원)
- ☞ 특별회원 -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 발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월회비 20,000원)

※ 회비납입통장 : 농협 233018-55-000521 예금주 : 이천문화원 ※ CMS 자동이체신청도 가능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총회를 통해 문화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규약의 준수, 총회 의사결의사항 준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갖습니다.

3. 회원가입 혜택 : 연 2회 발행하는 설봉문화지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 우송, 본회에서 기획하는 각종 공연 전시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이천문화학교 수강 신청시 할인혜택, 회원중심 문화강좌 및 문화유산답사 참여, 예능 취미 교양 활동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만족이 큰 만큼 비즈니스도 행복해집니다

수많은 정보를 놀랍도록 빠른 시간내에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하이닉스 DDR2 메모리 장착 서버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입가에 만족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성공확신을 보장하는 최고의 서버, 하이닉스 DDR2 시리즈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DDR2 FBDIMM

- Higher capacity & bandwidth, Better signal integrity
- Higher density & speed support up to 4GB, DDR2 533/667/(800)
- Improved system performance & reliability
- Enhanced thermal issue using FMHS
- Increased FBD platform longevity

DDR2 RDIMM

- Improved system reliability with parity function support
- Supports highest density & speed up to 4GB, DDR2 533/667/(800)
- Higher bandwidth

hynix 아이닉스반도체

467-701 경기도 이천시 부평읍 아미라 산 136-1
대표전화 031-630-4114 팩스 031-630-4103

www.hynix.co.kr